

합격을 1위 남부

남부를 켜면 합격이 보인다



- 01_ 남부 합격 가이드
- 02_ 합격 노하우 총정리

QMG 박문각 남부고시학원

Contents

Part 01

남부 합격 가이드

01_

공무원이란? • 6

02_

9급 공무원 • 8

- ▶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안내 • 8
- ▶ 2013년 시험제도 변경 안내 • 18
- ▶ 서울시 및 지방직 9급 공무원 • 22
- ▶ 합격수기 • 24
- ▶ 자주 질문하는 공무원 시험 FAQ • 28

03_

7급 공무원 • 34

- ▶ 국가직 7급 시험 안내 • 34
- ▶ 합격수기 • 38

04_

법원 · 국회사무처 공무원 • 42

- ▶ 법원사무직 · 등기사무직 공무원 • 42
- ▶ 국회사무처 8·9급 공무원 • 46

05_

경찰 · 소방 공무원 • 52

- ▶ 경찰 공무원 • 52

- ▶ 해양경찰 공무원 • 61
- ▶ 소방 공무원 • 66

06_

면접 • 74

- ▶ 공무원 임용의 최종관문 통과 전략 • 74
- ▶ 공무원 면접시험 총정리 • 84

Part 02

합격 노하우 총정리

01_

일반행정직 • 86

- 지금의 노력은 훗날 값진 경험될 것 • 88
- 노력하세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간절한 순간인 것처럼 • 92
- 최종 합격, 그간의 노력을 보상받는 순간 • 96
- 지금 하늘을 감동시킬 만큼 공부하고 있는가 • 100
- 용기라는 물을 매일 주어 나를 가꾸시기 바랍니다 • 104
- 시험에 임하는 자세는 흔들림 없이 그리고 절박하게 • 108

02_

세무직 • 112

- 오래된 나의 꿈 • 112
- 내가 왜 공무원이 되어야 하는가? • 116
- 공무원 시험 준비부터 최종 합격까지 • 120



남부를 켜면
합격이 보인다!

03

사회복지직 • 124

합격의 설렘과 기쁨, 늘 잊지 않습니다 • 124

이제는 좋은 공무원이 목표입니다 • 128

공정과 자신감, 좋은 결과를 부르는 주문 • 132

04

교육행정직 • 136

나를 잡아 준 '절박함 · 간절함' 그리고 '초심' • 136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노력' • 140

나는 지금 합격을 향한 계단을 오르고 있다 • 144

05

소방직 • 148

반짝반짝 빛나는 소방공무원의 꿈 • 148

끊임없는 동기 부여가 합격의 원동력 • 152

노력 없는 자신감은 '자만'입니다 • 156

06

기타 직렬 • 160

한 번의 노력, 스스로를 달라지게 합니다 • 160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도전한 관세직 • 164

직업 전환의 쉽지 않은 길 • 168

남부를 켜면
합격이 보인다!



Start!

Part 1

남부 합격 가이드

1

공무원이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국민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용되어 국가나 공공단체와 공법상의 근무관계를 맺고 공공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채용 시험을 통해 임용되며, 시험은 공개경쟁 채용 시험과 특별 채용 시험(제한경쟁 특별 채용 포함)이 있다.

➤ 공무원 구분

구 분	국가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
시험 공고	매년 12월 말이나 1월 초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 공고
시험 시기	7월(9급), 6월(7급)	8월(9급), 10월(7급)
합격 후 근무처	중앙부처 또는 중앙부처 하급 기관	각 지방자치단체 하급 기관

➤ 공무원 소개

공무원은 어느 직업이나 직장보다 신분 보장과 함께 안정성이 보장되는 직업이다.

근년에 취업 희망자들 사이에서 공무원 시험에 대한 관심은 가히 폭발적이라 할 수 있을 만큼 크게 늘어났다.

이처럼 공무원 시험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 공무원에게 가장 약하였던 봉급과 복지후생이 최근 일반기업체 수준까지 향상된 점과 함께, 어려운 취업난 속에서 고학력자들이 대거 공무원 시험 준비로 발길을 돌리는 현상 때문이다. 이는 직업에 따른 사회적 편견이 줄고 개인이 사회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가장 보람된 직업 중의 하나라는 인식이 확산된 데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7 공무원 시험 개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채용 시험을 치러야 한다. 채용 시험에는 공개경쟁 채용 시험과 특별 채용 시험(제한경쟁 특별 채용 포함)이 있다.

공무원 시험의 장점은 응시 기회가 모든 국민에게 개방되어 있고, 선발 과정에서 객관성·공정성이 철저히 보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공무원의 채용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 채용 시험에 의한 충원이 곤란한 분야에 한해 제한적으로 제한경쟁 특별 채용 시험과 특별 채용 시험으로 뽑고 있다.

공개 채용 시험은 일반공무원 시험의 경우 중앙부처의 계장, 시·도의 과장 계급인 5급 공채(고등고시), 중견 실무 직급인 7급 공채, 그리고 하위 직급인 9급 공채 시험으로 나누어진다.

5급 공채는 행정고등고시(행정·공안직, 기술직), 외무고등고시 등으로 구분하며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실시하는 시험과 국회사무처에서 시행하는 입법고등고시, 법원행정처에서 시행하는 법원행정고등고시가 있다.

7급 및 9급 공채는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뉜다.

국가직은 중앙인사위원회 공무원 시험과 입법부 공무원 시험, 그리고 사법부 공무원 시험으로 나뉜다. 중앙인사위원회 공무원 시험의 행정·공안직, 기술직 등 주요 직렬은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시행하는데, 이 시험은 매년 1월 초 서울신문 및 관보에 공고한다. 입법부 공무원 시험은 국회사무처에서 시행하는 시험이며, 사법부 공무원 시험은 법원행정처에서 시행하는데 법원서기보와 등기서기보 채용이 있다.

지방직은 각 시·도(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하는데 시험 시행 시기는 통합하여 치르고 있다(단, 소방직, 서울시 지방직은 별도 시행).

또한, 경찰공무원(경찰청·해양경찰청 시행), 국가정보원 공무원(국가정보원 시행) 등 특정직 공무원은 별도의 시험으로 채용하고 있다. 각 시·도별로 채용하는 특정직인 소방직 공무원도 별도로 채용하며, 군무원은 국방부, 육군 본부, 공군 본부, 해군 본부와 각 예하 부대에서 근무 희망 지역별로 채용하고 있다.

2

9급 공무원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안내

행정안전부에서 시험을 주관하며 합격 후 국가 중앙부처 산하 기관에서 근무하게 된다.

▶ 시험 공고 및 원서 접수

국가직 채용 시험 계획 공고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www.gosi.go.kr>)에서 매년 초 확인할 수 있으며, 원서 접수도 이곳에서 가능하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 사이트맵 | 원서지원 >

시험안내 | 원서접수 | 시험문제/정답 | 서류전형/면접시험 | 채용후보자 | 자료실 | 온라인지원 | 마이페이지

시험공고/공지사항 | 시험정보안내

최근소식 및 공지사항

- 2012년도 지역인재 9급 견습직원 ... 2012.07.26
- 2012년도 5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 2012.07.26
- 2012년도 5급 공채(별정) 2차시... 2012.07.19
- 2012년도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2012.07.19
- 2012년도 외무 5등급 수습사무관 ... 2012.07.12
- 2012년 지역인재 9급 서류전형 ... 2012.06.29
- 2012년도 9급 공채 필기시험 합격... 2012.06.28
- 2013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일정... 2012.06.21
- 2012년도 5등급 외무공무원 공개경... 2012.06.21
- 2012년도 9급 공채 필기시험 합격... 2012.06.20

원서접수

국가공무원임용시험원서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GO >

응시표출력

국가공무원임용시험 응시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GO >

합격 및 성적조회

국가공무원임용시험 합격 및 성적조회입니다.

GO >

시험절차안내

국가공무원임용시험에 관한 전반적인 절차안내입니다.

GO >

● 시험일정

5급(별정직)	5등급(외무직)	5급(기술직)	7급공채	9급공채
원서접수	1차시험	1차합격자발표	2차시험	2차합격자발표
1.25 ~ 1.30	2.25 ~ 2.25	4.19	7.3 ~ 7.7	10.17
				11.16 ~ 11.17
				11.28

합격증명서발급 | 나라일터 | 장애인구직신청

본인발급서비스 | 정부부처 인사커뮤니티 | 공무원시험 응시 정보인용 위한 구직신청

행정안전부 | 자치단체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 | 기타 공무원 채용시험 기관 | 시험정보작성작업

사이버국가고시센터 | 담당업무 및 전화번호 | 501-0535 | 개인정보보호정책

서울시 중구 함정리로 행정안전부 채용관리과 (무고통98) TEL: 02-2100-3399
COPYRIGHT © 2007-2008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LL RIGHTS RESERVED.

ㄱ 시험 방법

- 제1·2차 시험(병합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 7·9급 공채시험 중 교정직(교정) 및 철도공안직(철도공안)의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체력검사)을 실시하고,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ㄱ 시험일

매년 7월 실시 예정(2013. 7. 27. 시행)

ㄱ 시험 시간

10:00 ~ 11:40(100분)

직렬별 5과목에 대해 각 과목당 20문항씩 총 100문항을 100분 동안 다 같이 풀게 된다.

ㄱ 응시 자격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응시연령]

- 9급 공채 : 18세 이상(1995. 12. 31. 이전 출생자 - 2013년 기준)
- 9급 공채 중 교정·보호직 : 20세 이상(1993. 12. 31. 이전 출생자 - 2013년 기준)

[자격증]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

7급	전자계산기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9급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 7급 공채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은 9급 공채 응시에도 인정된다.

[장애인 응시자]

장애인 구분 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하며, 장애인 구분 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다.

[저소득층 구분 모집 응시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2011. 1. 1. 전에 급여(보호) 실시가 결정되어 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하고(보호받고) 있는 자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균형인사정보과(02-751-1674, 1676)로 문의하기 바란다.

[지역별 구분 모집의 거주 기간 제한]

9급 공채 시험 중 지역별로 구분 모집하는 시험은 2013. 1. 1.을 포함하여 1월 1일 전 또는 후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다(다만, 서울·인천·경기 지역은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취업 보호·지원 대상자]

- 취업 보호 대상자 및 취업 지원 대상자 가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취업 보호 대상자 및 취업 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 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 취업 지원 대상자 여부와 가점 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한다.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 선발 예정 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 단위(교정직, 보호직 제외)를 대상으로 함.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 목표 비율의 30%(검찰사무직의 경우는 20%)에 미달할 경우, 하한 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목표미달 인원만큼 추가 합격 처리함(하한 성적 : 합격선 -3).

가산점

▶ 공통으로 적용되는 가산점(전산직 제외)

구 분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1%	0.5%
7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9급	정보관리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한다.

행정직 (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
행정직 (교육행정)	변호사
행정직 (회계)	공인회계사
세무직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직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감사직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교정직·보호직·철도공안직	변호사, 법무사
검찰사무직·마약수사직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통계직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단, 7급은 3% 가산)

▶ 직렬에 따른 업무 내용

직렬(직류)	업무 내용
행정직 (일반행정)	• 각종 국가제도의 연구·법령입안 및 관리감독 업무 • 사무관리능력을 바탕으로 한 기획적·관리적·지원적인 성격의 업무
행정직 (교육행정)	• 교육제도의 연구, 법령입안 및 관리감독 업무 • 각 교육기관의 행정관리업무
세무직	• 내국세의 부과 및 감면 징수 • 국세심사청구에 대한 심판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관세직	• 수출입 물품의 통관 및 밀수단속, 조세범칙 사건의 조사·심리 • 관세의 부과·감면·징수
교정직	• 재소자의 구금·계호·작업·직업훈련·교화교육 • 석방자의 보호·생활지도 • 교정시설의 운영관리 및 경비 • 교정직 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교정행정
보호직	• 보호소년과 가위탁소년의 수용보호·교육 및 기술훈련을 통한 직업 보도 • 소년의 자질을 분류 감별하여 법원에 심판자료 제공 • 소년원 및 소년부류심사원의 운영·감독 등 소년보호행정 • 보호관찰의 실시 및 범죄예방활동 • 보호위원회에 대한 업무감독 •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자립지원 및 응급 구호 •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
검찰사무직	• 범죄 사건의 접수·처리 및 검사가 행하는 범죄 수사, 공소 제기·유지 등 검찰사무 보조 • 국가의 이해와 관련 있는 소송사무, 각급 배상심의회 운영
마약수사직	• 마약 사건의 접수·처리 및 마약 범죄수사·조치 • 마약·한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의 유통단속
출입국관리직	• 내·외국인의 출입국 업무 • 출입국 관리사법의 단속·수사 및 조치 • 외국단체의 등록·활동조사 등

철도공안직	• 열차 내의 질서 유지를 위한 사법경찰관리로서 열차 내 승객의 안전보호, 철도 장비·화물·승객의 휴대품 도난 방지 • 기타 열차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 사건의 처리 ▶ 열차 내에서 행하는 승차권 검사 등 철도 운송에 관한 업무는 운수직이 담당
전산직 (전산개발)	• 행정 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조정 • 전산화 업무의 분석·설계 및 프로그램의 작성·유지 • 전자계산조직에 의한 자료의 처리보관 운용 및 전산요원의 교육훈련 등에 관한 업무

기출문제 확인하는 곳

사이버 국가고시센터(<http://www.gosi.go.kr>)에서는 2007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진행되었던 시험에 대한 기출문제를 위의 시험문제/정답에서 다운받아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서울시는 제외).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 사이트맵 | 관리자 |

시험안내 | 원서접수 | 시험문제/정답 | 서류전형/면접시험 | 채용후보자 | 자료실 | 온라인지원 | 마이페이지

문제/정답안내 | 문제/정답객관식 | 문제/정답주관식 | 정답이의제기

시험문제/정답
Exam Questions / Answer

D 문제 / 정답 객관식 | 시험문제/정답 객관식 관련 내용입니다.

*연도 2012 *시험명 -선택- *과목명 -선택- 조회

번호	연도	시험명	과목명	책형	문제	정답
					HWP	PDF
1	2012	7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자료구조론(7급)	인	[다운받기]	[다운받기]
2	2012	7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영어(7급)	인	[다운받기]	[다운받기]
3	2012	7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건축계획학(7급)	인	[다운받기]	[다운받기]
4	2012	7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건축구조학(7급)	인	[다운받기]	[다운받기]
5	2012	7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건축시공학(7급)	인	[다운받기]	[다운받기]
6	2012	7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경영학(7급)	인	[다운받기]	[다운받기]
7	2012	7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관계법(7급)	인	[다운받기]	[다운받기]
8	2012	7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전기자기학(7급)	인	[다운받기]	[다운받기]
9	2012	7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교정학(7급)	인	[다운받기]	[다운받기]
10	2012	7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토질역학(7급)	인	[다운받기]	[다운받기]

1 2 3 4 5 6 7 8 9 10

행정안전부 | 자치단체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 | 기타 공무원 채용시험 기관 | 시험정보전자북

▶ 2013년도 국가직 시험 과목

직렬(직류)		필수(3과목)	선택(2과목)
행정직	일반행정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교육행정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선거행정		행정법총론, 공직선거법
세무직	세법개론, 회계학,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관세직	관세법개론, 회계원리,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통계직	통계학개론, 경제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교정직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보호직	형사소송법개론, 사회복지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검찰사무직	형법, 형사소송법,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마약수사직	형법, 형사소송법,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출입국관리직	행정법총론, 국제법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철도공안직	형사소송법개론, 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 국가직 공무원 9급(2010~2012)

구 분		2010			2011			2012		
		모집인원	경쟁률	합격선	모집인원	경쟁률	합격선	모집인원	경쟁률	합격선
일반행정 - 전국		200	181.1	80.50	136	181.1	87.00	26	1098.8	89.50
일반 행정 I 지역	서울·인천·경기	107	126.6	80.50	29	258.2	87.00	174	126.2	88.00
	강원	15	98.7	80.00	22	70.5	82.50	25	66.7	84.00
	대전·충남·충북	35	104.7	80.00	26	112.3	84.50	45	115.9	86.50
	광주·전남	10	136.9	80.00	13	148.6	87.00	12	182.5	87.50
	전북	7	202.6	81.00	10	107.1	84.00	8	178.4	87.50
	대구·경북	11	196.1	81.00	11	207.1	87.00	23	184.4	87.50
	부산	6	256.8	82.00	7	212.6	86.50	10	283.4	89.50
	울산·경남	7	212.0	81.00	8	201.5	86.00	24	137.5	86.00
	제주	2	89.5	82.00	1	132.0	88.00	2	133.0	84.50
우정 사업 본부	서울	73	64.5	79.00	9	86.0	84.00	19	56.4	86.50
	인천·경기				18	68.9	83.50	17	58.6	86.00
	강원	10	63.4	79.00	6	39.7	78.50	29	21.0	78.00
	대전·충남	43	39.6	77.00	31	44.8	82.00	29	34.4	81.50
	충북	29	31.7	74.00	21	41.8	81.00	22	35.9	82.50
	광주·전남	28	57.3	78.50	5	94.6	83.00	22	63.7	85.00
	전북	11	81.3	80.00	25	39.3	81.50	20	52.8	84.00
	대구·경북	62	54.6	78.50	9	122.9	86.00	50	48.7	83.50
	부산	17	73.9	78.50	3	144.0	83.00	24	65.8	86.00
	울산	54	41.0	77.00	9	114.1	82.50			
	경남							27	41.7	82.50
	제주	5	32.8	75.00	5	45.2	82.00	27	41.7	83.00
교육행정		14	583.8	85.00	16	583.8	83.00	16	618.4	86.00
세무		124	86.3	77.50	86	86.3	85.00	330	29.4	79.00
관세		89	42.9	77.50	108	42.9	82.00	121	33.5	82.50
검찰사무		149	64.5	83.00	198	64.4	83.00	196	66.0	82.50
교정(남)		188	25.8	70.50	207	25.8	76.50	349	17.4	72.00
교정(여)		10	68.7	78.00	10	68.7	81.00	20	33.6	77.50
보호(남)		47	20.9	72.50	63	20.9	76.00	63	21.2	73.50
보호(여)		12	52.7	73.50	16	52.7	79.00	15	76.0	77.00
마약수사		3	89.0	82.00	3	89.0	78.00	2	173.5	82.00
출입국관리		50	50.8	79.50	149	50.8	83.00	118	49.0	86.00

▶ 2013년도부터 고등학교 출신자 등의 공무원 공채 시험 응시 기회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 기존 9급 공채 시험 전공 과목과 고교 이수 과목(사회, 과학, 수학)에 행정학개론이 선택 과목으로 변경·추가된다.

- 우정사업본부 전산직(전산개발)은 합격 후 대부분 우정사업 정보센터(2013년 전남 나주 이전 예정)에서 근무하게 된다.
- 교정학개론에 형사정책 및 행형학, 국제법개론에 국제경제법이 포함된다.
- 2013년도부터 회계학 출제 범위에 정부회계가 포함된다.
- 2013년도부터 세무직렬 및 감사직렬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이 회계학으로 변경된다.
- 2014년도부터 전산직(전산개발)의 프로그래밍언어론이 정보보호론으로 변경된다.
- 2013년부터 선관위 7·9급 공무원 공채 시험과목이 변경된다.

구 분	변경 전(일반행정직류)	변경 후(선거행정직류)
7급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공직선거법
9급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공직선거법

▶ 국가직 경쟁률 및 필기시험 합격선(주요 통계 자료)

❖ 가산 특전자 현황

구 분	계	비가산	가산 특전자 현황			
			소 계	취업 지원	자격증	취업 지원 +자격증
총 계	2,990	586 (19.6%)	2,404 (80.4%)	60 (2.0%)	2,197 (73.5%)	147 (4.9%)
일 반	2,786	520 (18.7%)	2,266 (81.3%)	51 (1.8%)	2,078 (74.6%)	137 (4.9%)
장애인	141	40 (28.4%)	101 (71.6%)	7 (4.9%)	83 (58.9%)	11 (7.8%)
저소득층	63	26 (41.3%)	37 (58.7%)	2 (3.2%)	35 (55.5%)	—

▶ 전년 대비 가산 특전자 비율 6.6%p↓(2011년 87.0%)

❖ 연령별 합격자 현황

구 분	계	18~ 22세	23~ 27세	28~ 32세	33세 이상			
					소 계	33~ 39세	40~49세	50세 이상
총 계	2,990	65 (2.2%)	1,132 (37.9%)	1,194 (39.9%)	599 (20.0%)	492 (16.4%)	99 (3.3%)	8 (0.3%)
일 반	2,786	54 (1.9%)	1,049 (37.7%)	1,129 (40.5%)	554 (19.9%)	461 (16.5%)	85 (3.1%)	8 (0.3%)
장애인	141	3 (2.1%)	46 (32.6%)	52 (36.9%)	40 (28.4%)	29 (20.6%)	11 (7.8%)	—
저소득층	63	8 (12.7%)	37 (58.7%)	13 (20.6%)	5 (8.0%)	2 (3.2%)	3 (4.8%)	—

❖ 남·여 합격자 현황

구 분	계	남	여
총 계	2,990	1,773(59.3%)	1,217(40.7%)
일 반	2,786	1,628(58.4%)	1,158(41.6%)
장 애 인	141	115(81.6%)	26(18.4%)
저소득층	63	30(47.6%)	33(52.4%)

▶ 여성 합격 비율 : 44.5%('08) → 43.4%('09) → 40.0%('10) → 40.5%('11) → 40.7%('12)

여성 응시 비율 : 50.4%('08) → 48.8%('09) → 49.3%('10) → 49.6%('11) → 49.9%('12)

2013년 시험제도 변경 안내

➤ 2013년도 국가직 변경되는 시험과목

구 분		필수 (3과목)	선택(2과목)
직렬	직류		
행정	일반행정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법무행정		행정법총론, 민법총칙,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재경		경제학개론, 회계원리,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국제통상		국제법개론, 경제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운수		경영학개론, 철도법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노동		노동법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문화홍보		문화사, 커뮤니케이션이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교육행정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회계		경제학개론, 회계학,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세무	세무		세법개론, 회계학,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관세	관세		관세법개론, 회계원리,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통계	통계		통계학개론, 경제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교정	교정		
	교회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분류		
보호	보호		형사소송법개론, 사회복지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검찰사무	검찰사무		
	검찰수사		형법, 형사소송법,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마약수사	마약수사		형법, 형사소송법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출입국관리	출입국관리		행정법총론, 국제법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철도공안	철도공안		형사소송법개론, 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직업상담	직업상담		노동법개론, 직업상담·심리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사서	사서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감사	감사		행정법총론, 회계학,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2013년도 국가직 시험과목 개편

[목적]

9급 공무원 공채 시험 과목에 고등학교 교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추가하여 고교 출신은 시험 응시조차 어려운 현재 상황을 개선하고, 실력은 우수하나 경제적 형편 등으로 대학에 진학하기 어려운 고교 출신들에게 실질적인 공직 진출 기회를 제공, 고교 출신 인재들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

[개요]

기존 9급 공채 시험 과목에 사회, 과학, 수학과 행정학개론을 추가하여 선택해 응시할 수 있도록 함.

9급 국가직 시험과목 개편 내용

- 일반행정, 세무, 관세, 검찰사무 등 행정직군에 적용
- 기술직군의 경우 현재의 공채 시험 과목들이 특성화고 이수 교과 내용과 유사하거나 동일하다는 점, 금년부터 신설되는 9급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를 통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출신자의 공직 입문 기회가 확대된 점 등을 감안하여 시험과목 개편에서 제외
-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현상 등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능력을,
‘과학’은 행정에 필요한 과학적 기본 소양 및 이해 능력을,
‘수학’은 행정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수리적·논리적 이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함.
아울러, 행정직군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의 행정 가치와 현상에 대한 이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행정학개론’을 선택과목으로 포함.

고교과목(사회, 과학, 수학)의 구체적인 출제 범위

영역	출제 범위
사회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	물리I, 화학I, 생명과학I, 지구과학I
수학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I, 미적분과 통계 기본

▶ 남부행정고시학원(www.nambugosi.com) 홈페이지 → 시험정보센터에 들어오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조정점수제도 설명

[조정점수제도]

8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선택과목의 조정점수 =

$$50 + \frac{\text{응시자의 점수} - \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표준편차}} \times 10$$

시험령 제31조에 따른 가산점 적용 대상 응시자의 경우는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점수에 가산점을 합한 점수를 위 계산식의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점수’로 본다.

[조정점수의 필요성]

직류별로 9급 공채 시험 선택과목이 5~6개 과목으로 늘어나, 난이도가 상이한 선택과목의 성적이 합격자 결정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어 과목 간 편차 조정을 위한 조정점수 도입이 필요함.

[조정점수 도입에 따른 영향]

- 합격점이 내려간다(선택과목의 점수가 내려감).
- 선택과목의 평균(난이도)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 평균이 높은 과목일수록 불리할 경우가 많음.
- 가산점이 낮아진다(1, 3, 5%가 0.84, 2.52, 4.2%로 변환-2011년 기준).

95 이상	90이상	85이상	80이상	75이상	70이상	65이상	60이상	55이상	50이상	50미만	40미만 (과락자)
	95미만	90미만	85미만	80미만	75미만	70미만	65미만	60미만	55미만		
1	26	233	819	1,320	1,461	1,269	1,186	862	470	185	7,977

▶ 2011년 9급 국가직-일반행정직 표준편차 16.6, 평균 53.2(55로 계산)

- 조정점수 차이는 선택과목의 점수 차이보다 작다(표준편차 10 이상일 경우).
 ex) 평균-60, 표준편차-15일 경우 선택과목의 점수와 조정점수의 차이

선택과목 점수	100점	90점	80점	70점	60점
조정점수	76.7점	70점	63.3점	56.7점	50점



시험 직전 수험생 건강 상식!

D-10

➔ 감기에 안 걸리게 조심!

수험생들은 시험일을 코앞에 두고 체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져 감기에 걸리기 쉽다. 실내 온도와 습도를 적절히 조절해 청결한 실내 공기를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과 영양분을 섭취해 체력을 보강하여 감기를 예방하도록 한다. 감기 예방에 좋은 음식으로는 녹황색 채소나 감귤류가 좋으며, 진피차(말린 귤껍질)나 생강차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

D-7

➔ 생체 시계를 시험일에 맞추자!

적어도 시험 일주일 전에는 생체 시계를 시험일에 맞춰 공부하는 것이 좋다. 잠은 적어도 5시간 이상은 자고, 실내 온도는 18~23도를 유지한다. 새벽 1~6시에는 두뇌 활동 능력이 떨어지는 시간이므로 반드시 잠을 자도록 한다. 잠이 오지 않으면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고, 중추신경을 안정시키는 동굴레차나 산조인 차를 마시는 것이 좋다.

D-5

➔ 지압과 약차로 머리를 맑게!

시험을 앞두고 지나치게 신경을 쓰다 보면 머리가 아프고 눈이 침침하다고 느끼기 쉽다. 만성 두통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오는 긴장성 두통이라면 백회혈을 지압한다. 백회혈은 양쪽 귀에서 똑바로 올라간 선과 미간 중심에서 올라간 선이 교차하는 머리 꼭대기 부분이다. 머리를 맑게 해주는 약재로는 인삼, 오미자 등이 있다.

D-4

➔ 스트레칭으로 목을 부드럽게!

평소 습관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50분 공부 후에는 10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경직된 근육을 풀어 주도록 한다. 허리에 양손을 얹고 뒤로 젖히거나 팔을 발 아래로 늘어뜨린 후 허리를 굽혀 경직된 허리 부근의 근육을 풀어 준다. 뇌의 피로를 풀어줄 수 있는 경추 스트레칭도 도움이 되는데, 목을 뒤로 서서히 젖힌 상태에서 1분 정도 가만히 있으면 된다.

D-3

➔ 생리통 때는 찬 음식을 피하자!

생리 주간일 때 몸이 찬 여학생이라면 생리통이 더 심해질 수 있으므로 찬 음식은 되도록 피하고 가벼운 운동으로 혈액순환을 촉진한다. 생리통이 심하다면 아로마 마사지나 약탕 목욕으로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다. 아로마 마사지는 호호바 10cc에 제라늄 15방울, 로즈 5방울, 펠넬 15방울, 클라리 세이지 15방울을 섞어 손을 이용해 복부를 천천히 마사지해준다.

D-2

➔ 우황청심환 남용 말자!

수험생 보약은 미리 먹어 두는 게 좋다. 시험에 임박해 먹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 특히, 일반인들에게 만병통치약처럼 여겨지는 우황청심환은 신경 안정에는 좋을 수 있지만 뇌 기능을 둔감하게 할 수 있다. 또 우황청심환 주성분인 사향은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므로 오히려 시험 결과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D-1

➔ 아침에 떡·커피는 삼가자!

떡은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다. 선물 받은 찹쌀떡은 전날과 시험 당일 아침에 먹지 않도록 주의한다. 긴장을 풀기 위해 커피 등 카페인 음료에 손이 가기 쉬운데 방광을 자극해 시험 도중 화장실에 가고 싶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입맛이 없을 때는 소화가 잘되는 초콜릿을 조금 먹는 것이 도움이 된다. 초콜릿은 일시적으로 피로 회복을 돕는 기능을 한다.

〈출처: 매일경제〉

서울시 및 지방직 9급 공무원

ㄱ 시험 공고 및 원서 접수

지방직 채용 시험은 각 지방 자치단체별로 공고하며,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 자치단체는 시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 수탁 문제로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시간에 시험을 치르고 있다. 원서 접수도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 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받고 있으며, 서울시는 서울시 인재개발원(<http://hrd.seoul.go.kr>)을 통해 원서 접수가 가능하며 시험 공고도 확인할 수 있다.

ㄱ 시험일

[통합지방직] 매년 8월경 실시(2013. 8. 24. 실시)

[서울시] 매년 9월 초 실시

▶서울시는 7·9급 동일한 날짜에 실시한다.

ㄱ 시험 시간

10:00 ~ 11:40(100분)

ㄱ 특이 사항

서울시는 국가직 및 통합지방직 시험과 달리 5지선다형으로 진행되며, 필기시험 문제를 공개하지 않는다. 그리고 외국인을 많이 상대하게 되는 시 특성을 고려해서 면접시험에 영어 면접이 포함되어 있다.

ㄱ 응시 자격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응시연령]

- 9급 : 18세 이상(95. 12. 31. 이전 출생자 - 2013년 기준)
- 7급 : 20세 이상(93. 12. 31. 이전 출생자 - 2013년 기준)

[거주지 제한]

2013년 지방공무원 시험부터 거주지 제한에서 등록 기준지가 폐지되고, 거주지로만 제한하여 시험을 치르기로 하였다. 다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고려하여 해당 자치단체에 주민등록상 거주한 기간이 출생부터 시험 당해 연도 1월 1일 현재까지 합산하여 3년 이상인 경우 시험 응시가 가능하도록 주소지 합산 요건을 신설하였다.

ex 예를 들어 A지역에서 출생, 주소 변경 등으로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라면 지금 현재 주민등록지가 비록 A지역에 되어 있지 않더라도 A지역 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가 가능함.

변경된 거주지요건 예시

시험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최종 시험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 있거나, 시험 당해 연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자

서울시 경쟁률 및 필기시험 합격선

구 분		2009			2010			2011			2012		
		모집 인원	경쟁 률	합격선	모집 인원	경쟁 률	합격선	모집 인원	경쟁 률	합격선	모집 인원	경쟁 률	합격선
서울시 9급	일반 행정	210	246.1	82.00	190	251.7	84.50	547	93.0	79.00	399	132.4	81.00
	세무	9	805.7	75.00	12	544.2	83.00	28	218.0	83.00	28	211.6	81.50
	사회 복지	49	79.8	76.00	57	63.4	78.00	사회복지 1차			140	-	-
								90	44.1	75.00			
								사회복지 2차					
								288	14.81	76.00			
	전산	5	395.0	75.00	9	185.3	77.00	18	94.0	74.00	8	193.5	78.00
교육 행정	46	158.6	82.50	140	59.3	88.00	186	44.6	80.00	78	106.6	79.00	
서울시 7급	일반 행정	46	206.4	79.43	72	142.9	79.43	129	84.0	69.29	92	120.3	84.07



“자신에게 맞는 공부방법을 찾으세요.”

2011년 서울시 일반행정직 9급 최종합격자 장진혁

지난 2011년 서울시 일반행정직 9급 시험에 최종 합격한 장진혁 씨. 그는 합격에 가장 필요한 것은 실력과 더불어 노력하는 자세라고 전해 왔다.

“합격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실력이지만, 실력만으로는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 당일의 컨디션이나 시험장 분위기, 그리고 운도 함께 따라줘야 하는 법이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평소에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 백지에서 시작한 공무원 시험

진혁 씨는 대학교 재학 중 휴학을 한 뒤 군에 입대했다. 재대한 후에는 복학하지 않고 바로 공무원 시험 준비에 들어갔다. 불안한 미래에 대한 준비와 부모님의 권유가 가장 큰 이유였다. 사전 준비가 없이 시작한 공부이기에 처음에는 공부 방법은 물론 시험 직급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공부를 시작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시험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시험 공부를 위해 학원에 등록해 수업을 듣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학원 수업을 따라가기에 급급했을 뿐, 정작 그 지식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데 들인 시간은 부족했거든요. 그래서인지 초반에는 성적도 잘 오르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지난 2010년 처음 시험을 치렀을 때의 결과는 그리 좋지 못했다. 합격선과의 점수 차이가 많이 차이가 났던 것. 한 번 실패를 겪고 난 이후, 그는 공부 방법을 바꿔 학원 수업 시간을 줄이는 대신 자기만의 공부 시간을 늘려가기 시작했다.

“시험에 떨어진 뒤에야 저의 공부 방법 중 실수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선해 나가는데 주력했지요. 시행착오는 겪었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공부 방법을 찾아 나갔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성공담이나 실패담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나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시행착오는 당연히 겪게 됩니다. 하지만 시행착오를 통해 무엇을 배우는가는 스스로에게 달렸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느낀 그 절실함이 바로 공부의 원동력이 되거든요. 실제로 느껴 보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고 남이 가르쳐 준다고 해도 알 수 없습니다.”

➤ 집중력 있는 공부가 필요

공부 방법이 바뀐 뒤로는 하루 스케줄도 바뀌었다. 진혁 씨의 일일 스케줄은 오전 7시 국어 스터디 준비로 시작됐다. 오전 9시에 국어 어문 규정 스터디를 정해 모임 전 1~2시간 동안 모임에서 공부할 내용을 미리 준비했다. 독해는 문제집의 지문은 물론 신문의 주요 사설 등을 가리지 않고 읽어 지문에 익숙해지고자 했다. 국어 스터디가 끝나면 오전 10시였고, 이 시간부터 점심시간 전까지는 영어 공부 시간이었다.

“보통 시험 시작 시간이 오전 10시부터잖아요. 저는 문제풀이를 할 때나 시험을 볼 때 영어를 가장 먼저 풀었기 때문에 공부 일정을 그 시간에 맞춰요.”

더불어 그는 스터디를 국어와 영어 과목에서만 활용했다. 다양한 과목과 잦은 스터디 모임은 오히려 자기 공부 시간을 빼앗기게 되므로 지양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스터디는 공부에 도움이 되지만 자기에게 꼭 필요한 과목만 준비하세요. 저는 영어나 국어에서도 단어나 어문 규정 등 답이 딱 떨어지는 내용으로 스터디를 했는데, 견해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과목들은 서로의 의견을 나누다 보면 시간이 늘어지고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일은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좋겠죠.”

오후에는 한국사와 행정법, 행정학을 공부했다. 수험 기간 동안 공부한 이론들을 정리하면서 지나친 부분이나 중요한 부분을 복습했다.

“처음 공부를 시작했을 때에는 영어와 국어를 매일 공부하고 한국사와 행정법은 3일에 한번씩 공부했는데 그게 잘못된 공부 방법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모든 과목은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매일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그는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 초보 수험생들이 가장 흔히 하는 실수로 부족한 수면 시간과 무리하게 늘리는 공부 시간을 꼽았다.

“1주일 내내 공부하다 보면 금세 지치게 마련입니다. 서서히 페이스를 올려야지 처음부터 전력 질주를 하면 막상 시험이 가까워질 때 지치고 말거든요. 그러니 공부 시간에는 너무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실력은 시간을 들여 차곡차곡 쌓는 과정이므로 순식간에 느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실제로 그는 컨디션 조절을 위해 평일에 공부에 집중하고 주말에는 가볍게 쉬었다. 때로 공부에 집중이 되지 않는 날이면 그날은 쉬고 다음날 다시 마음을 다잡아 공부에 집중하는 등 평소에 체력 관리에도 힘썼다. 잠을 줄이기보다는 그만큼 공부 시간에 집중하는 자세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 2년 만에 이론 합격의 꿈

시험을 앞둔 12월부터 국가직 시험 전까지 각 학원에서 하는 모의고사를 빠짐없이 찾아다녔다. 처음에는 모의고사에도 긴장한 그였지만, 꾸준히 연습해 실제 시험에서는 실수가 나오지 않게 됐다.

그러나 국가직과 지방직 필기시험은 1~2점 차이로 아깝게 떨어져 서울시 합격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불안에 떨어야 했다. 다행히 서울시 필기시험에 합격한 뒤에는 오로지 면접에 붙겠다는 일념 하나로 면접시험 준비에 몰입했다.

“면접시험의 평가가 강화된다고는 해도 당당하고 강직한 태도와 시종일관 밝은 표정을 유지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다소 편안한 분위기에서 면접이 진행되어 조금이나마 여유를 가지고 면접에 임할 수 있었어요.”

때문에 최종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는 기쁨보다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더 컸다고. 지금은 다니던 대학을 자퇴하고 비교적 시간이 자유로운 사이버 대학에 편입을 해 발령 받은 뒤에도 꾸준히 수업을 들으면서 대학 졸업장을 딸 예정이다.

“처음 노량진에서 공부를 시작했을 땐 혼자 외로움을 느끼기도 했어요. 그래도 같은 스터디 모임원들과 친해지면서부터는 공감대를 가질 수 있었고, 정보 공유도 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어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부모님께 정말 감사 드립니다.”



“누구보다 빛날 나의 미래를 위해”

2011년 대전시 지방공무원 일반행정직 9급 최종합격자 박한별

공부를 하며 포기하고픈 순간도, 불안감에 눈물짓던 나날들도 있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한별 씨는 “나는 반드시 공무원이 될 수 있다.”라는 다짐을 반복하며 고비를 이겨냈다. 지금의 노력은 헛된 시간이 아니라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 있는 시간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 유럽 배낭여행으로 자신감을 키우다.

국립대 인문계열에 재학 중이던 한별 씨에게 부모님은 공무원 시험 준비를 강력히 권했다. 계속된 부모님의 설득 속에 한별 씨 역시 스스로의 가치관과 성격이 공무원과 잘 맞는다고 생각하게 됐지만 높은 경쟁률 등의 이유로 쉽게 시험에 도전하지 못하고 있었다. 망설이던 한별 씨를 달라지게 만든 것은 바로 배낭여행이었다고.

“대학교 2학년 때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때가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행을 다녀온 후 무엇이든 못할 것이 없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자신감을 가지게 됐었습니다. 그 후 2학년을 마치고 휴학을 한 뒤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 과목별 강의는 꼼꼼하게 반복 수강

한별 씨는 시험에 대한 최근 흐름 및 출제 경향 파악을 위해서 동영상 강의를 과목별로 꼼꼼하게 수강하며 시험 준비에 임했다. 다음은 그가 전해온 과목별 학습 방법은 다음과 같다.

국어 기본 이론 강의를 들은 뒤 복습을 꼼꼼히 했습니다. 수험 초반 시기여서 기본서의 세밀한 부분까지 공부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문학이나 지식국어까지 모두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봤어요. 학교에 다닐 때 가장 좋아했던 과목이 언어영역이어서 책을 보는 것만으로도 재미있었습니다.

암기할 내용이 많았던 실용 언어는 10번 정도 회독하고 연습장에 일일이 써가며 공부했습니다. 1월이 되자 문제풀이 강의를 따로 수강한 후 기본서를 다시 복습했고요. 문학에 대한 감을 잃지 않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의고사를 풀었습니다.

영어 공부를 시작한 뒤 3개월 후에 시험을 봤을 때 75점을 받아 다소 방심했어요. 하지만 다음해 영어 시험이 너무 어려워 불합격하게 만든 주범이기도 하지요. 그 후 공부 방법을 체계적으로 바꿔 문법 강의 1회독 수강, 기본서를 3번 정도 읽고 쓰며 암기했습니다. 1월에는 문제풀이 강의를 듣고 예습과 복습, 기본서를 회독하며 재미를 붙이고 자신감을 키울 수 있었답니다.

한국사 수능 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을 치렀던 터라 어느 정도의 지식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본 이론이 부족한 수험생들은 책을 가볍게 읽으며 흐름을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목의 특성상 상당히 깊이가 있고 지엽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강의를 들으며 정리하시고요. 또한, 기본기를 갖춘 후 사료와 그림을 꼼꼼하게 정리하고, 각 사건의 흐름과 인과 관계를 연결하며 공부하면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행정법 많은 수험생들이 전략 과목으로 삼는 과목입니다. 행정법은 무조건 100점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공부해야 하고, 또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하다는 점 명심하세요. 물론 행정법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기본 강의를 2~3번 들으며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념을 잡은 후 이론 공부를 늘리고, 그 후 판례 공부를 시작하세요. 그 뒤 기출문제를 풀며 자주 출제되는 부분을 확인하시고요. 저는 100점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판례와 법령 강의까지 전부 수강하며 최종 정리에 임했습니다.

행정학 양이 너무 방대해 공부에 애를 먹는 과목이기 때문에 일단 흥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실무에 큰 도움이 되고 상식을 풍부하게 만들어 주므로 꼼꼼하게 정리하시는 것이 좋아요. 처음 공부할 땐 굵은 글씨만 가볍게 읽고 개념을 정립한 후 암기를 하고 세세한 부분도 정리하며 반복하시길 바랍니다.

❗ 슬럼프 극복은 자만이 아닌 자신감

새벽 시간에 집중력이 컸던 한별 씨는 오전 6시부터 하루 공부를 시작했다. 독서실에 도착하면 전날 공부한 단어를 시험 본 뒤 그날 단어를 암기했다. 그리고 약 3시간 동안 국어, 영어 공부를 했고 강의를 2시간 정도 수강했다고 한다.

“점심 식사를 한 뒤 10여분 정도 낮잠을 자고 오전 공부를 복습했습니다. 그 뒤 한국사를 공부하다가 오후 5시 반쯤 저녁을 먹고 행정법, 행정학을 격일로 공부했어요. 새벽부터 공부를 시작했던 터라 밤 9시에 공부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며 한별 씨는 두 번의 슬럼프를 겪게 됐다. 더욱이 그 시기가 시험 3개월 전이었고 한 달여 간을 슬럼프를 겪으며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

그는 “슬럼프의 가장 큰 원인은 내가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 라는 자신감 부족과 합격에 대한 불안함이었어요.”라고 말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만을 조심하되 반드시 합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충분히 가치 있는 노력

지난해 대전시 지방직 시험에 합격해 공무원의 꿈을 이룬 한별 씨는 합격하기까지 가장 큰 도움을 준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따뜻한 아침밥을 차려주시던 엄마와 늦도록 공부하는 딸을 데리러 오신 아빠의 정성을 잊을 수 없어요. ‘합격하면 다 갚아야지’ 하면서도 마음처럼 되지 않지만 이 자리를 빌어 정말 감사 드리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한별 씨는 마지막으로 수험생들에게 시험 전 정리 기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올해 시험에 합격한다는 자신감을 잊지 말고 끊임없이 자신에게 이를 주시시켜야 한다고..

“길게는 40년의 평생직장을 보장 받고, 합격 후 성실성을 인정받는 만큼 이 정도의 노력은 충분히 가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해프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합격한 나의 미래는 어느 누구보다 빛날 것입니다. 그간의 노력을 바탕으로 2012년을 여러분의 최고의 해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주 질문하는 공무원 시험 FAQ

Q 내년도 공개 채용 시험의 선발 일정과 선발 분야, 선발 인원은?

다음 연도의 채용 계획은 일반적으로 국가직의 경우 각 부처로부터 승진, 전보, 휴직, 사직, 신규 인력 등의 인사 수요 조사를 통하여 결정됩니다. 이에 맞추어 승진, 특채, 공채 등 다양한 임용 경로를 고려하여 신규 채용 인원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채용 분야별로 정확한 공개 채용 인원 및 시험 일정은 매년 12월에 결정되며, 1월 초 시험 시행 계획 공고문을 통하여 일괄적으로 행정안전부 채용 관리과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http://www.gosi.go.kr>)를 통하여 발표합니다. 또한, 지방직의 경우에는 각 지방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하여 매년 초 공개 채용 인원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Q 어떤 직렬(직류)은 선발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던데?

각 중앙 부처의 정원 비중이 높은 직렬(직류)의 경우 거의 매년 선발이 이루어지나, 특정 부처에만 한정된 분야나 정원이 적은 분야의 경우 공개 채용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채용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용 시험은 정부 기관의 수요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이며, 시험 실시 주기를 정해 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직과 기술직군이 이에 속합니다. 어떤 해는 채용하기도 하고, 어떤 해는 채용을 하지 않는 경우인데요, 이러한 직렬은 국가직보다는 지방직에 목표를 두고 준비를 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Q 매 연도의 시험 시기는?

공무원 시험은 수험생의 예측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전년도와 유사한 시기에 시행하고는 있으나, 정확한 시점으로 확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시기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3			지방 소방직 법원직			7급 국가직	9급 국가직 국회직 8급	9급 지방직 지방 교육청	7·9급 서울시 국회직 9급	7급 지방직		

▶ 2013년도 9급 국가직 시험은 선택과목 변경으로 인해 7월, 7급 국가직 시험은 6월, 9급 지방직 시험은 8월, 7급 지방직 시험은 10월에 실시된다.

Q 경쟁률을 고려하여 응시 분야를 결정하고 싶은데 원서를 중복으로 낼 수 없는지요?

원서 접수 단계에서 동일 또는 유사 직렬의 응시 분야를 정하지 못하여 응시 원서를 복수로 제출하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복수 접수를 하게 되면 시험장 입차 등에 따른 혈세를 낭비하는 요소가 되므로 복수 접수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Q 국가직 공무원 공개 채용 시험의 응시 지역과 합격 이후의 실제 발령 지역이 같은지요? 또, 필기시험 합격선도 지역에 따라 다른지요?

국가직 공무원의 공채 및 특채 시험은 원칙적으로 전국이 하나의 단위로 시행되고 따라서 합격선도 전국이 동일하며, 이 경우 응시 지역과 발령 지역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지역을 구분하여 모집하는 경우에는 공고문에서 지역별 모집 인원을 제시하며, 합격선도 지역별로 상이합니다.(물론 같을 수도 있겠지요?)

Q 필기시험 보기가 편한 지역에서 시험을 볼 수 있나요?

국가직 공무원 채용 시험 중 지역 구분 모집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서 접수를 할 때 시험 보기에 편리한 지역을 선택하여 그 지역에서 응시를 하면 됩니다. 7급 및 9급 공채 필기시험은 전국 16개 시·도에서 시행되며, 면접시험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만 시행합니다.

Q 9급 일반행정직 중 우정사업본부의 지역별 모집 시험에 합격했을 경우에는 어디에서 근무하나요?

응시한 지역 내의 지방채신청과 우체국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Q 근무 부처(발령 기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보통의 직렬 시험은 해당 부처가 결정되어 있는 반면, 일반행정직·전산직 등은 거의 대부분의 부처에 정원이 있으며, 기술직 중 토목, 기계, 화공 직렬 등의 일부의 경우는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과학기술 관련 부처로 임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여러 부처에 정원이 있는 직렬의 경우에는 임용 희망자를 대상으로 근무 희망 부처를 조사하여, 결원이 발생한 부처들 중에서 지망(1지망, 2지망, 3지망의 형식)하도록 하여 부처를 배정합니다.

Q 공무원 채용 시험의 응시 연령은?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은 2009년부터 다음과 같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시험명	2009년 이후
9급 국가직	만 18세 이상(상한 연령 제한은 없음.)
9급 국가직 중 교정·보호직	만 20세 이상(상한 연령 제한은 없음.)
7급 국가직	만 20세 이상(상한 연령 제한은 없음.)
9급 서울시 및 지방직	만 18세 이상(상한 연령 제한은 없음.)
7급 서울시 및 지방직	만 20세 이상(상한 연령 제한은 없음.)

Q 공무원 채용 시험에 법률상의 결격 사유 이외에 특별한 제한사항이 있나요?

공무원 임용과 관련하여 결격 사유는 각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며, 각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구류, 기소유예, 벌금, 신용불량, 군 복무 시의 영창 등은 공무원 임용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각 공무원별 결격 사유의 법률 규정

- 국가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지방공무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검찰공무원 – 검찰청법 제33조 및 법 제50조
- 외무공무원 – 외무공무원법 제9조
- 소방공무원 – 소방공무원법 제29조
- 경찰공무원 – 경찰공무원법 제7조
- 교육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준용

Q 행정학, 교육학, 교정학, 사회복지학 등의 과목처럼 7급에서는 ‘○○학’이라고 되어 있고, 9급은 ‘○○학개론’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출제 범위가 다른 건가요?

행정학-행정학개론, 교육학-교육학개론, 교정학-교정학개론의 경우와 같이 채용 직급에 따라 ‘○○학’과 ‘○○학개론’은 동일한 과목으로 출제 범위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은 출제 수준의 차별화가 있음을 나타낸 것일 뿐 출제 영역 자체는 같습니다.

Q 행정법총론, 형법총론 등의 과목의 각론 부분은 출제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인가요?

행정법총론, 형법총론의 경우 원칙적으로 총론에서 출제됩니다. 그러나 총론과 관련이 되거나 이해에 필요한 사항은 각론의 내용이라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Q 병력(病歷)으로 인해 불합격될 수 있나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상의 불합격 판정 기준을 보면, 질병명만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대로 불합격 판정이 됩니다. 그러나 질병명과 더불어 ‘예후가 불량’,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 ‘회복될 가능성’,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 등 판단을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직무 수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은 담당 의사가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만으로는 불합격 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만성 활동성 간염의 경우에는 직무 수행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현재 상태로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 합격할 수 있을지가 염려된다면 의사와 상담을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과거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상 불합격 판정 사유에 해당되는 질병(예 결핵 등)을 앓았던 적이 있더라도 신체검사 당시에 치유가 되어 더 이상 불합격 판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합격될 수 있으니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Q 현재 대학(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데, 합격 후 임용 유예가 가능한가요?

공무원에 합격하더라도 학업 계속 시 2년간 임용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 2). 또한, 2년 이후 1년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만, 3년이 경과하면 공무원 채용 자격이 상실됩니다. 야간 대학(대학원)의 경우에는 임용 유예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행정직(우정사업본부) 시험의 지역구분 모집에 응시하면 다른 지역에서 근무할 수가 없나요?

지역구분 모집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해당 지역 기관에 임용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에 전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5항). 그러므로 3년은 응시 지역에서 근무하셔야 합니다.

Q 9급 시험에 합격한 후에 7급 시험에 응시해 볼 생각입니다. 시험 준비를 위해 7급 시험 일정 이후에 임용을 받고 싶은데요?

이 사항은 법령상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시험 일정상 9급 시험 후에 7급 시험까지 모두 응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 모두 준비하셔도 무방합니다.

Q 필기시험 점수가 좋아도 면접에서 불합격될 수가 있는지요?

면접시험과 필기시험은 별도의 시험입니다. 최근 면접시험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면접은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성, 전문 지식의 응용 능력, 발표력,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따라서 필기시험 성적이 우수하더라도 면접시험에서 불합격될 수 있습니다.

Q 공무원 채용 방식 중 하나인 특채는 어떤 시험인가요?

특채는 공채로 충원이 곤란한 분야에 대하여 관련 직위의 우수 전문 인력 및 유경험자를 채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요 채용 방식으로는 임용 예정 직급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 관련 분야의 근무 실적 또는 연구 경력자, 특수 직무·환경 근무 예정자, 외국어 능통자, 학위 소지자에 대하여 특별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각 부처에서 결원이 발생하면 행정안전부 채용관리과와 협의하여 부처별 또는 행정안전부 채용관리과에서 수시로 시험 공고하여 선발합니다.

Q 면접시험에 영어 면접도 포함이 되는지요?

공무원 채용 시험의 면접시험에서 영어 면접이 정례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제적 지식을 요구하는 분야에서 영어 면접을 실시하기도 하고, 일부 시험에서 영어로 질의응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에는 영어 면접이 필수입니다. 이는 시험 후에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으므로 일단은 합격을 목표로 하시고, 영어 면접에 대하여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Q 직렬이란 무엇인가요?

공무원 시험에 있어서 직군은 행정직군,公安직군, 기술직군 등으로 구별하며 가장 큰 단위입니다. 행정직군은 그 업무가 행정의 성격이 주가 되며,公安직군은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수사·검사에 치중하는 성격, 기술직군은 전문적 기술이 요구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큰 직군은 다시 직렬로 구분됩니다. 국가직 시험 등 모든 시험이 이 직렬에 따라 인원을 배정하고 선발합니다.

ex 9급 → 직급, 행정직군 → 직군, 일반행정 → 직렬
다시 말해 직렬이란 본인이 시험을 보려는 계열을 말하는 것입니다.

Q 직렬 선택 시 참고사항

어떤 직종을 선택할 것인가? 물론 적성에 맞는 직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직은 커트라인이 높고, ○○직은 경쟁률이 높고, 이런 사항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평생을 근무할 것이라면 처음부터 자기 전공이나 적성과 맞는 직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직렬 선택 시 꼭 짚고 넘어가자!

- ✓ 자신이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이 시험 과목인 직종인가?
- ✓ 채용 인원이 많고 시험 기회가 많은 직종인가?
- ✓ 자신의 실력 수준과 맞는 직종인가?
- ✓ 자신의 적성에 맞고, 희망하는 직종인가?

Q 직군별 업무안내

일반직 공무원	- 기술·연구·일반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계급 구분 : 일반직(1~9급), 연구직(연구관, 연구사), 지도직(지도관, 지도사)
외무 공무원	- 외교통상·외무행정·외교정보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계급 구분 : 외교통상직, 외무행정직, 외교정보 관리직
별정직 공무원	비서관·비상계획 담당·통계조사요원·기타 일반직 계급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등
계약직 공무원	국가와 채용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과학자·기술자 및 특수 분야의 전문가
고용직 공무원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3

7급 공무원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안내

흔히 주사보, 기사보라 불리는 7급 공무원은 중앙 부처에서는 초급 직원이지만 하급 기관에서는 비중이 커 지방 기관인 시청이나 구청 각과의 핵심이 되는 선임 직원들로, 이들이 8·9급 직원들을 통솔한다.

7급 공무원 시험 문제 출제 수준은 전문대학 졸업자 수준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워낙 경쟁률이 치열하여 결코 만만치 않다. 중견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전문 지식 및 응용 능력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며 필기시험은 선택형 4지선다형으로 출제된다.

▶ 시험일

2013년부터 6월에 시행(2013. 6. 22. 시행)

▶ 시험시간

10:00 ~ 12:20 (140분)

직렬별 7과목에 대해 각 과목당 20문항씩 총 140문항을 140분 동안 다 같이 풀게 된다.

▶ 응시자격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응시연령] 7급 공채 - 20세 이상 (92. 12. 31. 이전 출생자)

기 시험과목

[공통과목]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행정 /公安직군			
행정직 (일반행정)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교정직(교정)	헌법, 교정학, 형사소송법, 행정법
		교정직(교회)	헌법, 교정학, 교육학, 심리학
		교정직(분류)	헌법, 교정학, 심리학, 사회학
세무직	헌법, 세법, 회계학, 경제학	보호직	헌법, 형사소송법, 심리학, 형사정책
관세직	헌법, 행정법, 관세법, 무역학	마약 수사직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약물학
교육 행정직	헌법, 행정법, 교육학, 행정학	출입국 관리직	헌법, 행정법, 국제법, 형사소송법
사회 복지직	헌법, 행정법, 사회복지학, 사회학	검찰 사무직 (검찰사무)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외무 영사직	헌법, 국제정치학, 국제법, 선택(1)-독어, 불어, 중국어, 러시아어, 일어, 스페인어	전산직 (전산개발)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소프트웨어공학, 프로그래밍언어론
감사직	헌법, 행정법, 회계학, 경영학		

기 거주지 제한

지역별로 구분하는 시험은 2012. 1. 1.을 포함하여 1월 1일 전 또는 후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서울·인천·경기 지역은 관계없음).

▶ 2011년 7급 공채 시험 모집 단위별 원서 접수 결과

구 분	최종 선발 예정 인원	출원 인원	응시 인원	합격선	최종 합격 인원	여성 합격 인원
계	461	56,561	35,386	—	368	136
행정직 계	324	47,450	29,518	—	328	111
행정직(일반행정-전국:일반)	164	27,849	17,757	81	164	76
행정직(일반행정-전국:장애)	14	728	448	71.71	14	1
행정직(우정사업-전국:일반)	9	656	342	77.64	10	3
행정직(우정사업-전국:장애)	1	45	21	63.85	1	0
행정직(선관위:일반)	18	1,481	898	79.78	19	5
행정직(선관위:장애)	2	131	71	66.42	2	0
행정직(교육행정:일반)	7	3,217	1,651	76.92	7	2
행정직(교육행정:장애)	1	127	62	71.92	1	1
세무직(일반)	14	3,581	2,143	79.57	14	5
세무직(장애)	1	91	55	60	1	0
관세직(일반)	14	1,162	756	80.28	14	5
관세직(장애)	1	60	37	60.71	1	0
통계직(일반)	9	232	169	72.14	9	3
통계직(장애)	1	10	7	59.92	1	0
감사직(일반)	17	1,074	734	79.78	19	4
감사직(장애)	3	120	80	73.14	3	0
교정직(교정)	33	2,522	1,578	77.14	33	1
검찰사무직(검찰사무)	10	3,465	2,159	84.57	10	2
출입국관리직(출입국관리)	5	899	550	81	5	3
외무직 계	40	2,508	1,973	—	40	25
외무영사직(일반)	37	2,436	1,915	85.28	37	23
외무영사직(장애)	3	72	58	79.28	3	2

❖ 성별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11			2010			여성 증감(%)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467	312 (66.8)	155 (33.2)	453	298 (65.8)	155 (34.2)	▽1.0
행정직	328	217 (66.2)	111 (33.8)	350	223 (63.7)	127 (36.3)	▽2.5
외무직	40	15 (37.5)	25 (62.5)	15	7 (46.7)	8 (53.3)	△9.2

❖ 가산 특전자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11					2010				
	계	비가산	취업 지원	자격증	취업 + 자격	계	비가산	취업 지원	자격증	취업 + 자격
계	467	65 (13.9)	14 (3.0)	349 (74.7)	39 (8.4)	453	29 (6.4)	8 (1.8)	366 (80.8)	50 (11.0)
행정직	328	46 (14.0)	11 (3.4)	246 (75.0)	25 (7.6)	350	16 (4.6)	5 (1.4)	288 (82.3)	41 (11.7)
외무직	40	5 (12.5)	1 (2.5)	30 (75.0)	4 (10.0)	15	1 (6.7)	0 (0.0)	13 (86.6)	1 (6.7)

❖ 연령별 현황

(단위: 명, %)

구 분	계	20~ 23	24~ 27	28~ 31	32~ 35	36~ 40	41~ 45	46~ 50	51세 이상	평균 연령
2011	467	17 (3.6)	112 (24.0)	158 (33.8)	97 (20.8)	67 (14.4)	12 (2.6)	1 (0.2)	3 (0.6)	30.8세
2010	453	17 (3.8)	110 (24.3)	165 (36.4)	86 (19.0)	61 (13.5)	12 (2.6)	2 (0.4)	—	30.5세
증감		▽0.2	▽0.3	▽2.6	△1.8	△0.9	—	▽0.2	△0.6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으로

2011년 서울시 지방공무원 일반행정직 7급 최종합격자 여승재

지난 2009년 경기도 9급 일행직 공무원에서 2011년에는 서울시 7급 일행직 공무원이 된 여승재씨. 경기도의 한 주민센터에 근무하면서 수험 생활을 병행한 그는 “직장인 수험생으로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일반 수험생들이 부러웠다.”고 말하며 합격의 기쁨을 전해왔다.

➤ 7급 공무원의 꿈

승재 씨는 지난 2009년 국가직 7·9급 필기시험, 경기도 9급 최종시험에 합격했다. 당시에는 최종 합격한 경기도 9급 일행직에 근무하게 됐지만 그는 주민센터에 근무하면서도 7급 공무원에 대한 꿈을 접지 않았다고 한다.

“바라던 공무원 시험에 붙긴 했지만 제가 목표로 삼은 7급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 근무하기 전부터 아예 일을 하면서 7급 시험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각오했던 대로 2010년에는 일과 시험 공부를 병행해 나갔습니다.”

2009년 합격 이전 3년간 공부한 수험 생활이 바탕이 돼, 기본서 암기 등에 필요한 시간은 다소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직장생활을 하면서 수험 생활을 병행하기란 쉽지 않았다.

“퇴근 후에는 집에서 공부하고, 주말에는 노량진에 있는 자습실을 찾아가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근무하던 해에는 사건사고가 많아 야근은 물론 주말 출근도 잦았어요. 수험 공부 중이라는 걸 주변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틈틈이 공부하는 것은 불가능했지요. 그래서 시험 석 달 전에는 아예 휴직을 신청했습니다.”

공부할 시간을 빼앗기는 게 가장 큰 수험 스트레스였다는 그는 휴직 신청 뒤 3개월 동안 시험 마무리 공부에 매진했다. 승재 씨는 직장인 수험생들에게 시험 전 석 달은 시험 준비에만 매달릴 정도의 각오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기본서나 문제 풀이는 틈틈이 할 수 있지만,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총정리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적어도 한두 달 전에는 하던 일을 멈추고서라도 시험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듯 남다른 각오를 바탕으로 그는 2011년 서울시 일행직 7급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

➤ 가장 중요한 것 ‘기본서’

그는 시험 공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을 바로 기본서로 꼽았다. 특히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기본서를 소홀히 하고 바로 문제 풀이에 돌입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본서는 많은 합격생들이 강조했겠지만, 그만큼 중요합니다. 문제 풀이는 유형이 조금만 달라져도 풀기가 힘들어지지만 기본서를 통해 기초를 다져 두면 유형 변화에도 차분히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평소 문제 풀이를 많이 해보는 것은 좋지만, 기초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같은 문제에서 틀리는 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행정학 기본서는 스무 번은 더 읽은 것 같다고 말하며, 기출문제 등으로 출제 유형을 파악한 뒤 시험 보기 한 달 전에는 기본서를 통해 그동안 못 외운 내용을 외우고, 다시 한 번 암기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저는 모의고사도 많이 안 풀었는데, 대부분 모의고사를 푸는 이유가 문제풀이 시간에 익숙해지기 때문이었지만 전 시험을 워낙 자주 치러서인지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략적인 출제 패턴만 파악하고 되도록 마음 편히 공부하도록 노력했지요.”

더불어 한두 과목을 전략 과목으로 삼기보다는 전 과목을 전략 과목으로 삼는다는 생각으로 공부한 것이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다른 과목은 점수가 잘나오는데 국어와 영어는 성적 올리기가 힘들었습니다. 출제 범위를 예측하기 힘들테니 출제 유형도 매번 바뀌기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나머지 과목들을 전부 100점 맞췄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는 7급 국어 시험에 포함되는 한자는 공부 시간을 덜 투자했다. 자신 없는 과목은 성적을 올리기보다는 과락을 면할 정도로 공부한 것. 대신 아는 것은 확실하게 공부해 실수를 줄였다. 실제 시험을 볼 때도 절반의 시간 동안은 암기 과목 및 가장 자신 있게 공부한 과목을 먼저 풀고 나머지 시간에 국어와 영어를 풀었다고 한다.

“아무리 자신 있는 과목이라고 해도 시험이 어렵게 출제되면 예상 점수보다 훨씬 못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략 과목 한두 과목으로만 자신 없는 과목 점수를 만회하긴 힘들지요. 그래서 전 자신이 없는 영어와 국어를 제외하고 나머지 다섯 과목을 모두 전략 과목으로 삼아 점수를 만회했습니다.”

❗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

낙천적인 성격과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승재 씨였지만, 정작 위기는 시험을 치르는 순간에 찾아왔다. 자신 없던 영어 과목이 생각보다 높은 난도로 출제된 데 당황했던 것.

“서울시 시험을 치를 당시 마지막 과목으로 영어를 풀고 있었는데, 워낙 어렵게 출제돼 시험 도중에도 몇 번씩이나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대로 정신을 놓고 싶다는 생각까지 할 정도였어요. 만약 그때 시험을 포기하고 나왔더라면 아마 떨어졌겠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시험을 치른 덕분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필기시험 점수는 커트라인에서 불과 1점차.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시험을 치러 얻은 결과였다.

“가끔 시험 보는 도중 포기하고 엎드려 자는 수험생들이 있는데,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문제를 풀 때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때의 결과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이제는 7급 공무원의 꿈을 이룬 그는 어머니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함과 함께 시험 공부한 후배들을 올해는 합격생으로 만나고 싶다는 말을 전했다.

“어머니는 제가 휴직한 것을 모르고 계셨다가 7급에 합격한 뒤에야 아시고는 놀라셨어요. 그래도 많이 좋아하셨고 축하해 주셨지요. 또 저와 함께 시험 준비를 하던 후배들이 올해는 꼭 합격했으면 좋겠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공부, 걱정보다는 실천이 우선

2011년 국가공무원 7급 세무직 최종 합격자 이지연

“이제는 학점 관리 잘해서 졸업하는 일이 목표입니다.” 2011년 국가직 7급 세무직에 합격한 지연 씨는 남은 학업을 마치기 위한 임용 유예 중이다. 학업과 꿈,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그는 “특별한 합격 비법은 없지만 공부에 압박 받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수험 생활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해 왔다.

➤ 세무직 공무원의 꿈

지연 씨는 대학에서 행정학을 전공하면서 자연스럽게 공무원을 목표로 삼게 됐다. 그러나 행정직 과목은 그와는 잘 맞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다. 특히 행정법 과목이 가장 어렵게 느껴졌다고 한다. 대신 세무학과 과목을 복수 전공 수업으로 들으면서 세무직 공무원을 준비하게 됐다. 2010년 1월부터는 학교생활과 수험 생활을 병행하면서 본격적인 공시 공부를 시작했다.

“처음 시험을 준비할 때 그래도 기본 바탕은 될 거라 생각하고 2010년에 연습 삼아 국가직 7급과 서울시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점수가 너무 낮게 나와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 뒤 1학기 수업을 마치고 휴학을 하면서 공부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대학생인 공시생들의 휴학 시기는 1학기가 끝나고 난 뒤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시험이 상반기에 치러지므로 이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 2학기를 마치고 휴학을 할 경우 시간에 쫓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한정된 휴학 기간 안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대부분 학생들이 학기 중에 공시과목 중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어려운 과목 등을 병행해 공부하고 휴학한 뒤에는 나머지 과목들을 공부하는 방법을 쓰는 추세지요”

➤ 동강과 기본서를 바탕으로

학교 공부와 공시 공부를 동시에 하기란 쉽지 않았다. 학기 초반에 공부를 시작하면서 쉬는 시간마다 공부하는 계획표를 짰지만 실제로 잘 지켜지지는 않았다. 대신 하루 7과목을 시간을 정해 놓고 꾸준히 보는 방법을 택했다.

“대부분 수험생들은 한 과목씩 집중해서 공부하지만 한 과목을 집중해 공부하는 동안 그 전에 공부한 다른 과목의 내용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에 7과목을 동시에 공부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좋지 않은 방법이라는 말도 있지만 다행히 저에게는 잘 맞았지요.”

학기 중에는 학교 도서관을 이용했고 휴학을 하면서부터 학원 강의와 동강, 기본서 회독을 기본으로 삼았다. 학기 중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과목별로 공부 기간이 달라 전 과목의 이론 정리를 마무리하는 데 9~10개월 정도가 걸렸다.

“기본 지식이 있는 과목과 그렇지 않은 과목이 달라서 회독 수도, 공부양도 달랐습니다. 회계와 세법, 경제는 어려운 과목이라 심화 강의까지 들어가며 공부했지요. 특히 경제 과목은 제게 가장 어려운 과목이라 다른 과목에 비해 공부 시간을 좀 더 늘렸습니다.”

이론 정리를 마무리한 뒤에는 문제 풀이에 들어갔다. 문제를 여러 번 풀어 계속 맞추는 문제는 제외시키고 틀리는 문제, 헛갈리는 문제들을 반복해 풀어가며 다양한 문제를 풀었다. 오답노트나 요약집을 따로 만들지 않고 기본서와 동강을 위주로 공부했는데, 특히 기본서는 문제 풀이 동안에도 꾸준히 읽었다고 한다.

“요약집은 혹시라도 요약한 부분 이외의 문제가 출제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기도 했지만 문제를 푸는 동안 어려우면 기본서로 돌아가서 다시 이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요약집을 따로 만들지는 않았어요. 대신 기본서는 언제나 옆에 두고 꾸준히 읽었습니다.”

❗ 힘든 점? 학점과 가산점 자격증

비교적 수험 기간이 짧은 편인 지연 씨는 낙천적인 성격 덕분에 슬럼프를 겪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도 힘든 일은 있었다. 공시 공부 때문에 학업에 소홀하게 되자 학점이 떨어졌던 것.

“2010년 6월에 1학기를 마치고 성적표를 받았을 때 많이 우울했어요. 공시 공부를 하면서 정작 실력은 많이 오르지 않았거든요. 양쪽 어디에도 집중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더불어 본격적인 공시 준비에 앞서 가산점을 딸 수 있는 자격증을 미리 취득하지 않은 것이 후회가 된다고 전했다. 공부를 시작한 뒤 자격증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면서 8월부터 11월까지 컴퓨터 활용 1급 자격증을 따기 위해 시험을 준비했으나 실기 시험에서 번번히 낙방해 4번째 시험에서 떨어지고 나자 과감하게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자격증은 시험 전에 꼭 따실 것을 권합니다. 저처럼 자격증 취득에 너무 오랜 시간이 들어가면 그냥 포기하고 그 시간 동안 공부에 집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9급 면접 탈락, 7급 최종 합격

지연 씨는 국가직 7급과 9급에 동시에 합격해 면접시험을 준비해 나갔다. 면접시험은 8월 중순부터 스테디 모임을 통해 준비했다. 그러나 9급 면접시험에서 떨어진 뒤로는 주중 스테디 3번과 주말 스테디 1번으로 7급 시험에 대한 의지를 다잡았다.

“처음부터 7급 시험을 생각하고 시험을 준비했기 때문에 만일 9급에 붙는다면 7급에 다시 도전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안일한 마음 때문인지 떨어지더군요. 그래도 9급 시험에 떨어진 충격 덕분인지 7급 시험 준비에 더욱 힘을 낼 수 있던 것 같아요.”

9급 면접시험에서는 ▲법인세 관련 문제 ▲민원인이 왔을 때의 대처법 등이 출제되었고, 7급 면접시험에서는 ▲국제 조세와 탈세 관련 문제 ▲위법한 상황을 마주한 상황 대한 대처법 등이 출제됐다. 9급에서는 아쉽게 떨어졌지만, 7급 시험에서는 면접 스테디를 통해 미리 준비한 내용이 나와 비교적 수월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었다.

“정말 운이 좋은 편이었다고 생각해요.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는 너무 기뻐서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좋다는 생각만 들더군요. 지금까지 옆에서 도와주신 부모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지연 씨는 지금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은 합격하고 나면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며, 지금은 공부하는 데 집중하길 바란다고 합격 의지를 전했다.

“예상치 못한 악재는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지요. 그러니 걱정하는 것은 일단 미루고 현재에 집중해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4

법원·국회사무처 공무원

법원사무직·등기사무직 공무원

법원직 시험의 경우 경쟁률과 커트라인이 높은 인기 직렬인 만큼, 보통 1년 이상 2~3년의 수험 기간을 거쳐 합격하는 수험생들이 대부분이지만 7~8개월의 공부 기간을 거친 최단기간 합격하는 수험생도 적지 않다. 따라서 처음 법원직을 준비하려는 수험생들 중 법 전공자가 아니라면 생소한 법 과목에 빨리 익숙해지는 것이 최대 관건이다. 또한 법원사무직·등기사무직 시험은 최근 자격증 소지자가 늘어나고 있음을 감안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자격증을 취득해 놓는 것이 유리하다.

시험 공고 및 원서 접수

법원직 채용 시험 계획 공고는 대법원 시험정보센터(<http://exam.scourt.go.kr>)에서 매년 1월 초에 공고되어 같은 달에 원서 접수를 받으며, 3월경에 필기시험을 보고 있다.

시험일

2013. 3. 9. 시행

시험 방법

- 제1·2차 시험(병합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시험 시간

구 분	과목 수	문항 형식	문항 수 및 1문제당 소요 시간	과 락
법원 사무직	8과목	4지선다형	과목당 25문항/1분 소요	40점 미만 과목이 1과목이라도 나올 시 불합격 처리
등기 사무직			1교시 10:00~11:40(100분) 2교시 13:30~15:10(100분)	

㉠ 시험 과목

구 분	제2차 시험
법원 사무직렬	국어, 영어, 한국사, 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기 사무직렬	국어, 영어, 한국사, 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총론·회사편), 부동산등기법

㉠ 시험 과목 배점

8과목 동일하게 과목당 12.5%

㉠ 응시 자격

[학력·경력] 제한 없음.

[응시연령] 18세 이상(1995. 12. 31. 이전 출생자 - 2013년 기준)

㉠ 가산 특전

[취업 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 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한다(단, 전 과목 각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자격증 소지자]

구 분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한글속기(컴퓨터) 1급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한글속기(컴퓨터) 2급	한글속기(컴퓨터) 3급
가산 비율	1.0%	0.5%	0.25%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 법령 등에 의하여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 전 과목 각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가산한다.
- ▶ 취업 지원 대상자와 자격증 소지자는 상호 중복하여 가산이 되지만, 가산 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 관련 통계 자료

[필기시험 합격선 및 합격 인원]

구 분		2011년		2012년		
		일 반	장애인 구분 모집	일 반	장애인 구분 모집	저소득 구분 모집
법원사무	합격선	76.5	62	80	63.5	67.5
	합격인원(명)	313	22	380	28	4
등기사무	합격선	71	—	78.5	—	—
	합격인원(명)	53	—	39	0	0

▶ 전국 단위 모집은 2011년도부터 시행, 저소득 구분 모집은 2012년도부터 시행

[과목별 평균 점수]

구 분		헌 법	국 어	한국사	영 어	민 법	민사 소송법	형 법	형사 소송법	상 법	부동산 등기법	평 균
일 반	법원 사무	88.10	86.34	77.61	70.38	76.19	90.90	96.72	78.49	—	—	83.09
	등기 사무	87.48	80.51	76.00	65.84	76.41	89.53	—	—	94.15	80.51	81.30
장애인	법원 사무	78.57	77.14	70.85	59.71	57.42	77.71	85.28	69.57	—	—	72.03
저소득	법원 사무	75.62	69.62	73.62	65.62	64.62	84.62	89.62	72.62	—	—	74.50

[학력별 인원 현황]

구 분		고졸 이하	대학교	대학원	합 계
일 반	법원사무	2	365	13	380
	등기사무	0	36	3	39
장애인	법원사무	0	27	1	28
저소득	법원사무	—	4	—	4

[연령별 인원 현황]

구 분연 령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일 반	법원사무	1	1	7	14	31	42	39	43	40	40	34	22	18	12	5
	등기사무	0	0	0	1	3	1	2	2	0	2	2	3	5	2	0
장애인	법원사무	0	1	1	1	2	2	2	3	1	2	0	1	3	3	—
저소득	법원사무	—	—	—	—	—	—	—	—	1	2	—	—	—	—	—

구 분 \ 연 령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7	49	52	합계	평균
일 반	법원사무	5	4	8	3	1	-	4	4	1	1	-	-	-	380	28,19
	등기사무	1	3	3	1	-	1	2	2	-	-	1	-	2	39	29,76
장애인	법원사무	1	1	1	1	1	-	-	-	-	1	-	-	-	28	29,92
저소득	법원사무	-	-	-	-	-	-	-	-	-	-	-	-	1	4	34,50

[가점 대상자(취업 보호, 자격증)]

합격자 451명 중 가산점(최저 가점자 0.5% ~ 최고 가점자 11%)을 가지고 있는 합격자는 343명으로 76.1%임.

국회사무처 8·9 급 공무원

입법부인 국회에서 일을 하게 되는 국회사무처 8·9급 공무원은 대한민국 국회 채용 관리 시스템(<http://gosi.assembly.go.kr>)에서 공고문 확인 및 원서 접수가 가능하다.

8급 공채는 5~7월 사이에 공고가 나와 8월에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9급 공채는 9~10월 사이에 공고가 나와 11~12월 사이에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시험 과목

[8급]

- 제1·2차 시험(병합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9급]

- 제1·2차 시험(병합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제3차 시험 : 필기시험
-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8급 필기시험	행정	국어, 영어,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각 과목 5지선다 25문항 총150문항(170분)]
	속기직	국어, 영어, 헌법,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각 과목 5지선다 20문항 총100문항(100분)]
9급 필기시험	경위직	국어, 영어, 헌법,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각 과목 5지선다 20문항 총100문항(100분)]
	사서직	국어, 영어, 자료조직개론, 정보학개론, 헌법 [각 과목 5지선다 20문항 총100문항(100분)]
	전산직	국어, 영어, 컴퓨터구조론, 운영체제론, 프로그래밍언어론 [각 과목 5지선다 20문항 총 100문항(100분)]
	건축직	국어, 영어, 물리학개론, 건축계획, 건축구조 [각 과목 5지선다 20문항 총 100문항(100분)]
9급 실기시험	속기직	논설체 및 연설체 2과목
	경위직	100미터 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악력 등 5종목

❧ 응시 자격

[학력·경력] 제한 없음.

[응시 연령] 18세 이상(1995. 12. 31. 이전 출생자 - 2013년 기준)

[필수 자격증(속기직, 사서직, 전산직만 해당)]

직 렬	자격증
속기직	한글속기 1·2·3급
사서직	1·2급 정사서, 준사서
전산직	전자계산기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 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 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사무 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이어야 한다.

▶ 자격증은 응시 자격이므로, 자격증 미소지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경위직, 건축직은 별도의 자격증 소지를 요구하지 않음).

[신체 조건(경위직만 해당)]

구 분	내용 및 기준
체 격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팔과 다리가 완전해야 함.
시 력	두 눈의 시력(교정 시력 포함)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함.
청 력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 우를 말함]이어야 함.

▶ 「국회공무원 임용시험 규정」 일부 개정(2011. 9. 26.)으로 기존의 키와 몸무게에 따른
응시 제한은 폐지되었다.

▶ 경위직 채용 시험 응시자는 신체 조건 관련 증빙서류로 국회 채용 시스템 [자료실]에 게
시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
여야 한다.

▶ 위의 신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가산 특전

[취업 지원 대상자]

내용은 타 직렬과 동일하지만, 선발 예정 인원이 4명 이상인 속기(일반) 직렬, 사서(일반) 직렬 및 전산(일반) 직렬에만 적용된다.

[자격증 소지자]

• 공통으로 적용되는 가산점 (전산직 제외)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은 국가직 9급과 동일하게 적용

구 분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1%	0.5%
7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9급	정보관리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경위 및 건축직렬 응시자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한다.

9급 직렬	구 분	「국가기술자격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가산 비율
경위직	-	무도 3단 이상(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3%
		무도 2단(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2%
건축직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5%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3%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 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위 표에 표시된 자격증 중 수험생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인정한다.

▶ 무도 분야 자격증은 아래의 단체에서 발급한 것만 인정된다.

태권도	국기원
유 도	대한유도회
검 도	대한검도회
합기도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합기도연맹, 세계합기도협회, Korea합기도협회, 대한민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총연맹, 대한합기도연합회 등 14개 단체

지방 인재 채용 목표제

[사서(일반)직렬만 해당]

지방 인재의 국회공무원 임용 기회 확대 차원에서 지방 인재가 선발 예정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지방 인재를 합격시키는 제도(선발 예정 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 단위에 적용하며, 장애인 구분 모집은 적용 제외)

▶ 시행 시간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 지방 인재의 범위

최종 학력이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소정의 학교를 졸업(예정)·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자(응시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 지방 인재의 상세한 범위는 국회 채용 시스템 [자료실]의 '지방 인재 채용 목표제 시행 관련 안내'를 참조하기 바란다.

▶ 채용 목표 인원 및 추가 합격 인원 상한(인원 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 시험 실시 단계별 지방 인재 채용 목표 인원은 당초 합격 예정 인원의 30%이다.
- 지방 인재 합격자 수가 채용 목표 인원 미달하더라도 지방 인재의 추가 합격은 당초 합격 예정 인원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 실시 방법

- 필기시험 합격자 중 지방 인재의 비율이 30%에 미달하는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득점이 합격선에서 3점을 뺀 점수 이상인 지방 인재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 목표 인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하되, 추가 합격 인원은 추가 합격 인원 상한(10%)을 초과할 수 없다.
- 추가 합격자 결정 시 추가 합격선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동점자 모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한다.

ㄱ 증빙 서류 제출

응시 원서에 지방 인재로 표기한 자는 증빙 서류(졸업 증명서, 재학 증명서 등)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지방 인재 해당 여부 및 지방 소재 학교 확인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회 채용 시스템 [자료실]의 '지방 인재 채용 목표제 시행 관련 안내'를 참고하거나 국회사무처 인사과 고시 담당(02-788-2081)으로 문의하기 바란다.

5

경찰·소방 공무원

경찰 공무원

경찰직 공무원은 남·여 경찰 채용, 101단 등 연간 약 2회 실시하며, 공무원 정년 연장으로 인해 퇴직 인원이 감소함에 따라 2012년도 채용 인력은 전년에 비해 감소되었으나, 내년도에는 다시 예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 시험 일정

[순경 공채]

구분		인원	공고	필기 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교육 기간
남자 (2,009명)	1차	1,030명	2. 8(금)	3. 9(토)	6. 7(금)	6. 17(월) ~, 34주간
	2차	979명	8. 2(금)	8. 31(토)	12. 6(금)	12. 16(월) ~, 34주간
여자 순경 (502명)	1차	302명	2. 8(금)	3. 9(토)	6. 7(금)	6. 17(월) ~, 34주간
	2차	200명	8. 2(금)	8. 31(토)	12. 6(금)	12. 16(월) ~, 34주간
101단 요원 (240명)	1차	120명	2. 8(금)	3. 9(토)	7. 3(수)	7. 15(월) ~, 34주간
	2차	120명	8. 9(금)	8. 31(토)	12. 26(목)	'14. 1. 6(월) ~, 34주간

[간부 후보생]

구분	인원	공고	필기 시험	면접 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교육 기간
간부 후보생	50명	12. 11. 20(화)	2. 23(토)	4. 16(화)	4. 23(화)	4. 29(월) ~, 1년간

[특별채용]

구 분	인 원	계 급	공 고	필기 시험	최종 합격 자 발표	교육 기간
고시합격자	5명 (행시3, 사시2)	경정	상반기 실시			
항공요원	7명	경위6, 경장1	"			
경찰특공대	22명 • 전술 15(여3)명 • 폭발 4명 • 탐지 2명 • 폭발분석 경장 1명	순경21, 경장1	"			
사이버수사요원	20명	경장	"			
총포화약	5명	순경	"			
외사요원	25명	순경	하반기 실시			
교통공학	20명	순경	"			
경찰악대	2명	순경	"			
정보통신	10명	순경6, 경장4	상반기(순경 6), 하반기(경장 4)			
경찰행정학과	120명 (남자72, 여자48)	순경	2차 공채시 선발			
전의경 특채	200명	순경	2차 공채시 선발			

▶ 시험 일정은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

기 순경 공개 채용

[응시 자격]

구 분	응시 자격 요건
연 령	공채 : 18세 이상 ~ 40세 이하(1972. 1. 1~1995. 12. 31. 출생자) ▶ 제대 군인은 군복무 기간 1년 미만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은 3세씩 상한 응시 연령 연장
학 력	학력에 관계없이 모두 응시 가능
병 역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만기 전역자 외에 가사 사정으로 인한 전역, 직권 면직자 중 공상으로 전역한 자에게도 응시 자격 인정
운전면허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을 소지하여야 함.

[신체 조건]

구 분	남자·여자(정보통신 포함)	101단
신 장	제한 없음.	170cm
체 중	제한 없음.	60kg
시 력	좌·우 각각 0.8 이상 (교정 시력 포함)	좌·우 각각 1.0 이상 (교정 시력 불가)
혈 압	고혈압·저혈압이 아니어야 함. (확장기 : 90 ~ 60mmHg, 수축기 : 145 ~ 90mmHg)	
색 신	색신 이상이 아니어야 함. 단, 종합병원, 국·공립병원의 검사 결과 약도 색신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응시 자격 인정	
청 력	청력이 정상(40dB 이하)이어야 함.	
체 격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시험 절차]

- 공고 : 시험 시행일 90일 전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 사이트에 공고
- 원서 접수 : 공고일로부터 10일간(<http://gosi.police.go.kr>) 인터넷 원서 접수
- 시험 단계 : 필기시험 → 신체·체력검사 → 적성검사 → 면접검사

[시험 과목]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객관식 20문항)

- ▶ 정보통신 시험 과목은 필수과목(국어, 국사, 영어)과 선택과목(전자계산일반, 유선공학, 무선공학 중 1과목) 총 4과목(객관식 20문항)

※ 시험과목 개편안

2013년 9급 경찰공무원 시험과목

경찰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 영어, 한국사

2014년도부터 고교 이수과목 도입으로 시험과목 변경

영어, 한국사(필수)

경찰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 사회, 과학, 수학, 국어 중 택3

[시험 방법]

- 필기시험 : 객관식 5과목(정보통신 4과목)
- 신체검사 : 신체 조건 등 경찰관으로서 신체 적합성 검사
- 체력검사 : 5종목(100m달리기, 1000m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좌우 악력)
- 적성검사 : 경찰관으로서의 적성을 종합 검정
- 면접검사 : 적성과 자질, 직무 수행 능력·발전성 등 검정

[최종 합격자 결정 방법]

필기시험 50%, 체력검사 25%, 면접시험 20%, 자격증 가산점 5%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 결정

[2012년 3차 경쟁률 및 커트라인]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일반 (男)	모집	622	199	32	6	61	6	6	23	188	14	6	14	6	14	30	14	3
	응시	15,248	4474	1245	438	1055	607	314	470	2496	324	262	504	408	566	1291	628	166
	경쟁	24:1	22:1	38:1	73:1	17:1	101:1	52:1	20:1	13:1	23:1	43:1	36:1	68:1	40:1	43:1	44:1	56:1
일반 (女)	모집	155	36	12	4	17	4	4	4	34	6	4	6	4	6	6	6	2
	응시	5,710	1,465	604	267	401	264	182	177	881	146	113	225	154	178	324	268	61
	경쟁	36:1	40:1	50:1	66:1	23:1	66:1	45:1	44:1	25:1	24:1	28:1	37:1	38:1	29:1	54:1	44:1	30:1

구분(점수)		필기시험 합격인원	91-95	86-90	81-85	76-80	71-75	합격선
서울	남	268	1	9	63	195		76
	여	58	2	9	47			81
부산	남	62		3	20	39		77
	여	25		6	19			82
대구	남	12		2	7	3		80
	여	9		3	3	3		81
인천	남	98		5	17	76		76
	여	34		6	21	7		80
울산	남	44		2	12	30		77
	여	8		1	7			82
광주	남	14		1	6	7		79
	여	9		3	6			83
대전	남	13			7	6		77
	여	10			10			81
경기	남	272		6	53	170	43	75
	여	60		12	48			81
강원	남	26		1	1	12	12	73
	여	11		2	5	4		77
충북	남	11			4	7		76
	여	8			8			81
충남	남	31		2	11	18		77
	여	11		2	9			82
전북	남	11		2	9			82
	여	8		4	4			82
전남	남	26			13	13		79
	여	12			12			81
경북	남	51		7	23	21		79
	여	13		6	7			84
경남	남	27			8	19		77
	여	10		2	8			81
제주	남	9				5	4	75
	여	6			1	5		77

➤ 경찰행정학과 특채

[시험과목]

경찰학개론, 경찰수사, 경찰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응시 자격]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경찰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하고 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법률에 따라 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및 여성을 포함한다.)을 경사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해양경찰 관련 학과 전공자를 경사 이하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쟁률]

■ 2012년 상반기

분야	시도	접수 인원	모집 인원	경쟁률
경찰행정학과 특채(남)	경찰청(본청)	1,216	42	28,952 : 1
경찰행정학과 특채(여)	경찰청(본청)	794	18	44,111 : 1

■ 2012년 하반기

경행특채	모집	120	응시	1,942	경쟁률	16:1	※ 본청
------	----	-----	----	-------	-----	------	------

[필기시험 합격자 점수]

■ 2012년 1차 경찰행정학과 특채 필기시험 합격선 및 점수 분포표

구분(점수)	계(명)	96 이상	91-95	86-90	83-85	80-82	76-79	70-75	합격선
경찰청	남	84		11	14	27	32		78
	여	42	5	20	17				83

■ 2012년 하반기 경찰행정학과 특채

필기시험 합격인원	91-95	86-90	81-85	76-80	합격선
168명	3명	27명	67명	71명	78점

➤ 경찰간부 후보생 선발

[채용 예정 인원]

50명 【일반 40명(남 35명, 여 5명), 세무·회계 4명(남), 외사 4명(남), 전산·정보통신 2명(남)】

[응시원서 접수 기간]

2013. 1. 8(화) 09:00 ~ 1. 17(목) 18:00까지

▶ 공휴일 포함, 기간 중 24시간 접수. 단, 마감일은 18:00까지만 접수 가능

[응시원서 접수 방법]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로 함. <http://gosi.police.go.kr>

▶ 2013. 1. 25 본 사이트에서 응시표 교부 예정

[응시 자격]

- 응시 연령 : 만 21세 이상 40세 이하인 대한민국의 남자·여자
- ▶ 제대군인 응시 상한 연령은 다음과 같이 연장함.
군복무 기간 : 1년 미만(1세 연장), 1년 이상~2년 미만(2세 연장), 2년 이상(3세 연장)
- 학력 : 제한 없음.
- 병역 : 남자는 병역을 필한 자
 - ▶ 병역 면제자 또는 면접시험 전일까지 전역 예정자 포함
- 운전면허 :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각 호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신체 조건 : 순경 공채의 남녀 기준과 동일

[시험 방법]

필기시험	7과목(객관식 4과목, 주관식 2과목) 영어의 경우 자격증으로 대체(시행령 별표 6 참조)
신체검사	외형적인 신체검사(경찰병원에서 경찰관 입회하에 일괄 검사)
적성검사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적성과 자질을 종합 평가
체력검사	5개 종목(100m달리기, 1,000m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좌·우 악력)
면접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적격성 등 검정

[시행령 별표 6]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 점수(제41조 관련)

시험의 종류		기준 점수	
		총경·경정	경감·경위 (간부후보생)
토플 (TOFEL)	미국 교육평가원(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 방식에 따라 피.비.티(PBT: Paper Based Test), 씨.비.티(CBT: Computer Based Test) 및 아이.비.티(IBT: Int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	PBT 530점 이상	PBT 490점 이상
		CBT 197점 이상	CBT 165점 이상
		IBT 71점 이상	IBT 58점 이상

토익 (TOEIC)	미국 교육평가원(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700점 이상	625점 이상
텡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625점 이상	520점 이상
지텔프 (G-TELP)	미국 국제테스트연구원(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주관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Level 2의 65점 이상	Level 2의 50점 이상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어학능력검정시험 (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625점 이상	520점 이상
펠트 (PELT)	한국외국어평가원에서 시행하는 시험 (Practical English Language Test)을 말한다.	PEL Main 303점 이상	PEL Main 254점 이상
토셀 (TOSEL)	한국교육방송공사에서 주관하는 시험(Test of the Skills in the English Language)을 말한다.	Advanced 690점 이상	Advanced 550점 이상

▶ 기준 점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의 영어 과목을 불합격으로 하며, 합격한 경우에도 기시험 성적 산정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필기시험 과목]

시험별		분야별	일 반	세무·회계	외 사	전산·정보통신
1 차 시 험	객 관 식	필수	한국사, 영어, 형법, 행정학, 경찰학개론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세법개론	한국사, 형법, 형사소송법, 국제법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디지털공학
		선택	없음	없음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독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아랍어 중 1과목 (읽기, 듣기)	없음
2 차 시 험	주 관 식	필수	형사소송법	회계학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독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아랍어 중 1과목 (쓰기, 말하기)	통신이론
		선택	행정법, 경제학, 민법총칙, 형사정책 중 1과목	상법총칙, 경제학, 통계학, 재정학 중 1과목		데이터베이스론·자료구조론·소프트웨어공학 중 1과목

[시험 방법]

- 1교시 : 객관식 필수(한국사, 형법)
- 2교시 : 객관식 필수

▶ **일반 분야** : 행정학·경찰학개론, **세무·회계 분야** : 형사소송법·세법개론, **외사 분야** : 형사소송법·국제법, **전산·정보통신 분야** : 형사소송법·디지털공학

- 3교시 : 주관식 필수 1과목
- 4교시 : 주관식 선택 1과목(외사 분야 시험 없음.)

[합격자 결정 방법]

필기시험 50%, 체력검사 25%, 면접시험 20%, 자격증 가산점 5%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 결정

[합격자 처우]

- 합격자는 경찰교육원에서 1년간 간부후보생으로 교육 수료 후 경위로 임용
- 재학 중 피복 및 숙식을 제공하며 매월 소정의 수당 지급
- 외국어 숙달 및 무도 유단을 비롯하여 수상 인명 구조 자격 등 각종 자격 취득 가능

[경쟁률]

구 분	2008년 (57기)	2009년 (58기)	2010년 (59기)	2011년 (60기)	2012년 (61기)
응시인원	2,400명	2,576명	2,577명	2,066명	1,050명
경쟁률	48:1	52:1	51:1	41:1	21:1
일반직	2,231명	2,393명	2,395명	1,945명	950명
	남 1,903 여 328	남 1,987 여 406	남 2,030 여 365	남 1,645 여 300	남 805 여 145
세무회계	55	75	76	48	36
외사	61	68	64	48	52
전산 정보통신	53	40	42	36	12

[컷라인]

구 분		일반 (남:35명)	일반 (여:5명)	세무회계 (4명)	외사 (4명)	전산정보통신 (2명)
08년 (57기)	1차	432	437	377	418.8	410
	1차+2차	574	569	505.5	560.3	547.5
09년 (58기)	1차	420	420	350	395.9	355
	1차+2차	556	542	495	530.9	487.5
10년 (59기)	1차	375	387.5	312.5	353.6	317.5
	1차+2차	519	528.5	461	507	453.5
11년 (60기)	1차	347.5	362.5	300	301.2	302.5
	1차+2차	481	511.5	449	454.6	440.5
12년 (61기)	1차	297.5	307.5	277.5	384.8	267.5
	1차+2차	438	460	405.5	544.5	402.5

▶ 관련 자격증 및 가산점

분 야		관련 자격증 및 가산점		
		5점	4점	2점
학 위		박사 학위	석사 학위	
정보처리		- 정보관리기술사 -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술사	- 정보처리기사 -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사	- 정보처리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컴퓨터활용능력1·2급 - 워드프로세서1급
전자·통신		- 정보통신기술사 - 전자계산기기술사	- 무선설비·전파통신·전파전자·정보통신·전자·전자계산기기사 - 통신설비기능장	무선설비·전파통신·전파전자·정보통신·통신선로·전자·전자계산기 산업기사
국 어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750점 이상 - 한국어능력시험 770점 이상 - 국어능력인증시험 162점 이상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630점 이상 - 한국어능력시험 670점 이상 - 국어능력인증시험 147점 이상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550점 이상 - 한국어능력시험 570점 이상 - 국어능력인증시험 130점 이상
외 국 어	영어	- TOEIC 900 이상 - TEPS 850 이상 - IBT 102 이상 - PBT 608 이상 - TOSEL(advanced) 880 이상 - FLEX 790 이상 - PELT(main) 446 이상	- TOEIC 800 이상 - TEPS 720 이상 - IBT 88 이상 - PBT 570 이상 - TOSEL(advanced) 780 이상 - FLEX 714 이상 - PELT(main) 304 이상	- TOEIC 600 이상 - TEPS 500 이상 - IBT 57 이상 - PBT 489 이상 - TOSEL(advanced) 580 이상 - FLEX 480 이상 - PELT(main) 242 이상
	일어	- JLPT 1급(N1) - JPT 850 이상	- JLPT 2급(N2) - JPT 650 이상	- JLPT 3급(N3, N4) - JPT 550 이상
	중국어	HSK 9급 이상(新 HSK 6급)	HSK 8급(新 HSK 5급 -210점 이상)	HSK 7급(新 HSK 4급 -195점 이상)
노 동		공인노무사		
무 도			무도 4단 이상	무도 2·3단
부동산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교 육		청소년상담사 1급	- 정교사 2급 이상 - 청소년지도사 1급 - 청소년상담사 2급	- 청소년지도사 2·3급 - 청소년상담사 3급

재난·안전관리	건설안전·전기안전·소방·가스기술사	• 건설안전·산업안전·소방설비·가스·원자력기사 • 위험물기능장 •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 경비지도사	• 산업안전·건설안전·소방설비·가스·위험물산업기사 • 1종 대형면허 • 특수면허(트레일러, 레커) • 조종면허(기중기, 불도우저) • 응급구조사 •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면허
화 약	화약류관리기술사	• 화약류제조기사 • 화약류관리기사	• 화약류제조산업기사 • 화약류관리산업기사
교 통	• 교통기술사 • 도시계획기술사	• 교통기사 • 도시계획기사 • 교통사고분석사 • 도로교통사고감정사	교통산업기사
토 목	• 토목시공기술사 • 토목구조기술사 • 토목품질시험기술사	토목기사	토목산업기사
법 무	변호사	법무사	
세무회계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관세사	• 전산세무 1·2급 • 전산회계 1급
의 료	• 의사 • 상담심리사 1급	• 약사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 임상심리사 1급 • 상담심리사 2급	•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간호사, 의무기록사, 치과기사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 임상심리사 2급 • 작업치료사
특 허	변리사		
건 축	건축구조·건축기계설비·건축시공·건축품질시험기술사	건축, 건축설비기사	건축·건축설비·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전 기	건축전기설비·전기응용기술사	전기·전기공사기사	전기·전기기기·전기공사산업기사
식품위생	식품기술사	식품기사	식품산업기사
환 경	• 폐기물처리기술사 • 화공기술사 • 수질관리기술사 • 농화학기술사 • 대기관리기술사	• 폐기물처리기사 • 화공기사 • 수질환경기사 • 농화학기사 • 대기환경기사	• 폐기물처리산업기사 • 화공산업기사 • 수질환경산업기사 • 대기환경산업기사

- ▶ 무도 분야 자격증은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 단체가 인정하는 것 또는 법인으로서 중앙 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지부(지부당 소속 도장 10개 이상)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에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 ▶ 어학능력 자격증은 면접 시험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한다.
- ▶ 자격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으로 평가한다.
- ▶ 자격증 제출 기한은 당해 시험이 있는 적성검사 실시일까지로 한다.

▶ 체력검사 평가 기준 및 방법

구 분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남 자	100m 달리기(초)	13,0 이내	13,1~ 13,5	13,6~ 14,0	14,1~ 14,5	14,6~ 15,0	15,1~ 15,5	15,6~ 16,0	16,1~ 16,5	16,6~ 16,9	17,0 이후
	1,000m 달리기(초)	230 이내	231~ 236	237~ 242	243~ 248	249~ 254	255~ 260	261~ 266	267~ 272	273~ 279	280 이후
	윗몸일으키기 (회/1분)	58 이상	57~ 55	54~ 51	50~ 46	45~ 40	39~ 36	35~ 31	30~ 25	24~ 22	21 이하
	좌우 악력(kg)	61 이상	60~ 59	58~ 56	55~ 54	53~ 51	50~ 48	47~ 45	44~ 42	41~ 38	37 이하
	팔굽혀펴기 (회/1분)	58 이상	57~ 52	51~ 46	45~ 40	39~ 34	33~ 28	27~ 23	22~ 18	17~ 13	12 이하
여 자	100m 달리기(초)	15,5 이내	15,6~ 16,3	16,4~ 17,1	17,2~ 17,9	18,0~ 18,7	18,8~ 19,4	19,5~ 20,1	20,2~ 20,8	20,9~ 21,5	21,6 이후
	1,000m 달리기(초)	290 이내	291~ 297	298~ 304	305~ 311	312~ 318	319~ 325	326~ 332	333~ 339	340~ 347	348 이후
	윗몸일으키기 (회/1분)	55 이상	54~ 50	49~ 45	44~ 40	39~ 35	34~ 30	29~ 25	24~ 19	18~ 13	12 이하
	좌우악력(kg)	40 이상	39~ 38	37~ 36	35~ 34	33~ 31	30~ 29	28~ 27	26~ 25	24~ 22	21 이하
	팔굽혀펴기 (회/1분)	50 이상	49~ 45	44~ 40	39~ 35	34~ 30	29~ 26	25~ 21	20~ 16	15~ 11	10 이하

- ▶ 체력검사의 평가 종목 중 1종목 이상 1점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 ▶ 체력검사의 평가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 방법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 ▶ 100m 달리기의 경우에는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는 버리고, 1,000m 달리기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는 버리며, 좌우 악력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ㄱ 시험 관련 문의처

- 경찰청 고시계 : (02) 3150-2732(총괄)
- 서울청 교육계 : (02) 700-2608
- 경찰종합학교 교무계 : (032) 519-0341
- 국립경찰대학 교무계 : (031) 284-5246
- 경찰교육원 교무과 교무계 : (041) 536-316, 2317

해양경찰 공무원

해양경찰 공무원은 자격 요건 및 전형 방법, 제출 서류 등이 매우 까다로우므로 본인이 응시하고자 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공고문 전체를 반드시 꼼꼼하게 체크해 두어야 한다.

ㄱ 해경 시험 공고와 원서 접수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시험 공고는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및 행정안전부 나라일터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접수는 인터넷 (<http://kcg.uwayapply.com>)에 접속, 안내에 따라 접수하면 된다.

ㄱ 자격 요건

면접 시험일을 기준으로 경찰공무원법 제7조 각 호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경찰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다.

[임용 자격 및 결격 사유]

공채	순경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
해양경찰학과	순경	2년제 이상 대학의 해양경찰 관련학과를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재학했던) 사람으로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응시연령

계급별	공개경쟁 채용시험	특별채용시험
순경	18세 이상 40세 이하	20세 이상 40세 이하 (합정요원은 18세 이상 40세 이하,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되어 정해진 복 무를 마친 것을 요건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20세 이상 30세 이하)

▶ 응시 연령은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 시험 과목

[해양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분야	시험별	시험과목
순경	제3차	필수
	선택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해사법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중 3과목

- ▶ 1. 제3차 시험 과목인 “영어”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내외 외국어시험 전문기
관에서 실시하는 영어시험 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 2.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의 세부 과목 및 출제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가. 국어 : 한문 포함
 - 나. 수학 :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I, 미적분과 통계 기본
 - 다. 사회 :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라. 과학 : 물리I, 화학I, 생명과학I, 지구과학I

일반공채 : 객관식 4지선택, 각과목당 20문항,

간부후보 : 객관식 4지선다, 각과목당 40문항, 주관식 (논술 및 약술형)

▶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제34조 제6항 관련)

구분	내용 및 기준
체격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력	시력(교정 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색신 (色神)	정상 또는 색약(약도)이어야 한다. 다만, 항공·항해 분야는 정상 색각이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 mmHg 미만인 것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문신	시술 동기, 의미 및 크기에 비추어 볼 때, 해양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 ▶ “체격” 항목 중 “사지의 완전성” 및 “문신”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 전형 방법 및 절차

간부후보, 공채, 해양경찰학과, 해기사, 전경, 정보통신

- 필기시험 : 객관식 5과목(정보통신 4과목)
- 신체·체력
 - 신체검사 :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 조건표에 의한 자체 신체검사
 - 체력검사 :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악력, 팔굽혀펴기
- 적성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종합검정
- 면접시험 :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직무능력, 발전성, 적격성 등을 검정

㉠ 최종 합격자 결정 방법

필기 50%, 체력검사 25%, 면접 25%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 자격증 가산점 변경 예정안(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

❖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가산 자격증 및 수영 능력 배점 기준표

점수 분야	3점	2점	1점
수영 (50m)	-	50초 이내	100초 이내
운 전	-	-	1종 대형, 특수면허(트레일러)
무 도	-	무도 3단 이상(유도, 검도, 태권도, 합기도)	무도 1·2단(유도, 검도, 태권도, 합기도)
정보 통신	• 통신설비·전자기기기능장 • 무선설비·정보통신·정보처리·전파전자·전파통신·전자·전자계산기·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무선설비·정보통신·정보처리·전자·통신선로·전파전자·전파통신·정보기술·사무자동화·전자계산기·전자계산조직응용산업기사	통신선로·무선설비·전파전자·통신기기·전자기기·정보처리·방송통신·전파통신·전자 계산기·정보기기운용기능사
사무 관리	-	-	• 컴퓨터활용능력 1·2급 • 워드프로세서 1급

회 계	공인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전산세무·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전산회계 2·3급
차량 정비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화약류	화약류제조·화약류관리 기사	화약류제조·화약류관리산 업기사	-
재난 · 안전 관리	• 인명구조(수상안전법)강사 • 건설안전·산업안전·소방설 비·가스·위험물관리기사	• 인명구조요원 • 건설안전·산업안전·소방설 비·가스·위험물산업기사, 응급구조사 1급	산업안전·가스·위험물기능 사, 응급구조사 2급
국 어	한국실용글쓰기검정·한국어 능력시험·국어능력인증시 험 1급	한국실용글쓰기검정·한국어 능력시험·국어능력인증시 험 2급	한국실용글쓰기검정·한국어 능력시험·국어능력인증시 험 3급
어학 능력	• 토익 800점 이상 • 토플(IBT 92, PBT 580 이상) • 텡스 1급 이상 • JLPT 1급 • JPT 850 이상	• 토익 700점 이상 • 토플(IBT 71, PBT 527 이상) • 텡스 2급 이상 • JLPT 2급 • JPT 750 이상 • 新 HSK 6급	• 토익 600점 이상 • 토플(IBT 57, PBT 487 이상) • 텡스 3급 이상 • JLPT 3급 • JPT 650 이상 • 新 HSK 5급
잠수 · 레저	-	잠수산업기사	• 잠수기능사 • 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1·2급
해 양	해기사 1·2급 (항해, 기관, 운항사)	해기사 3급 (항해, 기관, 운항사)	해기사 4·5·6급 (항해, 기관, 운항사)
환 경	대기환경·수질환경·폐기물 처리기사	대기환경·수질환경·폐기물 처리산업기사	환경기능사

소방 공무원

화재 진압 업무를 주로 하는 소방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모집하는 지역 공무원이다. 방호 업무, 예방 업무, 지도 업무, 야간 소방, 구급 업무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직종으로, 최근 들어 격무라는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5일 근무, 격무 부서 3부제 도입 등의 대책이 추진되면서 수험생들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또 조기 퇴직, 감량 경영 등이 없는 여타 공무원처럼 안정이 보장되는 데다 시험 과목 및 출제 수준은 다른 9급 공무원 시험에 비해 쉽고 합격선이 낮아 선호 직종으로 부상하고 있다. 시험은 시도별로 1~2회에 한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7 응시 연령

[공개 채용 시험] 21세 이상 40세 이하

[특별 채용 시험] 20세 이상 40세 이하

7 신체 조건

부 분	합격 기준
체 격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흉 위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시 력	두 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 신	색각 이상 색맹 또는 적색약이 아니어야 한다.
청 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 압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상기 신체 조건표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세부 기준」에 의함.

7 자격 및 경력 제한

[공통 사항]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 면허 또는 보통 면허 소지자

분 야	자격 제한	경력 제한
소 방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 면허 또는 보통 면허	
구 급	응급 구조사 1급 자격증 소지자	해당 자격증 취득 후 당해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자
전 산	전자계산기,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	"
통 신	정보통신, 통신선로산업기사 이상 전파통신, 무선통신기능사 이상	"

➤ 자격증 가점 비율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 비율(제19조 제2항 및 제24조 관련)]

구 분	0.5할	0.3할	0.1할
자격증 (면허증)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5조 관련 별표 19의 국가만이 검정을 행할 수 있는 국가기술 자격의 종목 중 다음 직무분야의 기술사·기능장 - 기계,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전자, 통신, 조선, 항공, 건축, 정보처리, 에너지, 안전관리 2. 1급 내지 4급 향해사·기관사·운항사 3.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4. 의사, 변호사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5조 관련 별표 19의 국가만이 검정을 행할 수 있는 국가기술 자격의 종목 중 다음 직무분야의 기사 - 기계,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전자, 통신, 조선, 항공, 건축, 정보처리, 에너지, 안전관리 2. 5급 또는 6급 향해사·기관사·운항사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5조 관련 별표 19의 국가만이 검정을 행할 수 있는 국가기술 자격의 종목 중 다음 직무분야의 산업기사·기능사 - 기계,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전자, 통신, 조선, 항공, 건축, 정보처리, 에너지, 안전관리 2. 소형선박조종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3.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 제1종 대형운전면허 4.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사무관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하

▶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하여서만 가점하고, 각 분야 하나씩 2개를 소지한 경우 0.5할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2개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한다.

➤ 시험 순서

1차 필기시험 → 2차 체력시험 → 3차 신체검사 → 4차 면접시험으로 진행

▶ 시험 과목

[소방공무원 공개 경쟁 채용 시험 필기시험 과목표]

구 분	필수과목	선택과목(2과목)
종 전	국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
개정(안)	국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 수학, 사회, 과학

[소방공무원 특별 채용 시험 필기시험 과목표]

구 분	필수과목	선택과목
소방정·지방소방정 소방령·지방소방령	한국사·영어·행정법· 소방학개론I	물리학개론·화학개론· 건축공학개론· 형법·경제학 중 2과목
소방경·지방소방경 소방위·지방소방위	한국사·영어·행정법· 소방학개론I	물리학개론·화학개론· 건축공학개론·형법·경제학 중 2과목
소방장·지방소방장 소방교·지방소방교 소방사·지방소방사	국어·영어·소방학개론I	

▶ 소방사·지방소방사 필수과목 중 ‘영어’ - 구조·구급 등 소방 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종목	성별	평 가 점 수									
		1	2	3	4	5	6	7	8	9	10
악력 (kg)	남	45.3~ 48.0	48.1~ 50.0	50.1~ 51.5	51.6~ 52.8	52.9~ 54.1	54.2~ 55.4	55.5~ 56.7	56.8~ 58.0	58.1~ 59.9	60.0 이상
	여	27.6~ 28.9	29.0~ 30.2	30.3~ 31.1	31.2~ 31.9	32.0~ 32.9	33.0~ 33.7	33.8~ 34.6	34.7~ 35.7	35.8~ 36.9	37.0 이상
배근력 (kg)	남	147~ 153	154~ 158	159~ 165	166~ 169	170~ 174	174~ 178	179~ 186	186~ 194	195~ 205	206 이상
	여	85~91	92~ 95	96~98	99~ 101	102~ 104	105~ 107	108~ 110	111~ 114	115~ 120	121 이상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cm)	남	16.1~ 17.3	17.4~ 18.3	18.4~ 19.8	19.9~ 20.6	20.7~ 21.6	21.7~ 22.4	22.5~ 23.2	23.3~ 24.2	24.3~ 25.7	25.8 이상
	여	19.5~ 20.6	20.7~ 21.6	21.7~ 22.6	22.7~ 23.4	23.5~ 24.8	24.9~ 25.4	25.5~ 26.1	26.2~ 26.7	26.8~ 27.9	28.0 이상
제자리 멀리 뛰기 (cm)	남	223~ 231	232~ 236	237~ 239	240~ 242	243~ 245	246~ 249	250~ 254	255~ 257	258~ 262	263 이상
	여	160~ 164	165~ 168	169~ 172	173~ 176	177~ 180	181~ 184	185~ 188	189~ 193	194~ 198	199 이상
윗몸 일으 키기 (회/분)	남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이상
	여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이상
왕복 오래 달리기 (회)	남	57~59	60~61	62~63	64~67	68~71	72~74	75	76	77	78 이상
	여	28	29~30	31	32~33	34~36	37~39	40	41	42	43 이상

- ▶ 1. 영 제46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총점 60점 만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한다.
2. 각 종목별 측정 방법 등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소방간부 후보생

소방간부 후보생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1년간 소정의 교육을 수료한 후 소방위로 임용받게 된다. 시험 횟수는 격년제로 시행되고 있으며, 합격 인원 수는 소방공무원 정원 비율에 의거하여 간부 수요 조사 파악 후 조정되고 있다(2003년 40명, 2005년 40명, 2007년 40명 선발). 여자의 경우 10% 비율로 선발하고 있다.

[응시 연령]

만 21세 이상 40세 이하(72. 1. 1 ~ 92. 12. 31일 사이의 출생자)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녀로서,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제대 군인 응시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 군 복무 기간 1년 미만자 : 1세 연장
- 군 복무 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자 : 2세 연장
- 군 복무 기간 2년 이상자 : 3세 연장

[응시 자격]

신체 조건, 체력 기준, 자격증 가점 비율은 소방직 공무원과 동일

[시험 과목]

구 분	필수과목(4)	선택과목(2)
제1차 필기시험	영어·한국사· 헌법·소방학개론I	행정법·행정학·민법총칙·형법·형사소송법·경제학·자연과학개론·화학개론·물리학개론·기계학개론·전기공학개론·정보통신공학개론·건축공학개론·전자공학개론 중 2과목

▶ '인문 계열'과 '자연 계열'로 구분하여 모집하는 규정 삭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 능력 검정 시험의 종류 및 기준 점수표]

시험의 종류	기준 점수
토플(TOEFL)	PBT 530점 이상 / CBT 197점 이상 / IBT 71점 이상
토익(TOEIC)	700점 이상
텡스(TEPS)	625점 이상
지텔프(G-TELP)	Level 2의 65점 이상
플렉스(FLEX)	625점 이상

▶ 2011. 1. 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 점수 이상인 시험 성적에 한하여 인정

▶ 2011. 1. 1. 이후 외국에서 응시하여 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TOEFL 성적 및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성적과 미국에서 응시한 G-TELP 성적은 인정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공무원

2011년 경기도 소방공무원 일반소방 | 최종 합격자 노우람

“이제는 학점 관리 잘해서 졸업하는 일이 목표입니다.” 2011년 국가직 7급 세무직에 합격한 우람 씨는 남은 학업을 마치기 위한 임용 유예 중이다. 학업과 꿈,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그는 특별한 합격 비법은 없지만 ‘공부에 압박받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수험 생활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해 왔다.

❗ 어릴 때부터 키워 온 소방공무원의 꿈

우람 씨에게 소방서는 어릴 적부터 익숙한 장소였다. 외가댁에 소방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친척들이 많아 소방서에 자주 갔었고 현직 공무원들의 업무를 지켜보며 보람 있는 직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그리고 활동적인 업무를 좋아하는 자신의 적성에도 알맞다고 생각해 시험 도전을 결심했다.

“지난 2010년 7월부터 공부를 시작했어요. 바로 학원에 등록해 수업을 들었습니다. 수험 생활 동안 고시원에서 지내고, 집에서 학원까지 1시간 반을 걸려 통학도 했고요. 학원 수업은 한 번도 빼먹지 않았고, 예습은 못해도 반드시 복습을 했습니다.”

대학교에서 중어중문학과를 전공한 우람 씨는 언어 쪽 공부에 다소 수월한 편이었다. 국어 문제와 한자 문제는 무리 없이 풀어낼 수 있었으나 영어는 그동안 공부했던 토익 시험과는 다른 대비가 필요했다고. 우람 씨는 이를 위해 우선 학원 수업에 집중하며 교재에 나온 단어를 암기했다. 한국사와 소방학은 기본 이론 강의를 듣고 문제 풀이에 집중했다. 시험 규정이 바뀌며 새롭게 공부해야 했던 행정법은 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갑작스럽게 시험 공고가 발표돼 공부할 시간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 우람 씨는 동영상 강의를 통해 이론을 공부한 뒤 기출문제집을 10회독 하며 시험을 준비했다.

“일주일 단위로 공부 계획을 세웠습니다. 공부할 과목과 분량도 정해 뒀고요. 일요일은 비워 놓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했습니다. 전 과목 오답노트를 만들었는데요, 시간이 많이 소요됐으나 시험 직전에는 큰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오답노트를 만들 때는 틀린 문제와 정답만 표시해 두지 않고, 보기 ①~④번에 해당하는 내용을 모두 정리했어요. 실제 시험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시험 일주일 전에는 이렇게 정리한 오답노트만 반복하며 봤습니다.”

❗ 체력 시험, 꾸준한 준비가 필수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났던 우람 씨는 오후까지 수업을 듣고 독서실에 가서 밤 10~11시까지 공부를 했다. 월, 수, 금요일에는 시간을 내 운동을 했는데 우람 씨는 체력 시험 대비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했다.

“필기와 체력 시험을 한꺼번에 준비하는 것은 매우 힘들어요. 게다가 체력 시험은 단기간에 실력이 쌓이지 않고요. 스트레스 해소 겸 체력 보충을 위해서도 틈틈이 시간을 내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체력 평가 6가지 항목 중 자신이 부족한 항목이 분명 있을 텐데 이 점을 집중해서 보완해야 합니다. 최근 시험 규정이 바뀌며 체력 평가가 강화됐으므로 방심하지 말고 준비하세요.”

❗ 슬럼프를 보완해 주는 스터디

우람 씨는 공부를 하며 3~4명의 사람들과 작은 모임을 결성했다. 함께 식사도 하고 이야기를 하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스터디'를 조직한 것. 그는 이 모임이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수업을 들으면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눈에 띄어요. 맨 앞자리에 앉고 수업에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요. 그런 학생들끼리 함께 모여 공부도 하고, 책과 강의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무엇보다 혼자 고립된다는 느낌이 없었고 이야기를 나누며 슬럼프도 서로 방지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됐습니다."

❗ 말로 표현하기 힘든 최종 합격의 순간

면접시험에 대비하기 위해 우람 씨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스터디를 조직했다. 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 면접 특강을 듣고 여러 자료를 구해 조원들과 정리하며 준비를 했다. 신문 사설도 빼놓지 않고 읽었고, 면접관의 사고와 시각에 알맞은 답변을 하기 위해 예시 답변도 꼼꼼하게 정리했다고. 다음은 우람 씨가 면접시험장에서 받은 질문 항목이다.

전공 ▲백드레프트에 대해 말해 보라. ▲플레이오버에 대해 말해 보라. ▲가스 폭발의 특징은 무엇인가?

인성 ▲봉사 활동 중 기억에 남는 것은? ▲어린이들에게 소방 교육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은? ▲1년, 10년, 20년 뒤 자신의 모습은? ▲현재 소방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덕목은?

면접시험은 답변 시간을 스톱워치로 켜며 개별 면접 5분, 집단 면접 5분씩 시간이 주어졌다. 우람 씨는 2개 면접 모두 3~4분 내로 답변을 마쳤다.

"시험장에서 느끼는 5분은 굉장히 길어요. 다행히 질문이 많이 어렵지 않고 평이한 수준이어서 3~4분 내로 답변을 했습니다. 체력 시험을 잘 본 편이어서 최종 합격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컸어요. 합격자 명단에서 제 이름을 발견한 순간은 실제로 겪어보지 않은 이상 말로 설명하기 힘들습니다.(^_^)"

❗ 노력하는 소방공무원

소방공무원의 고충을 잘 알면서도 아들이 가고자 하는 길을 아낌없이 지원해 준 부모님께 너무나 감사하다는 우람 씨. 수험 생활을 하며 큰 힘이 되어 준 가족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해 왔다.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 아침밥을 차려 주신 어머니, 학원까지 저를 태워다 주시고 다시 집으로 같이 오려고 밤 11시까지 회사에 계셨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늘 응원을 아끼지 않으신 할머니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수험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언을 전했다.

"만약 자신이 외로움을 견디기 어려워하는 성격이라면 작은 모임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이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지요. 단,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슬럼프가 아예 없는 수험생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1~2일 시간을 내 운동을 하거나 다른 일들을 하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슬럼프 극복 방법은 각자 다르겠지만 공부를 멀리 하지 말고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오는 6월 4일 소방학교 입교를 앞둔 우람 씨는 '노력하는 소방공무원'을 새로운 목표로 삼았다. 첫발을 내딛는 순간이므로 배우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

"수험 생활처럼 꾸준히 노력하는 공무원이 되고 싶어요. 먼 곳을 바라보기보다 가까운 미래를 생각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이 되겠습니다."

6

면접

공무원 임용의 최종관문 통과 전략

면접시험의 비중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이다. 필기시험 성적이나 조직 적응력보다 창의력이 중시되는 상황에서 면접관의 눈과 귀로 인재를 걸러내는 면접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행정안전부는 2005년부터 면접시험 탈락 비율을 20~30%까지 늘렸다. 또 면접 위원에게 제공되는 수험생 자료에서 학력이나 필기 성적 점수를 제외하는 '무자료 면접방식'을 도입하면서 면접의 비중은 더욱 커졌다. 면접 위원 수도 점차 늘어가는 추세이다.

▶ 공무원 면접 시간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7급 시험	35분	35분	35분	35분
9급 시험	25분	25분	25분	25분

7급의 경우 개인 발표(15분)와 개별 면접(20분)으로 진행된다. 9급은 개별 면접만 진행된다. 2008년과 마찬가지로 행정고시와 7·9급 공채의 면접 시간이 확대되고 실무 과제 평가 방식을 추가해 면접 시험의 비중을 한 단계 높였다.

▶ 면접시험 개요

인재를 선발하는 채용 과정에 있어서 수험생과 면접 위원이 직접 대면하여 질문과 대답이라는 과정을 통해 수험생의 잠재적인 능력, 책임감, 인내력, 사고력, 창의력, 업무 추진력, 대인 관계, 성격 등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필기시험에서는 수험자의 학력과 지식의 양 또는 질은 저울질할 수 있어도 그 지식 그대로 직무에 활용된다고 할 수 없고, 수험생의 사람 됨됨이를 모두 알 수 없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기준을 통해 인물을 파악하는 구술시험이 면접시험이다.

면접시험의 순서

1 대기실

면접시험은 이미 대기실에서부터 시작된다. 조용한 태도로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서 마음을 가다듬는다. 차례가 가까워지면 다시 한 번 자신의 복장을 살핀다.

2 호 출

담당 직원이 이름을 부르면 똑똑히 대답한다. 면접실 문을 두세 번 노크한 뒤 응답이 있으면 문을 열고 들어간다.

3 입 실

면접실에 들어서면 조용히 문을 닫은 다음 정면을 향하여 가볍게 허리를 굽혀 절을 한다. 그리고 면접 위원에게 정식으로 인사를 하고, “××번 ○○○입니다.” 하고 자기의 수험 번호와 성명을 말한 후 의자에 앉아 등받이에 등을 약간 기대는 것이 좋다. 면접 위원의 눈을 너무 빨리 쳐다보거나, 시선을 이리저리 돌리지 말고 면접 위원의 가슴 부분을 본다. 다리는 꼬거나 너무 벌리지 말고 가지런히 한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자연스럽게 올려놓고 질문을 기다린다.

4 질의 응답

질문이 시작되면 침착하게 질문자를 바라보며 주의 깊게 청취하고, 답변할 때는 잠깐 생각을 정리한 뒤 또렷하게 대답한다. 너무 빨리 말하거나 말끝을 흐려 얼버무리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특히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주의한다.

⇒ 솔직하게, 그리고 자신 있는 태도로 대답한다.

대답을 잘 못했다 하더라도 머리를 굽적거리거나 혀를 내밀지 않도록 하고, 질문 내용을 잘모를 때에는 얼버무리지 말고 다시 묻도록 한다.

⇒ 질문에 대답할 때 “에~, 저~” 등의 불필요한 말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한다.

질문에 대해 자신 있다고 너무 큰소리로, 너무 빨리, 너무 많이 말하지 말아야 하고, 또 얼른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오래 끌거나 잠자코 있어서는 안 된다. “잠깐 생각할 여유를 주십시오.”라고 말한 다음 생각을 정리해 분명한 어조로 말한다.

5 퇴 장

들어왔을 때와 반대의 동작으로 조용히 면접실을 나간다. 이때 주의할 점은 면접시험이 끝났다는 해방감에 무의식적으로 문을 거칠게 닫는 일이 없도록 한다. 면접시험이 끝나고 의자에서 일어나면 앉았던 의자를 정돈한 후 15° 정도의 가벼운 인사를 한다. 퇴실할 때도 힘없는 표정을 짓지 않도록 주의한다. 면접 위원은 수험생이 들어오면서부터 나가기까지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있음을 기억해 두어야 한다.

➤ 질의·응답에 임하는 자세

적과 싸워 이기려면 먼저 적을 알아야 하는 것과 같이 면접 위원이 자기에게 어떠한 질문을 할 것인지를 미리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긴장을 풀면서 면접 위원을 똑바로 응시해야 한다. 눈을 아래로 내려 깐다든지 하면 정서 불안, 자신감의 결여, 또는 소극적(내면적)인 인상을 주게 된다. 필요 이상의 답변은 금물이다. 아는 대로 대답하여 패기를 보여 주면 된다.

대개 면접 위원은 자기 마음에 드는 유형이 있게 마련이지만, 개별 면접시험이 아니고서는 편견이 점수에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수험생은 또한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보여서는 안 되며, 신경질, 엉터리 배짱, 고집, 무관심, 난폭 등의 표현 또는 태도를 보여서도 안 된다. 다만 차분함과 명석한 판단, 건전한 사고력을 바탕으로 한 논리 전개, 쾌활한 인상을 심어 주기를 잊지 말아야 한다.

1 발랄한 태도

시종 침착하면서도 밝은 표정으로 예의를 지킨다. 때로는 부담스러운 질문을 받더라도 우물거리지 말고 패기만만한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좋다.

2 음성은 또렷하게

조용하면서도 분명한 대답을 하자.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얼버무리지 말고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못 알아들은 질문이 있으면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라고 다시 반문해도 된다.

3 바른말과 존대어

정성들여 겸손한 태도로 응대했다 해도 적절한 상황에서 그에 상응하는 존댓말을 잘못 쓴다면 응답의 내용까지도 의심받게 된다. 예를 들어 “지금 질문자가 말한 것인데”라고 응답하는 수가 종종 있는데, 그럴 경우 “지금 말씀하신 것이지만”으로 정정해야 한다. 또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바른말 쓰기다. 아무렇게나 “전에 말했지만”하고 말하지 말고 “전에 말씀드렸지만”하는 표현처럼 바르게 써야 한다. 혹은 친구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쓰였던 약어나 은어들이 대화 중에 나올 수가 있으니 이런 사항들도 주의하는 것이 좋다.

4 자신 있는 대답

질문에 대한 대답은 논리적이어야 한다. 우물우물 면접 위원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은 삼가야 한다. 그리고 일단 질문에 대한 답은 내용이 조금 빈약하더라도 당당하게 이야기한다.

5 과장, 거짓 대답은 피한다.

질문사항에 대한 거짓이나 과장은 금물이다. 그리고 필요 없는 사족을 달면서 너절하게 수다를 떠는 것도 좋지 않다. 간단명료하면서 정확히 이야기하면 된다. 모르는 것은 큰 죄가 되지 않지만, 모르면서도 아는 체하는 것은 낙방을 자초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6 지나치게 평론가적인 언동은 삼가

예컨대 시사 문제나 읽은 책에 대한 감상을 물었을 때, 선불리 아는 체한다던가 TV에 나오는 평론가의 흉내를 내면서 하는 서투른 언동은 오히려 자신의 인격만 깎아내리는 행동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면접 위원은 단순히 응시자의 사회적 관심도를 시험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질문받은 문제라든가 자기가 읽은 책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의견을 가식 없이 말해야 한다. 그러는 것이 설사 표현 방법이 세련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솔직하게 비쳐질 수 있다.

7 다변·궤변은 금물

자기는 어떤 식으로든지 합격하겠다는 욕망이 지나쳐 필요 이상의 말을 한다든가 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 특히 집단 면접 혹은 집단 토론을 할 경우 중요한 것은 질문에 대한 응답에 있어서 논리에 맞지 않는 궤변보다는 자기 나름대로 정리해서 결론부터 분명하고 간결하게 대답하는 태도이다.

8 버릇은 제2의 천성

남과 대화할 때 은연중에 자신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버릇이 나타날 수 있다. 질문을 받으면서 손을 입에 댄다던가 응답하면서 손을 흔든다든가, 자신도 모르게 이와 같은 일상의 버릇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의식적으로라도 양손을 무릎 위에 단정히 놓고 자세를 바르게 하며, 평소 자기에게 무슨 버릇이 있나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에게 조언을 얻어 고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질문에 답할 때는 질문한 면접 위원의 얼굴을 향하고 상대방 눈에 시선을 맞춘다. 상대방이 말하고 있을 때는 적당한 데서 맞장구를 치는 것도 좋다. 그럼으로써 진지하게 듣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대답하기 곤란하거나 잘못된 질문을 받게 되더라도 상황에 맞춰 재치 있게 받아넘길 수 있어야 한다. 노골적으로 싫은 표정을 짓거나 불쾌한 표정을 지어서는 안 된다. 면접시험 도중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못했거나 뜻밖의 실수를 했다고 해도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인다면 충분히 만회할 수도 있다.

➤ 면접 당일의 준비

충분한 수면으로 안정감을 유지하고 첫 출발의 신선한 마음가짐을 갖는다. 조건 신문은 꼭 챙겨 읽는 것이 좋은데, 그날의 뉴스가 질문 대상에 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면, 정치면, 문화면 등에 유의해야 한다. 면접 위원 중에서 시사적인 기사를 수험생에게 질문함으로써 그날그날 돌변하는 정세를 알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사람도 있다.

1 복장 점검

- 구두는 잘 닦여 있는가?
- 옷은 깨끗이 다려져 있으며 스커트 길이는 적당한가?
- 손톱은 길지 않고 깨끗한가?
- 머리는 흐트러짐 없이 단정한가?
- ▶ 여성의 경우 특별히 화려한 복장과 요란한 화장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안색이 좋지 않은 사람은 생기 있어 보이도록 피부 화장에 신경 써야 한다.

2 면접시험 금기 사항

- 지각은 절대 금물이다. 10분 내지 15분 일찍 도착하여 면접 장소를 둘러보고 환경에 익숙해지는 것이 필요하다.
- 앉으라고 할 때까지 앉지 말라. 의자로 재빠르게 다가와 앉으면 무례한 사람처럼 보이기 쉽다.
- 옷을 자꾸 고쳐 입지 말라. 침착하지 못하고 자신 없는 태도처럼 보인다.
- 시선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거나 긴장하여 발장난이나 손장난을 하지 말라.
- 응답 시 너무 말을 꾸미지 말라.
-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바쁘게 대답하지 말라.
- 혹시 잘못 대답하였다고 해서 혀를 내밀거나 머리를 긁지 말라.
- 머리카락에 손대지 말라. 정서불안으로 보이기 쉽다.
- 면접실에 타인이 들어올 때 절대로 일어서지 말라.
- 농담을 하지 말라. 쾌활한 것은 좋지만 지나치게 경망스런 태도는 면접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게 보인다.
- 대화를 질질 끌지 말라.
- 질문에 대해 대답할 말이 생각나지 않는다고 천장을 쳐다보거나 고개를 푹 숙이고 바닥을 내려다보지 말라.
- 자신 있다고 너무 큰 소리로, 너무 빨리, 너무 많이 말하지 말라.
- 면접 위원이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말하지 말라.
- 과장이나 허세로 면접 위원을 압도하려 하지 말라.
-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급여에 대해 언급하지 말라.
- 은연중에 연고를 과시하지 말라.

면접시험 잘 보는 방법

1 대기실에서

- 30분 전쯤 면접 장소에 도착하여 대기실에서 침착하고 조용하게 면접을 기다린다. 입실할 때 면접실의 문이 닫혔을 경우 가볍게 노크한다.
- 자신감 있는 자세로 들어서면서 면접관을 향해 미소 띤 얼굴로 목례한다. 자기 의자 앞으로 가서 수험 번호와 성명을 말하고 다시 정중히 인사한 후 자리에 앉는다.

2 질의응답 때

첫인상이 당락의 50%를 결정한다.

대개의 면접관들이 ‘응시자의 첫인상을 중요시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무엇보다 밝은 인상, 청결한 자세가 중요하다. 손톱 청소, 면도, 이발 상태와 의상, 구두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데 이는 전날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하며, 표정 연습도 해 두는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 빙상 스타 ‘카타리나 비트’는 완벽하게 웃는 표정을 만들어 내기 위해 거울 앞에서 3천 번을 연습했다고 한다. 운동선수라 하더라도 인정받기 위해서는 운동 기술 외적인 요소도 중요하다는 걸 간파한 ‘비트’의 지혜를 빌리자.

귀를 열어 잘 듣는다.

면접관이 질문을 하는데 긴장된다고 해서 손을 만지작거리거나 시선을 이리저리 옮기면 크게 감점된다. 면접관이 말할 때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진지하게 듣고 있다는 표정을 짓는다. 면접관이 나이 지긋하신 분일 경우 간혹 질문보다 설명이나 훈계조의 말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라도 지루한 표정을 짓지 말고 끝까지 듣는 진지함을 보여야 한다. 왜냐하면 긴 설명 중 갑자기 ‘자넨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적시타가 터지기 때문이다.

저절로 경어를 사용한다.

올바른 경어 사용법은 쉽지 않다. 특히 경어를 사용할 자리에 오면 신세대들은 “어머님 머리님에 파리님이 계세요.”라는 식의 경어법을 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면접관에게 경어 사용법도 모른다는 인상을 주면 곤란하다. 어른들은 ‘버릇없는 아이’를 제일 싫어하므로, 미리 시간, 장소, 사람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어를 익히도록 한다.

자신의 평소 스타일로 대화한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문 발표하듯이 문어체 표현을 사용한다거나 군기든 이등병처럼 말하면 대화의 경험이 없어 보인다. 그렇다고 특정인의 ‘대화법’을 흉내 내는 것도 꼴불견이다. 자신이 평소 남들과 이야기할 때의 대화법을 조리 있게 사용해야 어색하지 않다. 덧붙여 말꼬리를 흐리는 버릇을 가진 사람은 조심한다.

알아듣기 쉽게 말한다.

‘알아듣기 쉽게’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말의 하드웨어적 측면에서 보면 너무 빠르게, 너무 많이 말하지 말라는 얘기다. 말의 핵심을 놓치거나 가벼워 보이면 좋을 게 하나도 없다. 소프트웨어적인 면으로는 어려운 용어나 전문 용어, 대학가의 은어, 사투리 등을 절제 없이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다. 면접관이 소외감을 느낀다.

3 위기 상황 때

위로로 탈출한다.

만약 당신이 나이 서른쯤 된 나이 많은 지원자라고 하자. 면접관이 필기 합격자의 평균 연령이 몇 살인지 아느냐고 물었다. 이 말은 ‘당신의 나이가 너무 많지 않느냐’는 우회적 물음이다. 이때 “나이와 업무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하면 분위기만 굳어진다. 이럴 땐 레이건처럼 유머를 동원하는 기지가 필요하다. “저는 동료들이 나이가 어려서 경험이 부족하고 아직 미숙하다 하더라도 결코 알아보지 않고 제 성숙함으로 도와주며 일할 자신이 있습니다.”

솔직함으로 벗어선다.

모르는 질문을 받았을 때 아는 체하려 변명을 늘어놓으면 거짓말에 능숙하다는 인상을 받으며 답변이 생각나지 않는다고 고개를 숙이거나 먼 산을 보면 패기가 없어 보인다. 차라리 솔직하게 모르겠다고 말하고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겸양으로 대신한다.

4 퇴장할 때

퇴장할 때 예의바른 자세와 태도를 끝까지 유지한다. 자리에서 일어나 “면접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하고 정중히 인사한 후 문 쪽으로 간다. 문 앞에서 가볍게 목례를 하고 나간다. 어떤 사람은 지나친 겸손으로 뒷걸음질쳐서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다 넘어지면 큰일난다.

7 면접 점검 사항

1 면접의 7가지 포인트

면접을 충분히 대비하고도 알고 있는 바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거나 호감을 주지 못하면 쓸모가 없다. 면접관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선 다음의 7가지 사항을 명심해야 한다.

- ① 우선 첫 대면에서 깨끗하고 참신한 인상을 심어 줘야 한다.
- ② 자기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 ③ ‘예’, ‘아닙니다’라고 자기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공감을 사는 방법이다.
- ④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어휘나 유행어를 쓰면 경박해 보일 수 있으니 예절 바른 경어로 말해야 한다.
- ⑤ 대답하기 곤란하거나 낯익은 질문을 받더라도 재치 있게 받아넘길 수 있어야 한다.
- ⑥ 집단 토론의 경우 대개 옳고 그름이 뚜렷이 가려지는 주제가 제시되지 않으므로 어느 쪽이든 자신의 의견을 조리 있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
- ⑦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면접이 끝난 뒤 면접관에게 인사하는 일이다. 면접을 잘 치르고도 ‘불일 끝났다.’는 식으로 나갔다면 따놓은 점수도 모두 잃게 되니 주의해야 한다.

2 지양해야 할 복장

- 정장 개념의 신사복에 흰 양말을 신는 것
- 포켓에 볼펜·만년필·안경·명함을 꽂아 부풀어 오른 것
- 구두 뒷굽이 너무 많아 경사진 것
- 지나치게 몸에 꼭 맞거나 기에 풀을 먹인 것
- 여성의 경우 요란한 색깔의 스타킹·그물망 스타킹을 신는 것
- 소매부리에 드레스셔츠 끝이 나오지 않거나 너무 많이 나온 것
(드레스셔츠 끝이 1~1.5cm 나와야 함.)
- 바짓부리가 지나치게 접히는 것
- 새끼손가락에 반지를 낀 것
- 넥타이를 지나치게 길게 혹은 짧게 맨 것
- 바지에 허리띠를 두르고도 땀뺑을 하는 것
- 신사복의 기본 색상인 청색이나 회색 정장 차림새에 갈색 구두를 신는 것

- 한 벌 갓춤이 아닌 위·아래 다른 색깔의 정장 양복 차림을 하는 것
- 지나치게 검은 색조로 차려입거나 화려한 색조로 차려입은 것
- 조끼 밑으로 셔츠나 벨트가 보이는 것
- 길이가 무릎 위로 올라간 짧은 오버 코트나 스커트를 입은 것

3 면접 전 마지막 체크 사항

- 약속된 면접 시간 10분 전에 도착하도록 스케줄을 짤 수 있다.
- 면접실에 들어가서 공손히 인사한 후 또렷한 목소리로 자기 수험 번호와 성명을 말할 수 있다.
- 앉으라고 할 때까지는 의자에 앉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 면접 시 면접 위원을 편안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이야기할 수 있다.
- 자신에 대해 5분간 이야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 자신의 긍정적인 면을 상대방에게 바르게 전달할 수 있다.

➤ 면접시험에 나오는 질문

1 지망 동기에 대하여

- 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것은 언제부터이며, 어떤 동기에 의해서입니까?
- ② 다른 시험에 합격한 적이 있습니까?
- ③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본인이 특별히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2 직무에 대한 인식

- ① 갑작스런 일이 주어졌는데 사전에 약속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② 당신은 공무원으로 재임 시 어떤 직위에까지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③ 상사와 의견이 다를 경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④ 여성과 일에 대한 당신의 사견은?

3 자신에 대한 소개

- ① 5분 안에 자신을 소개하십시오.
- ② 본인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③ 살아오면서 가장 기뻐던 경우와 가장 슬펐던 경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④ 자신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 ⑤ 타인의 입을 통한 본인의 평가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4 학창 시절에 대하여

- ① 본인의 전공은 무엇이며, 전공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② 학창 시절 써클 활동을 한 경험은 있습니까? 있다면 써클 이름과 활동 내용에 대해 말하십시오.
- ③ 아르바이트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5 인생관에 대하여

- ① 좌우명이 있다면 말해 보십시오.
- ② 자신의 인생 지표가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유는?
- ③ 주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④ 즐겨 하는 스포츠가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 ⑤ 10년 후의 당신의 모습을 그려 보십시오.

6 허를 찌르는 질문

- ① 오늘자 일간지에 난 기사 중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② 내일 지구가 사라진다면 당신은 오늘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 ③ 당신은 전통 찻집과 화려한 커피숍 중 어떤 스타일입니까?
- ④ 가장 최근에 본 영화가 있다면, 보고 난 소감은?
- ⑤ 휴가 일정이 상사와 겹쳤습니다. 한 사람만 갈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⑥ 지금 당장 1,000만 원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⑦ 선약이 되어 있는 주말에 비상근무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2012년 공무원 면접시험 총정리

▶ 「국가직 9급 면접시험」 사전조사서 바탕으로 경험 중심 질문 대다수

2012년 국가직 9급 면접시험은 집단면접이 없었고 사전조사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는 특징을 보였다.

우선 면접 질문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어려운 임무 수행 경험 ▲어려운 임무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다면? ▲살면서 자신이 손해보더라도 어려운 부탁을 들어준 경험 ▲무단횡단 경험 등이며 전반적으로 경험 위주의 내용들을 구체화하는 질문으로 대화 형식의 면접이 진행됐다.

면접 응시자들은 전반적으로 “면접관 2명과 응시자 1명이라 걱정을 많이 했지만 압박 질문은 없었으며 면접이라기보다는 대화를 10분~30분 정도 한 것 같다.”는 평가를 내렸다. 뿐만 아니라 한 면접자는 “사전조사서 중심으로 면접시험이 진행되는 것은 일정한 질문 내용이 면접시험 후 유출되기 때문에 면접을 획일화시키지 않고 사전조사서를 바탕으로 개개인에 맞춘 다양한 질문이 이어지는 것 같다.”고 전했다.

▶ 「국가직 7급 면접시험」 PT(발표)가 관건

2012년 국가직 7급 면접시험은 필기시험 합격 후 등록을 포기한 11명을 제외하고 총 694명이 최종 합격을 위한 경쟁을 치렀다. 이번 면접시험에서는 사전조사서 질문은 비교적 무난한 반면 PT(발표)가 면접시험의 주축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면접을 살펴보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성과를 낸 경험 ▲이해관계의 대립 시 이를 조정할 경험 ▲봉사활동에 대한 사례 및 경험의 구체적인 내용 제시 등으로 이루어졌다.

개별 면접 질문에 대해서는 압박 질문 등의 강도 높은 질문보다는 대체적으로 사전조사서를 바탕으로 한 질문들이 주를 이뤄 수험생들은 부담스럽지 않았다는 의견을 표했다.

하지만 PT(발표)의 경우에는 기록치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PT(발표)의 주제는 ▲학력 문제 ▲성폭력 문제들처럼 최근 이슈화된 내용들이 주를 이뤘다. 특히 PT(발표)의 경우에는 주제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 및 의사 발표 능력을 주로 검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층적인 질문 및 압박 질문 등이 이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 7·9급 면접」 ‘수험생들 진담’ 상황 제시형 및 시사 질문 골고루 이어져

2012년 서울시 7·9급 면접시험은 자기소개와 서울시정 질문 등을 바탕으로 심층 질문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은 “시간은 10분 내외였으며 시험 과목과 관련한 질문이 집중적으로 이어졌다.”고 시험 후기를 밝혔다. 이어 “서울시정 문제 및 시사 문제 등 전반적으로 걸쳐 질문이 골고루 출제된 편이었다.”고 전해왔다.

다음 면접 기출문제를 정리해 보면 ▲자기소개 ▲여성 행복 프로젝트가 무엇인가? ▲Shife(장기 전세)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공소시효가 무엇인가? ▲대회 활동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민원인으로부터 자신이 자세히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한 문의가 이어질 경우 대처 방법 등이다.

특히 올해 시험에서는 수험생 개인의 특정 과목 점수를 바탕으로 한 질문이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또한 한 조에서 모두 답변을 하지 못할 경우 ‘조원들과 상의해 의견을 조합해 보라’는 요구도 이어졌다.

➤ 「지방직 9급 면접시험」 ‘이모저모’

지방직 면접시험의 경우 각 지역별로 일정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먼저 실시된 면접시험을 통해 전반적인 분위기를 모색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지방직 면접시험은 기본적으로 자기소개, 주소지, 봉사활동과 관련된 기본적인 질문 이외에 시사적인 질문, 전공과 관련된 질문들을 추가적으로 물어보는 등 면접에서 평균 10개 이상의 질문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면접 질문은 정리해 보면 ▲자기소개 ▲디지털 격차 용어의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주소지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가? ▲박근혜 대통령이 몇 대 대통령인가? ▲영겔지수가 무엇인가? 등이다.

이는 사전조사서에 편중된 면접이 아니라 시사적인 내용들까지 포함된 질문이 이어져 수험생들은 “전반적으로 면접시험이 강화된 느낌을 받았다.”고 후기를 전했다.

또한 면접시험의 강화로 인해 압박 질문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수험생들은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

특히 면접시험에서 압박 질문이 진행될 경우 명확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침착하게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면접 스터디 등에서 이러한 돌발질문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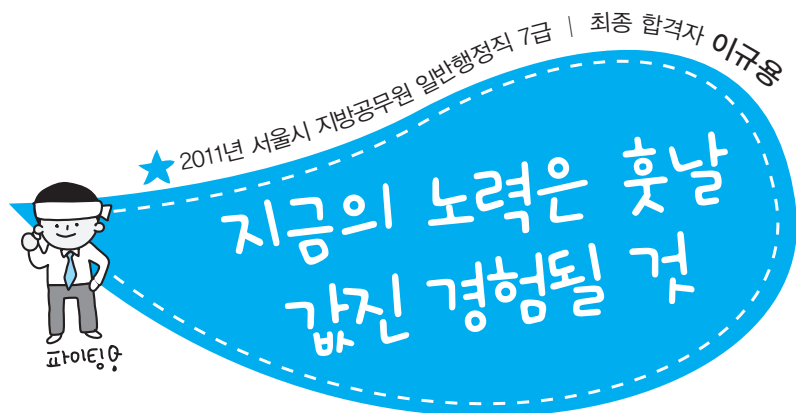
남부를 켜면
합격이 보인다!



Go Go!

Part 2

합격 노하우 총정리



공인회계사와 7급 공무원 시험을 두고 고민하던 규용 씨는 부모님과 의논을 거쳐 공무원 시험 응시 쪽으로 마음을 굳히게 되었다. 4학년 1학기를 다니며 경제학과 영어를 공부했고 학교를 졸업한 후에 약 2년간의 수험 기간을 가졌다.

★기술문제
바탕으로
예습과 복습
병행

다음은 2011년 서울시 지방공무원 일반 행정직 7급에 합격한 그가 전해 온 과목별 학습 방법이다.

“국어는 7급 시험의 출제 경향에 맞춰 준비했습니다. 주로 시험에 나오는 맞춤법을 집중적으로 공부했어요. 모의고사를 풀어도 지나치게 어려운 문제 등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최근 시험에서 현대 시 문제가 출제되는데 이 부분은 예측해서 공부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 감만 익힐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침에 공부를 시작하면 점심시간 전까지 영어와 국어 과목만 공부했어요. 국어는 맞춤법을 30분 정도 보고 남은 시간은 영어 공부에 집중했지요.

영어는 강의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어려운 공부이니만큼 혼자 하면 쉽게 지치기 때문입니다. 강의를 듣기 전 예습을 하고 다시 복습을 반복했어요. 영어는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강의를 통해 중요 부분을 걸러내어 학습해야 효율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사는 공부할 분량이 매우 많은 과목입니다. 시대별 흐름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암기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행정학은 강의를 들으며 내용을 간추렸습니다. 한국사와 마찬가지로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했지요. 두 과목 모두 ‘내가 어려우면 남들에게도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며 마음 편히 공부했던 것이 도움됐습니다.

행정법은 기본서와 OX 문제 확인을 병행했습니다. 총론은 OX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고, 각론은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했어요. 기출문제를 볼 때는 이 문제가 몇 년도 어느 시험에 나온 문제인지 파악했고, 정답과 오답의 이유까지 분류할 수 있을 정도로 반복했습니다.

경제학은 4학년 1학기 때 강의를 들었는데 상당히 어렵더군요. 그 후 다시 강의를 듣고 객관식 문제를 풀며 예습과 복습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시험 문제를 풀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는 넘어갔습니다. 이론 문제를 먼저 풀고, 다른 과목 문제를 모두 푼 뒤 시간이 남으면 다시 그 문제를 살펴봤어요.

마지막으로 헌법은 강의를 들은 뒤 기출문제를 반복했습니다. 이론서에 기출문제와 O·X 문제를 정리했어요. 문제의 범위가 넓으므로 중요한 기출문제는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지방직 탈락, 서울시 합격

그는 수험생들에게 “잘 노는 사람이 공부도 잘 한다.”라는 말을 해 왔다. 즉, 수험 생활 중 받는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잘 풀어야 더욱 능률이 오른다는 것.

이를 위해 규용 씨는 친구들도 만나고, 컴퓨터 게임도 하며 스트레스를 풀었다. 또한 하루 평균 10시간의 공부 시간을 지키되 일요일에는 1~2시간 정도만 책을 봤다고 한다.

이처럼 슬럼프를 이겨냄과 동시에 규용 씨는 수험 기간 중 반드시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만들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하고 7~8개월은 학원 수업에 집중했고, 이후 4개월 동안 혼자 공부를 했다고.



지난 2010년 국가직 7급 시험에 응시한 그는 평균 86점을 받게 됐다. 당시 합격선이 89점이었던 터라 규용 씨는 ‘할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을 얻고 지방직 7급 시험에 몰두했다.

“공부를 더 열심히 했는데 지방직 7급 시험에서는 되레 점수가 80점에 머물렀어요. 제가 응시한 전북 전주시 합격선은 88점이었고요. 매우 충격이 컸고 자신감도 많이 잃게 됐습니다.”

지방직 7급 시험 탈락의 충격에서 벗어난 규용 씨는 다시 학습계획을 재정비했다. 총 4개월 동안 국어, 행정학, 국사를 2개월 동안 공부하고, 나머지 2개월은 행정법, 헌법, 경제학을 공부하기로 한 것. 11월부터 이듬해인 2월까지 과목별 회독을 마친 뒤 다시 3월부터는 공부한 내용을 혼자 정리했고 마침내 그해 6월 서울시 7급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

“당초 목표는 지방직 9급 시험이었습니다. 예비군 훈련이 4월에 잡혀 있었는데 지방직 시험 때문에 연기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지방직 9급 시험은 탈락하고 서울시 시험에 붙었네요.(^_^) 서울시 시험을 치른 후 가채점을 해보니 점수가 괜찮아서 기대감이 생기더군요. 이후 필기 합격을 확인하고 바로 면접시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시·도 정책 직접 경험해 보아야

광주에 거주하고 있던 규용 씨는 스터디 조원들을 구한 후 서울로 올라왔다. 시 정책에 대한 질문이 많은 지방직 면접 특징을 고려해 다양한 준비 방법을 세웠다고.

“자신이 지원하는 시·도의 주요 정책은 반드시 정리해 두세요. 서울시 면접시험은 올해 이슈가 된 시 정책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유명 관광지에도 직접 다녀보며 체험을 해 보시고요. 저는 서울 시티투어 버스를 타기 위해 기다리던 중 비가 온 적이 있었어요. 정류장에는 마땅히 비를 피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고 버스에는 자리가 없어서 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를 피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규용 씨는 면접시험에 대해 ‘자신이 분위기를 주도해야 한다.’고 조언하면서 또한 한 조 내에서도 제시 문제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답변을 할 때는 자신감을 잃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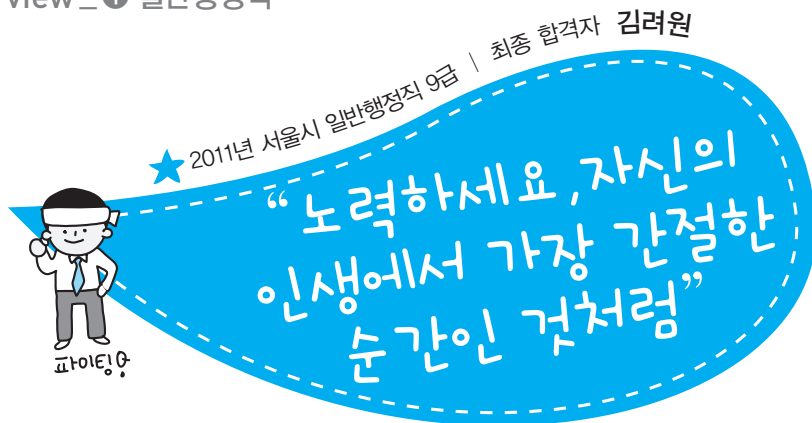
“중어중문학과를 나온 터라 중국어로 자기소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면접장에서 받은 질문은 ‘황하 문명에 대해 소개해 보시오.’였어요. 어찌나 당황스럽던지……. 그리고 ‘상사의 지시가 부당하다면 따르겠는가?’라는 질문에도 상사니까 따르되 위법이면 거절하겠다고 답했으나 상황을 조금씩 바뀌 가며 계속 질문이 이어졌어요. 잘 모르는 질문은 솔직하게 답하시는 것이 좋고 추가 질문에는 당황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답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포기하지
알고 최선을
다하세요.”

올해 서울시 면접 및 내년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규용 씨는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할 것’을 조언했다.

“공무원 시험은 열심히 한다는 전제 조건만 있다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시험공부에 집중하세요. 합격 후 근무를 하다 보면 가끔 그 시절이 그리워지곤 합니다.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고, 시간을 관리할 수 있으니깐요. 지금 힘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분명 좋은 경험이었다고 느낄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랍니다.”





려원 씨는 행정학을 전공하면서 공무원에 대한 꿈을 키웠다. 하지만 졸업한 뒤 본격적으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전공과는 무관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대학 공부가 좁고 깊게 배우는 것이라면, 수험 공부는 넓고 다양하게 공부해야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전공 과목보다는 오히려 영어 실력이 수험 기간을 단축한다고들 얘기하나 봐요.”

★ 오답노트는
필수, 자신에게
맞는 강의가

BEST

려원 씨는 동강과 스티디가 자신에게 가장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이를 중심으로 학습했다. 그중 국어와 영어의 어휘, 숙어 등은 스티디로 매일 조금씩 꾸준히 공부했다고.

“저는 혼자 자율적으로 공부하기에는 의지가 부족한 편이라 스티디가 많은 노랑진에서 공부하는 것이 잘 맞았어요. 또 학원 강의는 놓치면 다시 듣기 힘든 반면 동영상 강의는 언제든지 볼 수 있어 날마다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학습 흐름을 유지하면서 공부할 수 있었지요. 특히 기본 이론 강의는 공부 초기에는 3번 이상 들어야 하기 때문에 반복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컸고요.”

그는 5과목을 한 과목당 2~3시간씩 분배해 하루에 모두 보려고 노력했다. 한 과목을 오래 보면 금세 질릴 수 있고, 조금만 손을 놓아도 감을 잃기 쉬웠기 때문이라고. 이 밖에 중요한 공부 방법은 자신에게 맞는 학습법을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가 합격하고 생각해 보니 시험기간 동안 중요시했던 더 좋은 교재와 더 나은 강사를 찾는 것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강의를 최고의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교재도 자신이 지금 알지 못하는 부분, 혹은 틀린 부분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더불어 중요한 공부법은 바로 오답노트를 만드는 것. 오답노트를 만든 후에는 적은 내용을 꾸준히 반복해 읽어야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저도 합격생에게 추천받은 방법인데, 정리가 잘 되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국어와 영어는 과목 특성상 어휘 정도만 오답노트 만들기가 가능했기 때문에 따로 만들지는 않았고요. 나머지 과목은 연습장 하나에 구분 지어 틀린 부분을 옳은 문장으로 고쳐 적은 후 수시로 보았습니다. 주말에는 시간을 내어 그동안 적어둔 내용을 다시 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답노트를 반복해서 보지 않을 경우에는 효과도 없고 적은 내용을 또다시 적게 돼 비효율적이므로, 틀린 것이 반복된 경우에는 형광펜이나 색연필 등으로 중복 표시를 해두는 방법을 썼다.

★수험 계획은 구체적으로

려원 씨는 수험 계획을 짤 때는 되도록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크게는 시험 날짜를 기준으로 연간 계획과 월간 계획, 나아가 주간 계획과 일일 계획까지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12월까지 기본서 강의를 들었다면, 1, 2월에는 스터디로 몇 회독을 할 것인지, 3월까지의 문제 풀이를 듣는다면 4월 국가직 이후에는 지방직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는 해당 월까지 어떤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것인지, 몇 주가 소요될 것인지 등의 계획까지 짜 두고 실천하는 것이 좋다고. 또한 하루에 공부해야 할 분량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면, 무엇을 해야 할지 방향하지 않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루하루 정해진 만큼의 노력은 해야 하니까요.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 뛰어야 합니다. 모두가 아는 얘기일 테지만 그만큼 정말 중요한 것이니 많은 분들이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터디를
통해 면접
대비

“저는 면접시험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스터디를 통해 면접을 준비했어요. 스터디 그룹 2개를 통해 준비했고, 매일 모의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기출문제를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이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지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합격한 후에도 오래가는 동기가 되어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점이 좋았어요.”

면접시험은 세 명의 면접관 앞에서 진행됐는데, 러원 씨가 받은 질문은 ‘전임자가 하던 일에 문제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등과 기본 영어 면접이었다. 이때 그에게 영어 면접 추가 질문은 없었으나, 추가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면접관이 한강 사업 담당자이셨는지 한강 르네상스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과 여러 가지 질문도 있더라고요. 또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이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등으로 시험이 진행됐습니다.”

★“노력하지
않는 운은
없습니다.”

그는 수험기간이 오래되고, 많은 합격자들을 볼 때마다 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운이 따라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하지만 그중 노력하지 않고 운으로만 합격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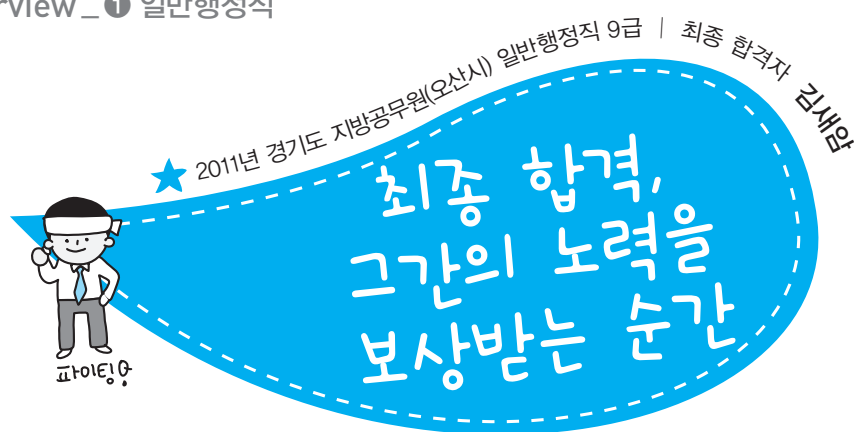
“직렬을 갑자기 바꾸어서 합격한 이도 있었지만 그것은 100% 운 때문에 합격한 것은 아니었어요. 합격을 위해 하루 최소 열 시간 이상의 공부 시간이 있었기에 운도 따랐던 거지요. 저도 ‘이만큼 공부하면 됐는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직 나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냉정하게 판단했어요. 시험 보기 전에는 완벽하게 공부한 것 같아도 막상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까요.”

때문에 그는 수험 생활이 힘들더라도 늘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부하다 마음이 힘들면 늘 저 때문에 걱정하고 남들 앞에서 작아지는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렇게 오래도록 기다리던 합격을 하고 나니 막상 얼떨떨하기도 하고 앞으로의 직장생활이 걱정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보다 부모님이 더 좋아하셔서 정말 좋습니다. 제 평생 가장 큰 효도를 한 것 같고, 제 일이 힘들어도 좋아하시는 부모님을 보며 견딜 수 있어요.

여러분도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보고, 또 합격하고 난 뒤 하고 싶은 일을 하나 둘 리스트로 작성해 보면 의욕도 생기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간절하면 노력하게 되고, 노력하면 언젠가 이루어집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지금처럼 노력하는 순간이 또 있을까요?”





지난해 경기도 지방직 9급 시험에 최종 합격한 김새암 씨. 시보를 떼고 새 내기 공무원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그는 공무원이 된 딸을 대견스럽게 생각하시는 부모님에게 가장 감사하다고 전해 왔다.

★영어
단권화와
문제 풀이로
응용력 키워

국어 선생님을 목표로 했던 새암 씨는 학과 학생의 10%에게만 주어지는 교직이수 기회를 아깝게 놓친 후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기로 마음먹게 된다. 고등학교 재학 시절 정치 선생님이 공무원 시험을 권유했던 기억이 떠올랐던 것. 이후 진로를 정한 새암 씨는 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했다.

“처음 수험생이 됐을 때 암기과목부터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기본과목을 소홀히 했습니다. 대학 전공이 국어국문학이었기에 국어는 더더욱 공부를 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수험생활이 길어지면서 기초 과목을 등한시하니 절대 합격권에 가까워질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를 듣고, 복습을 하며 기초를 다졌습니다.”

국어는 교재에 손때가 묻을 정도로 회독을 반복했다. 한자는 음훈을 맞추는 것에 중점을 두며 하루에 30분씩 공부를 했다. 이후 기본 강의와 문제 풀이를 통해 현대 문학, 고전 문학, 비문학 등을 보충했다고.

새암 씨는 ‘다른 수험생들과 마찬가지로 영어가 가장 어려웠다.’고 고백했다. 더욱이 자신에게 맞는 강의를 찾지 못해 약 2년을 허비하게 됐다. 이후 문법 강의를 들으며 단권화를 하고, 문제를 풀며 응용력을 키웠다.

“독해는 문제를 많이 풀며 시험 유형을 익혔습니다. 어휘는 책으로 보면 지루함을 느껴서 작은 메모장에 독해 문제를 풀며 모르는 단어를 정리 해서 외웠습니다. 영어는 노력에 비례하는 과목이니 매일 꾸준히 공부하 셔야 해요. 기초를 다지지 않은 상태로 두루뭉술하게 공부하면 절대 점 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한 발 한 발 내딛으셔야 함을 명심하세요.”

한국사는 여러 강사들의 강의를 들으며 준비했다. 시대순으로 정리된 기 본서를 보며 전체적인 흐름을 잡고, 테마별로 정리된 책을 보며 각 시대 별 특징을 공부했다.

행정학 과목은 기본서를 참고로 암기노트를 만들어 외웠다. 특히 매년 새롭게 나오는 이론에 대처하기 위해 문제 풀이를 병행했다.

마지막으로 행정법은 공부를 시작하며 가장 부담을 느꼈던 과목이었다. 기본 강의를 듣고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할 필요성을 느껴 법 체계를 잡 아 갔다고.

“행정법은 처음에는 생소하고 어렵지만 문제를 풀며 같은 표현을 여러 번 보면 눈에 익게 됩니다. 개념을 확실하게 암기한 후 OX노트를 만들어 맞 는 문장인지를 확인해 보세요.”

★ 봉사 활동은 필요한 경험

새암 씨는 영어, 국어, 암기 과목 순서로 공부를 진행했다. 영어는 문법 2시간 / 독해 30~40분 / 어휘 20분으로, 국어는 기본서 1시간 / 한자 30분 등으로 정해 놓고 매일 손에서 놓지 않았다.

암기 과목은 행정학 10~13일, 행정법 7~10일, 한국사 8~10일의 시간 을 들여 1회독을 했다고. 이런 방식으로 한 달 계획을 구성한 뒤 과목별 회독을 이어 갔다.

차분하게 공부에 임한 새암 씨였지만 시험에 대한 긴장감은 피할 수 없었 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그는 주저 없이 ‘자신감’을 꼽았다.



“지나간 시간을 후회하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했을 때 찾아오는 자신감을 믿으려고 했어요. 스스로를 믿고, 나의 노력을 믿는다는 마인드를 유지하려고 했지요. 시험 시간 1시간 전에 도착해 책상 등을 점검하고 집중력을 높이려고 했고요. 시험 시간에는 긴장이 최대의 적이니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풀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 종료 후
휴식을 취하며
슬럼프 예방

서울시 시험이 종료된 후 새암 씨는 2개월 정도 휴식을 취했다. 친구들을 만나거나, 등산을 하며 체력을 보충한 것. 이렇게 컨디션 조절과 기분 전환을 한 후 가을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며 슬럼프를 극복했다고 한다.

필기시험 합격 이후 새암 씨는 스터디를 조직해 면접시험 준비에 임했다. 조원들과 모의 면접을 실시하고, 추가 질문 및 돌발 질문에 당황하지 않도록 혼자서도 꾸준히 연습했다고. 그는 “경기도는 봉사 활동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면접 준비 기간에라도 봉사 활동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라고 조언했다.

★좌절을
이겨낸 나에게
격려를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라면 포기하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던 매일이 아픔이었다. 포기하지 않게 해 주신 주님, 속으로 더 많이 우셨을 부모님, 응원과 격려로 일으켜 준 친구들에게 감사를, 그리고 좌절을 이겨낸 나에게 격려를’ 이 문구는 새암 씨가 최종 합격 통보를 받고 다이어리에 써 둔 글이다.

그는 “공무원이 된 자신을 자랑스럽고 대견하게 여기시는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라고 전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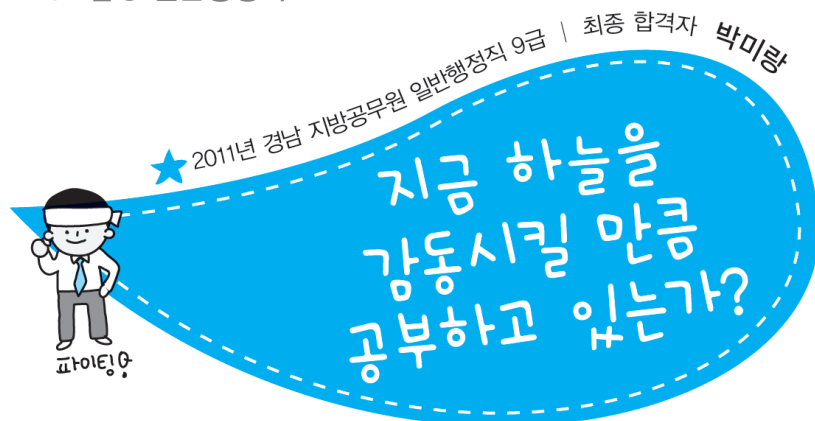
★한 올 한 올
실을 꿰듯

새암 씨는 시보 해제 후 이름이 박힌 명함을 받은 후 자신이 ‘공무원’임을 실감했다고 한다. ‘어떻게 합격했냐’라는 질문을 받으면 그는 ‘시행착오를 너무 오래 겪어 어떻게 합격이 됐는지 모르겠다.’라고 답하곤 한다.

“지난 2007년 7월부터 공부를 시작해 2011년 8월에 최종 합격했으니 햇수로 5년 만에 공무원이 됐습니다. 오래오래 돌고 돌아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는 과정 속에서 한 올 한 올 실이 꿰어져 합격에 이른 것 같아요. 최종 합격 전에는 책을 보면 헛구역질이 나올 정도로 공부했고 이 시험 하나에 내 청춘을 바친다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합격자 명단에서 제 이름을 본 그 순간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잊기에 충분할 정도로 황홀했습니다. 누군가는 합격의 순간을 누리고, 누군가는 좌절할 테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엄마 나 합격했어.’라는 말을 할 날이 여러분에게도 찾아올 것입니다.”





합격을 자신할 수 없어 불안감이 커질 때 미랑 씨는 “내가 왜 ‘공부’를 이기지 못해서 울어야 하지?”라는 생각을 씬 없이 떠올렸다. 그리고 ‘지금 이 고비를 넘지 못하면 앞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굳은 다짐이 마침내 합격을 향한 길을 열어 줬다.

★‘고맙습니다’ 라는 인사의 힘

어릴 적부터 막연하게 공무원을 꿈꿔온 미랑 씨는 대학교 재학 중 자신의 목표를 확고히 하게 된다.

대학교 종합 민원실에서 근로 장학생으로 근무하며 학생들에게 휴·복학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전화 상담 등의 일을 진행하며 뿌듯함과 흥미를 느끼게 된 것. 그는 “도움을 받은 학생들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를 할 때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시청과 동사무소에서 하는 일과 비슷한 터라 공무원이 제 적성에 맞는다고 느끼게 된 순간이었지요.”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목표를 굳힌 미랑 씨는 수험 공부 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자신이 성격이 급하고, 응용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파악한 그는 우선 과목별 기본서의 ‘다독’을 우선 목표로 세웠다고.



“국어와 영어 과목은 인터넷 메신저 스터디로 효과를 많이 보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싶은데 마음처럼 실행이 어려울 때 특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조원들이 함께 모이니까 출석율도 높아지고, 스터디를 통해 회독 수를 늘릴 수 있었습니다.”

이후 국어는 강의로 기본서를 회독한 후 문제 풀이로 정리했다. 영어 어휘는 뜻을 가리고 답을 맞추는 방법을 사용했다. 그리고 문제 풀이는 여러 권을 구입하는 대신 한 권의 책으로만 공부했는데 몇 번이고 풀어서 오답 문제를 줄이는 데 집중했다고.

고등학교 때부터 한국사 과목을 어려워했던 미랑 씨는 시험 준비를 시작하며 우선 과목에 재미를 붙이는 것부터 생각했다. 자신에게 맞는 강의를 택해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했고, 두문자를 아침에 한 개씩 외워 갔다. 행정법도 한국사와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알맞은 강의를 택해 기본서를 회독하고 기출문제 및 O·X 문제 풀이를 이어 갔다고.

마지막으로 행정학은 내용이 방대하고 어려워 이해와 암기를 병행하는 방법을 활용했다. 이해가 어려운 내용은 두문자로 암기하고 그림을 통해 내용을 정리했다.

“행정학과를 졸업했지만 너무 어렵더라고요.(^_^) 문제 풀이를 통해 다시 정리하고 메모지에 모르는 내용을 기록해 공책에 붙이고 하루에 몇 장씩 읽고 외웠습니다. 시험장에도 가지고 갔는데 시험 직전 헛갈리거나 암기할 내용을 정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이렇게 과목별 공부를 진행하며 미랑 씨는 1회독이 끝나거나, 한 달이 지날 때마다 항상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얼마만큼 공부를 할 것인가를 정리하고, 이에 맞춰 계획표를 하루, 일주일 단위로 재구성했다고. 구체적으로 ‘오늘 하루는 몇 과목을 공부하고, 한 과목은 몇 시간 동안 어느 부분까지 해야겠다.’고 정한 뒤 매일 공부한 분량을 써 두면 성취감까지 느낄 수 있었다.



★나의 노력은
절대 나를 배신
하지 않는다

시험 직전의 긴장감은 미랑 씨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기본서를 복습하고 문제 풀이를 정리해도 늘 모르는 내용이 가득해 더욱 불안감을 느꼈다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미랑 씨는 ‘내가 공부 한 노력은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되뇌었다고 전했다.

“시험 시간 전까지 문제지를 받고 방송을 들으며 잠시 대기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주위를 둘러보며 ‘내가 제일 공부를 많이 했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내가 1등으로 합격할 수 있다.’라고 계속 생각했어요. 약간 황당한 방법일 수도 있지만 정말로 자신감이 생겨서 안정적인 마음으로 시험에 임할 수 있었답니다.(^_^)”

★면접시험의
무기는 자신감

치열했던 필기시험만큼 미랑 씨에게는 면접시험도 험난한 관문이었다. 경상남도의 경우 선발 정원 내로 필기 합격자를 선발하나 올해는 그렇지 않았던 것. 때문에 합격의 부담감은 더욱 그를 압박해 왔고 면접시험 준비에 더욱 매진했다.

“총 6명이 면접 스터디를 조직했습니다. 일주일에 세 번 정도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조를 이뤄 모의 면접을 실시했습니다. 시험장 입실부터 자세, 태도, 목소리, 답변 내용 등을 바탕으로 서로 조언을 해 주며 연습했고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면접시험까지는 약 2주 정도밖에 주어지지 않아 1주일엔 시사, 일반 상식, 인성, 지역 현안 등을 정리했고, 나머지는 자료를 정리해 모범 답안을 만들어 암기했습니다. 정작 시험장에서는 연습했던 질문은 거의 안 나오고 답변을 할 때 실수도 많이 했지만 최선을 다해 웃으면서 답변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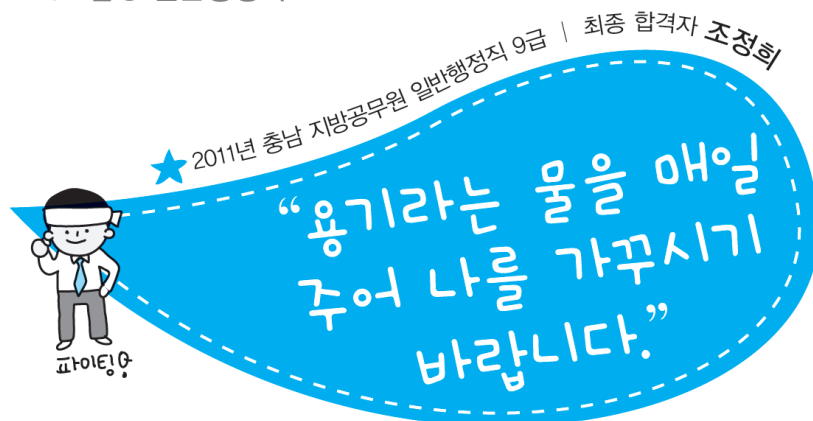
★ 공부할 때는
철저히 혼자가
되어야

어린 시절 그토록 꿈꿔 왔던 ‘공무원’이라는 새로운 모습을 앞두고 있는 미랑 씨는 무엇보다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공부하는 내내 자신을 믿어 준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파 더욱 최선을 다했고 그 결실이 맺어졌다면 평생 효도하는 딸이 되겠다고 전해 왔다.

마지막으로 미랑 씨는 수험생들에게 ‘철저히 혼자가 돼 공부하라.’라고 강조했다. 즉, 남을 기준으로 삼고 공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을 보고 ‘난 이정도면 충분해’라고 생각하는 것은 금물이다. 타인을 신경 쓰지 말고 계획한 공부를 끝까지 진행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합격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의지가 더 강하고, 누가 더 노력했느냐의 싸움입니다. 열심히, 꾸준히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합격이 주어집니다. 오늘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내년 오늘 또 공부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늘을 감동시킬 만큼 공부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 꿈이 현실이 되는 과정

제가 공무원으로 진로를 결정하게 된 데에는 부모님의 영향이 매우 컸습니다. 부모님이 모두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시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막연하게나마 공무원을 동경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강화도 유적지 방문과 KBS 견학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공무원이 되어야겠다는 뚜렷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담당했던 공무원의 따뜻한 보살핌과 열정적인 모습이 어린 저의 기억 속에서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 후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고 꿈을 이루기 위해 수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공부 스타일은 롤러코스터

우선 공부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태를 진단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본서 1회독을 바탕으로 모의고사 또는 단원별 문제 풀이를 통해 자신의 취약한 부분을 변별력 있게 구분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무리하게 계획을 진행할 경우 체계적인 학습을 하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실력을 파악했다면 부족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학습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학습을 예로 들면 '시' 두 편 학습 → 고유어, 표준어, 한자성어 → 문법 학습 → 독해 순으로 학습을 했고 따로 암기가 필요한 부분은 포켓북 타입의 요약집을 가지고 다니며 틈틈이 보고 외웠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인 공부를 하는 것은 물론 평균적인 학습 시간을 정해 공부했습니다.

오전 6시 30분~7시에 일어나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공부, 오후 1시 30분부터 점심을 먹고 다시 저녁 6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 후 저녁 6시 반부터 밤 11시 30분, 자정까지 씻고 잠잘 준비를 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학습으로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기본 패턴은 유지하면서 유동적인 변화는 있었고 평균 8시간 학습을 목표로 했습니다.

참고로 공부를 하면서 집중력이 약하신 분이라면 '45분 공부 10분 휴식'이라는 공부 방법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과목별 공부 방법의 핵심

국어

- 문법은 방대한 내용을 10개로 나눠 접근성 증대
- 독해는 구조적 독해를 통해 시간 활용의 효율성 증대
- 생활 국어는 스터디를 통해 반복 학습

영어

- 문법은 내용을 압축해 나가는 학습 필요
- 독해는 구조적 독해와 글의 논리적 배치 통해 생략해 나가는 학습 필요
- 어휘는 단어 테스트로 꾸준한 학습

한국사

- 기본적인 흐름을 읽으며 세밀한 부분까지 꼼꼼히 학습
- 전체적인 흐름과 기본 이론을 활용할 수 있는 응용력 키우기

행정법

- 반복 학습으로 기본적인 이론 틀 성립
- 수정 사항 변경된 판례 확인 필요



행정학

- 기본 이론 내용을 확인
- 서브노트를 활용해 기본 영어와 개념 이해

★면접 준비는
스터디로 시작

첫 필기시험 합격 후 면접을 준비할 때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선적으로는 카페, 문제집 등에 나오는 기출문제를 정리했고 면접 정보를 얻어 나갔습니다. 그 후 면접 스터디를 통해 함께 자료를 공유하고 장단점을 정리하며 면접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충남 지방직의 경우에는 개인 발표 자료를 작성한 후 발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면접 내용은 개인 발표의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충남 지방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개인 발표를 준비할 때는 추후 발표 내용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모의 면접 때 개인 발표 내용을 스터디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예상 질문 등을 받아 대략적인 답변을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험생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자신감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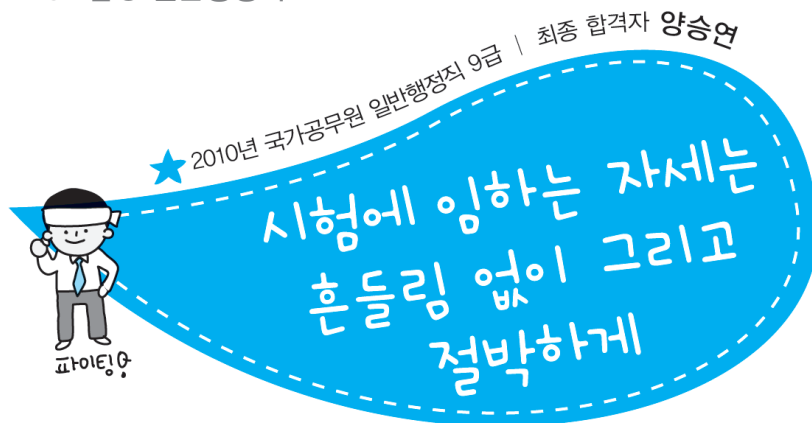
“난 2012년 서울시 합격”과 같이 정확한 목표를 갖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목표 없이 달리는 수험 생활은 머나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해 스스로 지치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입니다.

전 매일 아침과 저녁에 샤워실에서 “난 2011년 3관왕이다.”라고 소리 내어 말하면서 스스로 용기와 자신감을 불어넣었습니다. 비록 현실은 불안과 초조함에 하루하루가 힘들었지만, 샤워실에서 외친 스스로의 주문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인터뷰를 하게 만들지 않았나 합니다.

수험 생활의 가장 큰 적은 ‘나’입니다. 스스로를 이기는 자만이 꿈을 이룬다는 생각으로 자기를 아껴 주고 용기라는 물을 매일 주어 ‘나’를 가꾸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5살, 대학교 마지막 학기를 다니고 있는 2010년 국가직 최종 합격자입니다.

수험 생활 시작할 때 저는 먼저 합격하신 선배님들의 합격 수기를 몇 개 읽고 시작했기에 저도 '합격하면 꼭 합격 수기를 써야지.' 하고 다짐했던 때가 생각납니다.(^-^) 그게 었그제 같은데 지금 이렇게 합격 수기를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겐 너무나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공부 열심히 하시면 꼭 합격 수기를 쓰실 날이 얼마 지나지 않아 올 거예요. '나도 나중에 합격 수기 꼭 써야지.' 하는 생각으로 공부하시면 훨씬 더 공부가 잘 될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필요

일찍 일어나는 습관은 지금부터라도 길들이시길 바랍니다. 일찍 일어나면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고 하루를 보다 알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그만큼 많이 확보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늦잠 자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았고 뭔가 뒤쳐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보다 일찍 일어나서 거리를 나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제 자신이 한심해 보였습니다. 사람마다 생활 패턴이 다르겠지만 남보다 하루를 일찍 시작한다는 뿌듯함을 가지고 아침을 맞아 보세요. 상쾌할 겁니다.



물론 아침 일찍 일어나면 낮에 졸음이 오게 마련입니다. 저는 주로 점심 먹고 20분 정도 잤어요. 단, 낮잠 시간은 최대 1시간이었습니다. 점심 먹고 낮잠 자는 건 좋지만 그 외의 시간은 낮잠 자면 안 됩니다.

★체력 관리, 체력 조절 필수

2009년 서울시 시험 전부터 서울시 시험을 포기하고 (시험은 응시했음) 운동을 했습니다. 12월까지 다녔던 길로 기억하는데 헬스장에서 운동하면서 그동안 부족했던 체력을 다시 길렀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종합영양제 등도 먹었습니다. 전 초반에 너무 무리해서 공부하느라 체력이 떨어져서 내년 대비를 위한 재충전의 방법으로 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적당한 수면을 취하시고 영양제도 드시면서 몸에 무리가 가지 않게 공부하세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다 하더라도 저처럼 시험 전에 체력이 떨어지면 다 소용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문제를 통한 유형 및 행정 알아야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선택하세요. 저는 문제 풀이 위주의 공부 방법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많은 문제 풀었습니다.

2008년 7월 수험 생활을 시작해서 2009년 4월 첫 국가직 시험에서 행정학 40점을 받았습니다. 행정학 공부 안 했냐고요? 아닙니다. 11월~12월 행정학 단과 수강했고 1월부터 시험 전날까지 저녁 6시부터 12시까지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행정학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이유는 행정학이 너무나 어려워서였습니다. 3개월 동안 매일 6시간을 공부했는데 정작 시험에서 받은 점수는 40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첫 국가직 시험에서 행정법이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반전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행정학을 공부할 때 문제를 가장 많이 풀어봤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를 많이 풀면 문제의 유형과 함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4월 시험을 끝내고 행정학 문제 풀이를 시작했습니다.



★ 자기 양식의
중요성

붙을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공부하세요. “나는 꼭 붙을 수 있다, 붙을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는 붙을 수 있다가 아니라 붙었다, 붙었다 이렇게 자기 최면을 거는 겁니다. 저는 시험 보기 전에 어머니와 통화할 때마다 “나 이번에 붙을 수 있어~ 붙어.” 하고 말했던 게 떠오르네요. 그리고 2010년 4월 10일 국가직 시험 치기 전에는 일기를 써서 공부 시작하기 전에 매일 읽었습니다.

2010년 4월 10일 토요일

오늘은 내가 공부하고 두 번째로 국가직 시험을 치른 날이다. 처음에 시험장을 들어갔을 때 너무너무 떨렸다.

시험지를 받는 순간! 무언가 기분이 좋았다. 그냥 술술 풀어 갔다. 풀면서 흥가분한 기분이 들었다.

시험이 끝난 뒤 그냥 나도 모르게 콧노래가 저절로 나왔다. 왠지 기분이 좋았다.

저녁 6시. 가담안이 올라오자마자 채점을 해 보았더니…… 오 마이 갓! 세상에나! 시험을 너무너무 잘 봤다! 야호! 합격이다! ㅠㅠ

눈물이 났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합격했다. 이제 지방직과 서울시, 군무원 공부도 열심히 해서 다 합격해야지!

‘시험 당일의 컨디션이 이랬으면’ 하고 미리 일기를 썼고, 그대로 이루기 위해 공부하기 전에 매일매일 읽었습니다.(^_^)



★마지막으로

한번 시작한 공부 끝을 보세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자신의 믿음대로 공부한다면 분명 길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절박함을 가지고 공부하세요. 절박함 없이 공부한다면 평생 공부만 하게 될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붙지 않는 시험은 세상에 없습니다. 흔들림 없이 공부해서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Interview_② 세무직

2011년 국가공무원 세무직 7급 | 최종 합격자 이지연



용감한도전



★ 세무직 공무원의 꿈

“이제는 학점 관리 잘 해서 졸업하는 일이 목표입니다.” 2011년 국가직 7급 세무직에 합격한 지연 씨는 남은 학업을 마치기 위한 임용 유예 중이다. 학업과 꿈,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그는 특별한 합격 비법은 없지만 ‘공부에 압박받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수험 생활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해 왔다.

지연 씨는 대학에서 행정학을 전공하면서 자연스럽게 공무원을 목표로 삼게 됐다. 그러나 행정직 과목은 그와는 잘 맞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다. 특히 행정법 과목이 가장 어렵게 느껴졌다고. 대신 세무학과 과목을 복수 전공 수업으로 들으면서 세무직 공무원을 준비하게 됐다. 2010년 1월부터는 학교생활과 수험 생활을 병행하면서 본격적인 공시 공부를 시작했다.

“처음 시험을 준비할 때 그래도 기본 바탕은 될 거라 생각하고 2010년에 연습 삼아 국가직 7급과 서울시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점수가 너무 낮게 나와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 뒤 1학기 수업을 마치고 휴학을 하면서 공부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대학생인 공시생들의 휴학 시기는 1학기가 끝나고 난 뒤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시험이 상반기에 치러지므로 이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 2학기를 마치고 휴학을 할 경우 시간에 쫓길 수 있기 때문이다.



★ 동강과
기본서를
바탕으로

“한정된 휴학 기간 안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대부분 학생들이 학기 중에 공시 과목 중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어려운 과목 등을 병행해 공부하고 휴학한 뒤에는 나머지 과목들을 공부하는 방법을 쓰는 추세지요.”

학교 공부와 공시 공부를 동시에 하기란 쉽지 않았다. 학기 초반에 공부를 시작하면서 쉬는 시간마다 공부하는 계획표를 짰지만 실제로 잘 지켜지지는 않았다. 대신 하루 7과목을 시간을 정해 놓고 꾸준히 보는 방법을 택했다.

“대부분 수험생들은 한 과목씩 집중해서 공부하지만 한 과목을 집중해 공부하는 동안 그 전에 공부한 다른 과목의 내용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에 7과목을 동시에 공부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좋지 않은 방법이라는 말도 있지만 다행히 저에게는 잘 맞았지요.”

학기 중에는 학교 도서관을 이용했고 휴학을 하면서부터 학원 강의와 동영상 강의, 기본서 회독을 기본으로 삼았다. 학기 중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과목별로 공부 기간이 달라 전 과목의 이론 정리를 마무리하는 데 9~10개월 정도가 걸렸다.

“기본 지식이 있는 과목과 그렇지 않은 과목이 달라서 회독 수도, 공부량도 달랐습니다. 회계와 세법, 경제는 어려운 과목이라 심화 강의까지 들어 가며 공부했지요. 특히 경제 과목은 제게 가장 어려운 과목이라 다른 과목보다 시간을 좀 더 투자했습니다.”

이론 정리를 마무리한 뒤에는 문제 풀이에 들어갔다. 문제를 여러 번 풀어 계속 맞추는 문제는 제외하고 틀리는 문제, 헛갈리는 문제들을 반복해 풀어 가며 다양한 문제를 풀었다. 오답노트나 요약집을 따로 만들지 않고 기본서와 동강을 위주로 공부했는데, 특히 기본서는 문제 풀이 동안에도 꾸준히 읽었다고.



Interview_② 세무직

★ 힘든 점?

학점과

가산점 자격증

“요약집은 혹시라도 요약한 부분 이외의 문제가 출제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기도 했지만 문제 풀이 동안 어려우면 기본서로 돌아가서 다시 이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굳이 요약집을 따로 만들지는 않았어요. 대신 기본서는 언제나 옆에 두고 꾸준히 읽었습니다.”

비교적 수험생 기간이 짧은 편인 지연 씨는 낙천적인 성격 덕분에 슬럼프를 겪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도 힘든 일은 있었다. 공시 공부 때문에 학업에 소홀하게 되자 학점이 떨어졌던 것.

“2010년 6월에 1학기를 마치고 성적표를 받았을 때 많이 우울했어요. 공시 공부를 하면서 정작 실력은 많이 오르지 않았거든요. 양쪽 어디에도 집중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공시 준비에 앞서 가산점을 딸 수 있는 자격증을 미리 취득하지 않은 것이 후회가 된다고 전했다. 공부를 시작한 뒤 자격증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면서 8월부터 11월까지 컴퓨터 활용 1급 자격증을 따기 위해 시험을 준비했으나 실기 시험에서 번번이 낙방해 4번째 시험에서 떨어지고 나자 과감하게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자격증은 시험 전에 꼭 따실 것을 권합니다. 그래도 저처럼 자격증 취득에 너무 오랜 시간이 들어가면 그냥 포기하고 그 시간 동안 공부에 집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9급 면접
탈락, 7급
최종 합격

지연 씨는 국가직 7급과 9급에 동시에 합격해 면접시험을 준비해 나갔다. 면접시험은 8월 중순부터 스터디 모임을 통해 준비했다. 그러나 9급 면접 시험에서 떨어진 뒤로는 주중 스터디 3번과 주말 스터디 1번으로 7급 시험에 대한 의지를 다잡았다.

“처음부터 7급 시험을 생각하고 시험을 준비했기 때문에 만일 9급에 붙는다면 7급에 다시 도전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안일한 마음 때문인지 떨어지더군요. 그래도 9급 시험에 떨어진 충격 덕분에인지 7급 시험 준비에 더욱 힘을 낼 수 있던 것 같아요.”

9급 면접시험에서는 ▲법인세 관련 문제 ▲민원인이 왔을 때의 대처법 등이 출제되었고, 7급 면접시험에서는 ▲국제 조세와 탈세 관련 문제 ▲위법한 상황을 마주한 상황 대처법 등이 출제됐다. 9급에서는 아쉽게 떨어졌지만, 7급 시험에서는 면접 스터디를 통해 미리 준비한 내용이 나와 비교적 수월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었다.

“정말 운이 좋은 편이었다고 생각해요.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는 너무 기뻐서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좋다는 생각만 들더군요.(^_^) 지금까지 옆에서 도와 주신 부모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지연 씨는 ‘지금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은 합격하고 나면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 지금은 공부하는 데 집중하길 바란다.’며 합격 의지를 전했다.

“예상치 못한 악재는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지요. 그러니 걱정하는 것은 일단 미루고 현재에 집중해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Interview_② 세무직

2011년 국가공무원 세무직 9급 | 최종 합격자 오지은



용감한 도전

내가 왜
공무원이 되어야
하는가?

★ 자신의 장단점을 파악해야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기회가 올 것이라 믿습니다. 채용 인원, 경쟁률 등에 좌지우지 되지 말고 ‘내가 왜 세무직 공무원이 되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되새기며 동기 부여를 하세요. 온 우주가 당신의 꿈이 실현되도록 도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다른 분들이 올려 주신 합격 수기의 도움을 받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부족하나마 이렇게 수기를 써 봅니다.

저는 부모님의 권유로 공무원 시험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에서 회계와 세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세무 직렬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업무가 과중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 어떤 직렬보다 전문성이 있고, 내가 열심히 한다면 장래에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것 같아 세무 직렬을 선택했습니다.

공부를 시작하며 우선 저는 제 자신의 장단점에 대해 파악했습니다. 평소 의지가 약했던 터라 이 점을 시급히 보완해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중, 고등학교 때처럼 저를 커리큘럼에 구속시켜 놓기로 결심했고 이를 위해 학원 종합반에 등록했습니다. 수강료를 해결하기 위해 학원에서 운영하는 장학생 혜택을 받고자 열심히 노력했고요. 종합반 수업을 등록했지만 복습할 시간이 부족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최대한 집중하며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 회계학과
세법은 꾸준히,
꼼꼼하게

학원에 등록할 때는 반드시 구성 강의를 자세히 알아보고, 자신의 실력 등을 충분히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론 수업을 시작한 뒤 2개월은 회계와 세법, 한국사 위주로 복습했습니다. 관련 전공을 공부했던 터라 다른 사람들보다 쉽게 습득할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대신 한국사에 취약했기 때문에 학습 시간을 늘렸고 영어는 매일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시작하는 수험생들에게 교재와 강의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터넷에는 광고성 글도 많으니 무턱대고 그러한 의견들을 따르지 말고 본인이 꼼꼼하게 교재 및 강의 구성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회계학은 강의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듣고, 복습을 했어요. 처음에는 약간 어려웠지만 강의에 집중하니 점차 문제 풀이를 수월하게 따라갈 수 있더군요. 특히 분개 연습을 꾸준히 해 원리에 대해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IFRS 도입 이후 직역 문장 때문에 한글인데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수업을 통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올해 시험에서 IFRS가 거의 반영되지 않고 너무 쉽게 출제돼, 불필요하게 여기고 소홀히 생각하는 수험생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렵게 공부하고 시험장에서 쉬운 문제를 접하면 훨씬 자신감 있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리를 이해하면 빠른 풀이법을 적재적소에 적용할 수 있고 이것은 시간을 절약하는 효과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조금 어렵게 공부하는 것이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세법 역시 강의를 통해 이론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논리까지 이해하면 암기가 훨씬 수월해지므로 강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세법은 내용을 정확히 알더라도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가령 지문이 3~4줄로 길어졌을 경우 앞의 내용이 옳다고 생각해 뒤 지문을 소홀히 읽으면 오류를 놓치기 쉽습니다. 그러니 가급적 문제를 많이 풀어 보시고 모의고사 연습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Interview_② 세무직

★ 나만의 공부 방법을 세우다

많은 합격 수기를 읽었지만 도저히 공부할 자신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계획과 실천이 저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지요. 처음에는 계획표도 만들었지만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았고 과감히 ‘나만의 스타일’로 공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선 수업을 들은 내용은 반드시 그 주에 복습을 마치겠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취침 및 기상 시간도 따로 정해 두지 않고 컨디션에 따라 움직였고요. 주로 밤늦은 시간에 공부가 잘 됐던 터라 새벽까지 공부하고 주말에 충분한 수면을 취했습니다.

물론 저와 같은 생체 리듬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방법을 무조건 따르지 말고 본인에게 알맞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11~12월은 심화 교재를 바탕으로 이론을 공부했습니다. 핵심 내용으로 골격을 잡고 세부적 내용을 이어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1~2월은 집중적으로 문제 풀이를 했고, 영어 공부도 병행했습니다. 시험 직전인 3월에는 동형 모의고사를 풀었어요. 굳이 모의고사 수업을 듣지 않더라도 반드시 정해진 시간 내에 긴장감을 가지고 모의고사를 푼다면 훨씬 정리에 효율적입니다.



★ “당신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기억하세요.”

공부를 할 때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눈물만 나왔는데 이제는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지난해 시험에 탈락했을 때 “지은 학생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항상 기억하세요.”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강사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험생에게는 열심히 공부하는 것만큼 긍정적인 생각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에게 면목이 없다고 움츠러들지 말고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가까운 미래에 가족 모두를 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또한 늦었다는 생각도 결코 하지 마세요. 시기가 짧은 길든 모든 노력은 아름답습니다. 부디 자기 자신을 아껴 주고 사랑하며 수험 기간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쟁률, 채용 인원엔 좌지우지 되지 말고 ‘내가 왜 세무직 공무원이 되어야 하는가’를 끊임없이 되새기며 동기 부여를 하세요. 온 우주가 당신의 꿈이 실현되도록 도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 한다면 기회는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 공무원이란
직업을
선택하기까지

다가올 국가직 시험을 앞두고 필기시험에 매진하고 있을 수험생들에게 학습과 향후 사전조사서 작성, 면접, 발표에 이르는 전반적인 내용을 전하려고 한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선택하기까지 스스로의 꿈과 열정을 쏟을 만한 일이 무엇인지 많은 고민을 했던 경미 씨.

공무원이 되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 3가지는 첫째, 서울에서 근무를 하고 싶다는 것. 둘째, 전공(화학)을 이용한 취직을 해야겠다는 것. 셋째, 정직하게 살고 싶다는 것이었다. 이런 생각들이 모여 공무원이 되고 싶다는 결정을 내리게 됐고 그렇게 수험 생활이 시작됐다.

경미 씨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전공을 살려 직업을 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화공직 공무원을 목표로 수험 생활을 시작했다. 그렇게 공무원에 대한 꿈을 안고 공부를 하던 중 자신에게 맞지 않는 직렬임을 깨닫고 고심 끝에 세무직으로 전환하게 됐다. 그 후 3년이란 시간이 지난 2010년 국가직 7급 세무직에 최종 합격하게 됐다.

“정말 이번에는 합격을 못 할 줄 알았습니다. 제가 채점을 잘못해서 10점 정도 낮은 점수로 알고 있었는데 합격이라는 소식을 듣고 주변 사람들이 더 많은 축하를 해 주었습니다. 잠깐의 실수로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간 느낌이었습니다.(^_^)”



★직렬 전환- 쉽지 않은 선택

직렬 전환이라는 것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 결정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경미 씨에게는 꿈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수험 생활 중 가장 힘든 시기였지만 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있었고 용기가 있었습니다. 요즘 선발 인원이 증가한 직렬에 대해 많은 수험생들이 직렬 전환과 과목을 추가해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인 만큼 충분한 검토와 준비 그리고 초심의 자세가 있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화공직에서 세무직으로 전환한 후 경미 씨는 좋은 결과를 얻었다. 하지만 오랜 수험 생활 동안 나태해지는 자신을 담금질할 수 있는 방안이 꼭 필요했다고 회상한다. 뿐만 아니라 항상 초심의 자세로 공부에 임하는 것이 가장 힘들기 때문에 뚜렷한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향을 찾는 일

직렬 전환과 오랜 수험 생활로 힘들어할 때 경미 씨에게 가장 힘이 되었던 것은 스테디였다.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수험 생활의 발목을 잡고 합격에 대한 의지가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필요했어요. 그렇게 시작한 것이 스테디였고 국어, 영어는 꾸준히 스테디를 통해 함께 공부하면서 흥미도 잃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스스로 공부하기 힘든 것들을 함께 나눠가면서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Interview_② 세무직

그리고 비전 모임을 시작하게 되면서 계획적으로 공부하는 것에 대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계획하는 법과 그 계획을 실천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던 모임이었습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공부를 계획적으로 하다 보니 능률도 많이 올랐고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도 계획과 실천에 중점을 두고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극복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할 때

경미 씨가 한 공부 이외의 활동은 주로 교회와 운동이었다.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금요 예배를 거의 빠지지 않고 나가서 힘들고 지친 마음을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수험 기간에 생기는 일로 지치거나 힘들 때마다 마음을 후련하게 털어 내고 제 스스로의 믿음으로 많은 것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거의 빠지지 않고 꾸준히 하다 보니 결국 수험 기간 동안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이 없어 더욱더 좋았습니다.”

★ 국가직 7급 세무직 면접 처음부터 끝까지

사전 조사서

1. 봉사 활동이나 남을 도와준 경험
2. 불법 행위를 한 경험
3. 달성하기 힘든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여 결과를 이루는 과정에서 갈등과 극복

**면접시험**

1. 왜 1학년과 4학년 때만 봉사 활동을 했는가?
2. 현재 하는 봉사 활동은 언제 시작했는가? 몇 시간 하는가?
3. 남을 도와준 경험이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왜 그런가?
4. 추가적인 불법 행위를 한 경험은 없는가?
5. 왜 한가지씩만 적었는가?
6. 왜 본인한테 불만을 토로했는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7. 최근에 있었던 갈등을 해결한 경험은 없는가?
8. 본인이 친구들과 갈등이 있었던 경험은 무엇인가?
9. 학교생활 하면서 동아리 같은 활동을 한 경험이 있나? 어떤 활동을 했나?

발표 - 체납액 증가를 줄이기 위한 방안

1. 체납 전담 팀의 인원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2. 국가 재정 불균형이 심화된다고 했는데, 이 자료에는 없는 것 같다. 알고 있나?
3. 인식 전환이나 체납과의 전쟁 선포와 같은 교과서적인 대안을 제시했는데 체납과의 전쟁 선포와 자발적인 참여 유도가 충돌되는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나?
4. 전담 팀 인원 확충은 어떻게 할 것인가?
5. 납세자를 보호해야 하지 않나?
6. 처벌은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7. 신고 포상 제도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합격의 설렘과 기쁨,
를 잊지 않습니다.”

2011년 부산시 지방공무원 사회복지직 9급 | 최종 합격자 전주현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사회복지사가 꿈이었던 주현 씨. 그러나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면서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을 통해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들 사이의 괴리감을 느끼고 이후 오랜 시간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한 결과 사회복지직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다.

★ 국어와
영어는
아일랜드

주현 씨는 하루에 한 과목씩 집중해 공부하고, 국어와 영어는 매일 조금씩 공부하는 방법을 택했다. 각 과목별로 균형 있게 공부하되, 전략 과목은 따로 만들지 않았다. 자칫 과락이 나올 것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 모든 과목의 점수가 고루 나올 수 있도록 노력했다.

국어는 동영상 강의를 들으면서 표준어와 맞춤법, 발음, 외래어 표기법에 중점을 두었다. 단 헛갈리는 표준어나 외래어는 수첩에 적어 틈틈이 외웠다. 문학과 비문학은 문제 풀이를 되도록 많이 풀었다. 한자는 따로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사자성어는 꼼꼼히 외웠다.

영어는 문법 위주로 공부했고, 특히 매일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것이 필수라고 조언했다. 워낙 기초가 부족해 공무원 영어 강의가 어렵게 느껴졌던 그는 토익 기초 문법 강의를 선택해 기초 지식을 공부했다. 독해도 처음 공부할 때 정답률이 매우 낮아 수능용 독해 문제집을 우선 꾸준히 풀었다.

한국사는 학교에서 제공해 주는 옛 공무원 강의를 하루에 7~8강씩 한 달 만에 완강했다. 조선사, 근대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그는 그 부분의 이론 공부를 집중했다. 이후 시험 2개월 전부터는 문제 풀이에 집중했는데, 이때 7급 기출문제까지 모두 풀어 봤다. 시험공부를 하면서 한국사 능력 검정 1급 자격증을 따기도 했다.

사회복지학은 대학에서 전공했지만 공무원 시험 과목과는 달라 공무원 수험용 이론서를 따로 마련해 정리하며 공부했다. 사회복지사 자격시험과 병행해 공부했기 때문에 자격증용 1급 문제나 공무원 시험용 문제를 가리지 않고 최대한 많이 풀어 보고, 모르는 이론 등이 나오면, 이를 정리해 가며 공부했다.

행정법 과목은 ‘반드시 최신 이론으로 공부해야 하며, 판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공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만 하루 8시간 이상 될 수 있게 노력했고, 자투리 시간을 열심히 활용했다. 잠은 매일 6시간 정도 적당한 수면을 취해 집중도를 높이고, 공부하면서 조는 일이 없도록 했다.

주현 씨는 학업과 시험 준비를 병행해야 했기 때문에 학교 수업은 3일만 수업이 있게끔 시간표를 만들었고, 이동 시간을 줄이고자 방을 독서실처럼 만들어 공부에 임했다. 시험 공고 발표 후에는 학교 수업보다 사회복지직 시험 준비에 더욱 비중을 두었다.

“시험 한 달 전에는 학원 단기 특강을 수강해 부족한 부분을 마무리했어요. 또 시험 일주일 전부터는 만들어 둔 요약 수첩을 계속 훑어보면서 아는 것을 틀리지 않도록 반복해서 암기했습니다. 오답노트를 따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틀린 문제들을 다시 한 번 체크하기도 했어요.”

장기 계획으로 시험 전 몇 달간의 목표를 세우고, 한 달 계획으로 구체적인 회독 수와 날짜별 과목을 정했다. 나아가 일주일 계획으로 요일별 공부 과목과 분량을 정하고, 매일 공부할 분량과 시간, 우선순위를 정해 일일 계획을 세웠다. 그는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계속 수정해 일정에 맞추어 진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면접시험,
기본적인 양기
사항 숙지

그는 면접 질문 유형을 개인·인성·사례형·전공·사회 이슈·지역 현안으로 분류하여 자료를 조사하고 모범 답안을 만들어 공부했다.

“다른 면접자들과는 차별화될 만한 답변을 준비할 수 있게 노력했습니다. 외국 사례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떨까라는 나름대로의 아이디어를 많이 내봤습니다. 하지만 면접시간이 생각보다 짧고 예상 질문도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개인 면접 시간은 약 15분 정도로, 기본적인 개인 인성 질문 이외에 사례형 질문은 ▲상사와 갈등이 생겼을 때의 해결 방향, ▲동료의 비리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전공 관련 질문은 ▲지역 내 자활센터와 관련된 질문 등이 있었다. 더불어 사례형 질문에서는 압박형 질문이 있었다고 전했다.

“면접의 1분 자기소개는 반드시 외워서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긴장한 상태에서는 말을 더듬거나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또 예상 질문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대답하지 말고 조금 생각한 뒤 대답해야 합니다. 이 외에는 자신의 집 새 주소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숙지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 때로는
마음의 휴식이
필수

주현 씨는 수험 생활 중반기에 슬럼프를 겪었다. 시험 삼아 본 4, 5월 일 반행정직 시험이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았던 것. 또한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도 점수 상승세를 보이지 않는 것이 힘들었다고 전했다.

“학기 중에 학교 공부와 공무원 공부를 병행하느라 정신없었는데, 막상 방학을 하고 난 뒤 여유로운 친구들과 달리 공부만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이고 우울해지더군요. 슬럼프가 오래 이어지면서 이대론 안 되겠다 싶어 5일 정도 혼자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동안 받은 스트레스도 떨치고, 새로운 에너지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현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힘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슬럼프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지만 분명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힘들어도 합격 후의 모습을 상상하며 견디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상투적이지만 나는 합격할 수 있다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생각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완벽한 확신을 가질 때 운도, 기회도, 사람도, 세상도 자신의 편이 될 것입니다.”

★ 합격 문자를
받을 때의
설렘과 기쁨

“공무원은 세 부류로 나뉜다고 합니다. 꼭 필요한 공무원, 있으나마나한 공무원, 있으면 해가 되는 공무원. 저는 꼭 필요한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공부하면서 힘들었던 만큼, 그리고 합격해서 기뻐했던 만큼,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신 만큼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다고 꼭 인사하고 싶은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해 준 친구들, 선생님들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특히 항상 딸을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아버지 전홍수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말로 하기엔 쑥스러워 이렇게나마 전하고 싶습니다.

합격 문자를 받고 임용식을 하고 공무원증을 받고 첫 월급을 받았을 때. 그때의 설렘과 기쁨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좋은 공무원이
목표입니다.”

2011년 경북 지방공무원 사회복지직 9급 | 최종 합격자 김경하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면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일부 대상만이 아닌 보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보탬이 되고 싶었어요. 또 제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난 뒤 뿌듯해 하실 부모님을 상상하니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 국어와
영어는
스터디로

경하 씨는 시험 과목 가운데 국어와 영어 등 언어 공부는 스터디로 공부하는 방법을 적극 권했다.

“저는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 돌려 푸는 스터디를 했는데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언어는 매일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스터디를 하면 일정 진도를 맞춰 나갈 수 있고 본인의 의지가 약해지는 것도 막을 수 있어요.”

문학은 기본서의 주요 내용을 위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공부했다. 또한 학원의 아침 무료 특강을 통해 지문에 나오는 문제를 익혔다고.

“비문학은 요점만 짚어 내서 읽을 수 있어야 하는데, 처음에는 그런 요령이 없었어요. 그런데 영어 공부를 하면서 끊어 읽기를 익히다 보니 긴 지문도 쉽게 읽게 됐습니다. 또 저는 한자 문제가 일종의 득점 문제가 됐는데, 한자가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어는 기본서와 단어 스테디를 통해 공부했다. 독해는 지문을 읽는 데 어려움을 느껴 교재와 함께 강의를 들었는데, 이후 꾸준한 복습을 통해 비문의 주요 부분을 구분할 수 있게 됐다고. 또한 기초 학습 후에는 스스로 독해 문제를 매일 5개 정도씩 꾸준히 공부했다. 문법은 강의를 한 번 듣고 난 뒤 기출문제의 주요 문법 문제를 반복했다.

“영어는 어떤 강의, 어떤 교재를 선택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험 전날까지 손을 놓지 않고 직접 문제를 풀고, 감을 익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국사는 처음 선택한 교재가 자신과 잘 맞지 않았다. 때문에 또 다른 교재를 함께 병행해 자신에게 맞는 부분만을 보완해 가며 공부했다.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는 나만의 서브노트를 만들어 모든 내용을 단권화했는데 이를 시험 전까지 계속 회독했다. 만드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그만큼 머릿속에 오래 남았다고.

행정법은 귀에 익숙해질 때까지 듣고 회독 수를 늘렸다. 이때 모르는 부분과 아는 부분을 확실히 구분해 가며 자신이 틀린 부분과 반복적으로 틀리는 부분을 체크했다. 이렇게 여러 번 체크된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실히 알 수 있게끔 암기했다.

사회복지학은 교재와 강의로 주로 공부한 뒤 문제 풀이 강의를 들으면서 기본서를 꾸준히 회독했다. 단 지엽적인 부분이나 너무 어려운 곳은 제외하는 대신, 문제 출제가 많이 이뤄지는 곳은 절대 틀리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고. 그는 특히 ‘전공자는 방심하기 쉬우므로 거만한 마음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 나에게
맞는 공부법이
최선

“공부는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효율적일 테지만 저와는 잘 맞지 않았어요. 아무리 좋은 계획이나 좋은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에게 부담이 되고 힘이 든다면 따르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 바쁜 일상
속에도 읽지
않은 '여유'

“필기시험 발표 후 잠시 휴식을 취하고 난 뒤에 바로 면접 스터디 조원을 만났어요. 그분들과 상의를 하면서 면접을 준비했는데, 초기에는 자신의 지역에 대한 행정 정보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정책 내용, 인성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했지요.”

이처럼 답변을 준비하면서 내용을 암기한 뒤에는 말하는 태도와 속도, 표정 등 면접시험 자세를 연습했다. 스터디의 모의 면접 연습이 실제 면접에서도 많이 도움이 됐다고.

경하 씨는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는 과감하게 펜을 놓았다. 공부가 잘 되지 않는 날은 영화를 감상하거나 잠을 푹 자는 등 몸을 충분히 쉬는 것을 우선으로 했다.

“울고 싶을 때는 참지 않고 펍펍 울기도 했어요. 울고 나면 기분이 조금은 활가분해지는 느낌이었던데요. 또 연예 오락 프로그램을 보면서 일부러라도 많이 웃어서 기운을 차렸지요.”

시험에 합격한 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그이지만, 수험생들에게는 보다 여유를 갖고 공부를 할 것을 권했다.

“공부를 새로 시작하는 사람은 정말 많습니다. 남들보다 자신이 조금 늦게 시작했다고 도태됐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또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꼭 쉬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이란 완벽하게 전부 다 알 수는 없는 법이니 스스로를 힘들게 하지는 마시고요. 또한 공무원을 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학습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좋은
공무원이
될게요.”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곁에 있어 준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저를 끝까지 믿어 준 남자 친구와 우리 부모님, 동생,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남자 친구는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저를 믿어 주고 또 동기 부여도 해 주면서 힘내라고 말해 줘서 고마웠어요. 공부하면서 외롭고 겁날 때도 항상 우리 가족이 제 옆에 함께해 줘서 의지가 많이 됐습니다.

20대의 대부분을 공부만 하며 지내면서 힘든 수험 생활을 보냈지만,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행복을 느끼던 그 시간들을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스터디 조원분들과 선생님, 저를 걱정해 주고 조언해 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좋은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긍정과 자신감, 좋은 결과를 부르는 주문

2011년 충북 지방공무원 사회복지직 9급 | 최종 합격자 최서인

전공이 이공계열인 그가 사회복지를 선택하게 된 동기는 아버지 친구분의 영향으로 사회복지를 접하게 되면서였다. 하지만 처음 사회복지를 공부할 때는 ‘남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이 과연 나에게도 생길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다고

“이기적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스스로 봉사 활동을 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사회복지라는 분야에 정이 들었고, 봉사 활동을 하면서 남들과 함께하는 삶이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울 수 있다고 진심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 과목별 문제 풀이와 스터디 적극 활용

서인 씨는 모든 과목에서 골고루 점수를 얻기 위해 일주일 안에 모든 과목을 공부하는 것을 학습 목표로 잡았다. 대신 전략 과목으로 두 과목을 정해 난도와 상관없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에 각 과목별로 학습법을 달리 했는데 국어는 어문 규정, 한자, 비문학, 문학 등으로 잘게 쪼개 공부했고, 문제집을 푸는 한편 스터디를 적극 활용했다.

한국사는 특정 포인트가 있고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커다란 흐름을 파악하는 것을 우선시했다. 가급적 기본을 충실히 하면서 기본 강의

를 들은 후에는 나만의 노트를 작성해 문제를 많이 풀어 보고 이를 암기했다.

영어는 서인 씨에게 가장 어려운 과목이었기 때문에 새벽 특강을 자주 이용하는 등, 영어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매일 노력했다. 자신 없는 어문을 제외한 문법과 독해에서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실력을 쌓고, 문제집과 모의고사 등을 풀었다.

행정법은 전 범위의 포인트를 놓치지 않기 위해 기본 강의를 많이 들었다. 복습할 때 진도별 문제집을 빼놓지 않고 풀었는데, 이 문제집을 다시 풀면서 책에 표시하는 방법을 활용했다. 조문과 판례는 스터디를 통해 외웠다고.

사회복지학은 방대한 범위 안의 핵심 포인트를 먼저 습득한 후 세세한 부분을 공부했다. 문제집도 되도록 많이 풀고, 스터디를 통해 과목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서 암기도 함께 했다.

“수험 기간 동안 강의를 많이 들은 편이었는데, 저는 강의를 자주 들수록 선생님의 말이 잘 외워지고, 홀로 공부하는 것보다 몇 배는 더 집중이 되었거든요. 기본 이론을 꼼꼼히 다지는 것은 물론 문제 풀이도 많이 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수험 일정은 계획적으로

“수험 공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몸 상태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잠은 평소에 부족하지 않을 만큼 자고 시험 4달 전부터 힘을 쏟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는 1년을 두 달씩 묶어 그 기간 안에 5과목을 모두 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는 두 달 안에 모든 과목을 보는 것이 시간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국어, 영어, 한국사를 먼저 시작했고, 3과목의 기초를 모두 잡은 후에야 다른 과목을 준비했다.



“과목별 시작 시기는 달랐지만, 그 후부터는 다섯 과목을 모두 보도록 했습니다. 또 세세하게 공부하면서 시간을 끄는 것보다 모든 과목의 포인트와 큰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 일정이 밀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획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가져 계획에는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정했지요.”

시험 두 달 전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문제집을 활용해 전체 모의고사를 봤다. 그 후에는 시험지에서 틀린 것만 체크해 시간을 절약했다. 이때 이론서보다는 요약집이나 자신이 정리한 노트 등을 활용해 최종 복습을 했다.

시험 한 달 전에는 일주일에 두 번 이상 전체 모의고사를 보고, 틀린 부분만 빠르게 체크해 부족한 암기를 채웠다. 마지막으로 시험 일주일 전에는 전체 모의고사를 매일 풀어 문제를 시간 안에 빨리 푸는 감각을 익히고자 노력했다.

서인 씨의 수험 기간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시작해 2011년 12월까지 정확히 2년이 걸렸다. 처음 수험 생활을 시작하던 2010년에는 2011년 지방직을 목표로 했지만 면접에서 고배를 마셨다.

“면접에서 떨어졌을 때 충격이 컸어요. 필기시험에 떨어졌다면 자신의 게으름이나 부족한 공부량을 탓할 수 있었겠지만, 면접은 자신을 테스트 받는 시험이잖아요. 너무 힘들어 7, 8월에는 지방에 내려가 가족과 여행도 가고 봉사 활동을 하면서 마음을 추슬렀습니다.”

그러나 공부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쉬는 동안에도 모의고사를 꼬박 풀었다. 덕분에 그는 합격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시험에 떨어졌다고 마냥 쉬거나 놀지 말고 바로 심기일전해 공부를 계속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조언했다.

★ 면접, 진지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임해야

이후 사회복지 필기시험 결과가 발표된 후 바로 면접 스터디를 구성했다. 그리고 약 2주간은 첫인사와 웃는 연습을 함과 동시에 면접 자료를 정리하고 암기하는 것에 치중했다. 특히 면접 질문을 전공 질문, 인성 질문, 상황 질문으로 나누어 연습했다.

“제가 지난해 5월 지방직에서 떨어진 것도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쁜 결과를 얻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필기시험에 붙더라도 자만하지 말고 진지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면접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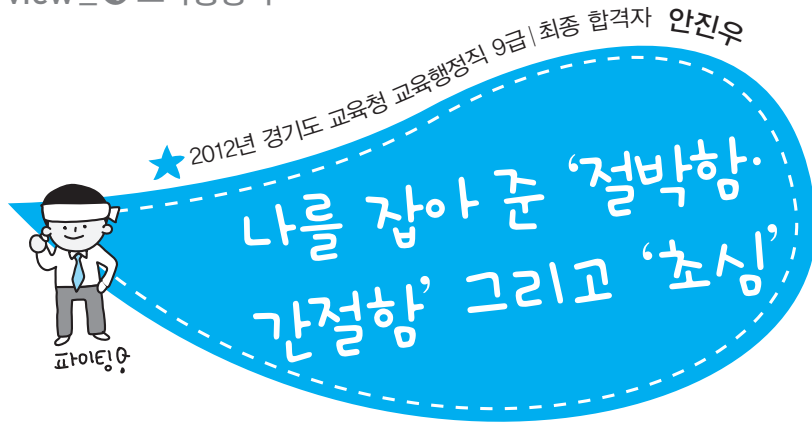
또 자료를 정리하는 것보다 실제 연습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면접은 머리로 이해한 뒤 그것을 말로 풀이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제 면접은 약 10분간 진행됐는데, 그가 시험을 본 충북은 제출한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질문을 많이 했다고 한다.

“봉사 활동에 관련한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느낀 점부터 개선 사항까지 세세하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또 공무원의 비리 문제나 공무원의 권위 의식과 관련된 질문 등 공무원이 가져야 할 윤리 등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파악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전공 관련 질문도 있었구요.”

그는 수험생들이 갖추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로 성실함을 꼽았다.

“자기가 꼭 해야 하는 것은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실함을 갖기 위해서는 절실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제인 에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눈을 감고 귀를 막은 채 떠내려가면 바로 가까이의 강 바닥에 솟아 있는 바위와 파도 등을 보지 못한 채 그 바위에 부딪쳐 산산히 부서질 것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수험기간 내내 그 내용을 상상하면서 힘을 냈어요. 눈을 부릅뜨고 어려움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힘든 수험 생활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롭고 힘든 길이지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자만심이 아닌 자신감으로 공부한다면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로 근무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진우 씨는 어렸을 적부터 공무원에 대한 꿈을 키웠다. 대학 진학 후 응시할 직렬을 알아보던 중 우연히 교육행정직에 대해 알게 됐다고.

“원래 교육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사는 지역의 교육지원청에 방문해 실무자분과 면담을 해 봤는데요, 교육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을 느꼈지요. 더구나 합격하게 되면 제 전공인 행정과 세무를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지원 요인이 됐습니다.”

★ 틀린 문장은
옳게 적으며
모두 양기

응시 시험 및 직렬을 정한 후 진우 씨는 본격적으로 과목별 공부에 돌입했다.

우선 국어는 어문 규정을 먼저 정리하고자 기본서의 이론과 모든 문제를 반복했다고. 비문학은 시험 3개월 전부터 문제를 풀며 연습했고, 문학은 시험 한 달 전부터 기본서에 있는 작품의 주제와 표현법을 익혔다. 영어는 매일 단어를 외우고 독해 문제를 10개 정도 풀 후 한 시간씩 영문법 공부를 했다.

“국어와 영어 외 과목은 하루에 한 과목씩 공부를 했어요. 처음에는 기본서 회독에 중점을 두고 과목 당 1회독 기간을 초반 이틀에서 하루로 줄여갔습니다.”



이렇게 기본서 회독으로 이론을 다진 진우 씨는 본격적으로 문제집을 풀었다. 틀린 문제는 기본서에서 해당 부분을 찾아 다시 확인했고, 틀린 문제와 원래 정답을 모두 연습장에 옮겨 적으며 문장을 통째로 외웠다고. 그는 “나중에 외운 문장들을 하나씩 지우다 보니 시험 직전에는 몇 문장 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_^)”라고 말했다.

강의를 수강할 때도 진우 씨는 직접 샘플 강의를 다 들은 후 강사와 상담을 통해 강의를 결정했다. 또한 심화 단과 두 달 과정을 두 과목씩 들었다고 한다.

“6개월 동안 국어, 한국사, 행정법 아침 특강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것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엽적인 것은 과감히 버리고 아는 것만 큼은 확실하게 알고 시험장에 가자는 각오로 공부에 임했습니다.”

★공부는
시간이 아닌
집중력

진우 씨는 수험 계획을 세우며 ‘책상에 몇 시간을 앉아 있느냐’가 아닌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는가’를 우선시 했다.

“두 과목씩 단과 수업을 들을 때는 그 강의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두 과목을 들을 때는 이전에 배운 과목들의 흐름을 잃지 않도록 복습했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평일 계획대로 공부하고, 일요일에는 아침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 부족했던 과목을 보충하거나 모의고사를 풀었습니다. 공부 시간은 14시간으로 예상하고 최소 12~13시간은 책을 봤고요.”

이와 함께 그는 ‘자투리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 아침 이동 시간에 영어 단어와 한자를 암기한 뒤 학원에 도착해서 특강을 들었다. 심지어 화장실에 가거나 양치를 할 때도 메모장을 들고 갔다고. 이렇게 공부를 하며 이론 수업이 모두 종료된 후에는 하루에 한 과목을 목표로 기본서와 문제집을 회독했다.



“처음 3개월은 ‘1시간 집중-10분 쉬기’, 그 후 3개월은 ‘1시간 30분 집중-5분 쉬기’로 공부했어요. 시험 2개월 전에는 ‘2시간 집중-5분 쉬기’로 공부 시간을 늘렸습니다. 이때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보다 얼마나 집중하느냐가 관건이라는 점 명심하세요.”

★어머니의
에요, 슬럼프를
이기게 해 주다

이렇듯 촘촘하게 하루 계획을 세워 공부를 했던 진우 씨에게도 슬럼프는 피할 수 없는 관문이었다. 학원에 아는 사람도 없고 핸드폰도 없었던 터라 더욱 외로움을 느꼈다고.

“우선 수험 생활을 시작할 때 친한 지인 4명을 일주일에 한 명씩 번갈아가며 만났어요. 맛있는 것도 먹고 스트레스도 풀었고요. 공부가 안 될 때는 강사님을 찾아가서 문제점을 진단받고 조언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감정적으로 힘든 시기가 오더군요. 그럴 땐 친구들을 찾아가 이야기하며 울기도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에는 잠을 푹 자고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슬럼프를 이기던 진우 씨에게 큰 힘이 되어준 존재는 다름 아닌 어머니였다. 아들의 슬럼프를 눈치 챈 어머니께서 도시락에 ‘때론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올 때도 있고 한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것이 막히는 것 같을 때도 있지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는 것이다. 자랑스러운 진우는 다시 일어설 줄 믿는다. 조금만 더 힘내자!’라고 쪽지를 남겨 놓으신 것. 그는 “어머니의 사랑이 수험 기간의 슬럼프를 이길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라고 회고했다.

★내가
면접관이라면
무엇을 물어볼
것인가?

진우 씨는 면접시험 준비를 위해 스터디를 조직하고 자료를 모았다. 이후 일주일에 세 번씩 모여 모의 면접을 시행했는데 그는 집에서든 면접 연습을 했다고. 또한 매일 6시간씩 독서실 휴게실 거울을 보며 말하는 연습을 했고 이를 통해 표정과 발음을 교정했다.

“객관식 시험에 익숙해지다 보니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잘 표현이 안 되더군요. 직접 말하며 입으로 연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신이 면접관이라 생각하고 ‘과연 나에게 무엇을 물어볼 것인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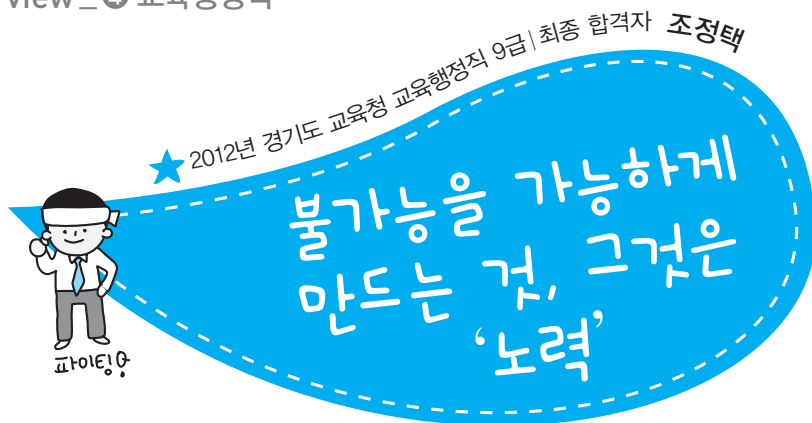
★수험 생활의 초심으로 돌아가자

“시험은 전략적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과목을 정해서 공부하세요. 수험 기간을 돌이켜 보니 정말 치열하게 살았던 기간이었습니다. 새벽 지하철에서 일부러 서서 공부하고, 혼자 밥을 먹으며 책을 친구 삼았던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를 잡아준 것은 절박함과 간절함 그리고 초심을 잃지 말자는 다짐이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수험생 여러분들, 처음에 자신이 수험생활을 시작했을 때의 다짐을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해 원하는 시험에 합격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새벽마다 따뜻한 아침밥을 차려 주시고 기도로 응원해 주신 부모님, 합격으로 절 이끌어 주신 강사님들께 감사합니다. 슬럼프가 오지 않게 도와준 가연이, 유진이, 보아 누나, 진희 누나도 너무 고마워요. 학원까지 와서 응원해 준 다혜, 화수, 성국이, 국보, 승현이, 서운이 형, 효석이 형, 민혁이, 태영이, 영남이 그리고 항상 티격태격하지만 가장 잘 챙겨주는 승민이 형 고마워요. 또한 제 롤 모델이자 멘토이신 이우민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수험 기간 동안 쓰러지지 않게 옆에서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정택 씨는 2학년까지 진로에 대해 특별히 고민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군대에 입대한 뒤 이른바 ‘작은 사회’를 경험하게 되면서 그동안 소홀히 보낸 시간들을 반성하게 됐다고.

“군에 있을 때 저보다 더 나이 많은 형들이 자신들의 꿈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을 보고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하면 나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마음먹게 되었어요. 그래서 꾸준히 운동도 하고 수능 영어 단어장을 5종류 넘게 외웠는데, 이때 영어 어휘를 미리 공부했던 것이 나중에 시험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됐지요.”

★작은 것부터 목표 이루기

제대 후 재수 학원을 등록했지만, 학교 규정상 군 전역 후에는 바로 휴학이 불가능했기에 복학을 하게 된 정택 씨. 대신 그는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목표에 도전했다. 컴활 1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학교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는 등, 목표한 바를 이루면서 성취감을 얻을 수 있었다.

“작은 것부터 목표를 이루면서 자존감도 높아지고, ‘나는 노력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3학년 때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본 결과 취직보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고, 교육행정직이 일반행정직보다는 근무 시간도 균일하고 자기 개발 시간이 많은 편이라고 들어서 교육행정직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맞는 공부
방법이 최선

그는 수험 생활 초반에는 학원 종합반 수업을 2달 정도 들었으나 자신과 잘 맞지 않다고 생각해 독서실에 다니기 시작했다. 이후 주말에 3~4시간 씩 교회에 가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공부에 집중했다고.

“저는 새벽까지 공부하고 오전 늦은 시간까지 잤는데, 보통 8시간 정도 숙면을 취했어요. 잠을 줄인다든가 좀 더 일찍 일어나려고도 해 봤지만 피곤해서 공부에 집중할 수 없다는 것은 큰 손해였어요. 사람마다 공부 방법이 다르겠지만 저에게는 이런 방법이 잘 맞았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지요. 자신에게 잘 맞는 공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그는 공부하면서 모르는 용어나 개념은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공부를 했다.

“다른 사람들에게겐 공부에 방해가 될 수도 있지만 전 모르는 것은 바로 알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했거든요. 인터넷으로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고, 헛갈리는 것도 바로 확인하는 용도로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는 국어의 표준어 규정이나 영어 독해는 매일 공부하고 5과목을 하루에 한 과목씩 공부했다. 주말에는 평일에 공부하면서 부족하다고 느낀 부분이나 진로가 늦춰진 부분을 보충했다고.

“공부를 즐기면서 하자는 생각을 늘 했어요. 저는 늦게 시작한 공부에서 새로운 것을 깨닫는 재미를 느끼게 됐죠. 대신 얼마나 오래 공부했는가 보다는 얼마나 집중해서 공부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시험 준비는
전략적으로

“저는 시간이 없어서 문제 풀이 전 기본서를 2회독만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정답이었어요. 2회독 밖에 못한 대신 한 번 기본서를 볼 때 꼼꼼하게 공부했는데, 모든 과목 1회독 하는 데 네 달이 걸렸습니다. 이후 한 달 동안 1회독을 더 하고 바로 기출문제 풀이로 넘어갔습니다.”



기본서로 틀을 잡고 문제 풀이로 이론 정리에 나선 그는 단원별 기출문제 → 연도별 기출문제 → 모의고사 순으로 문제 풀이에 임했다. 그는 문제 풀이에서는 기출문제 풀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 좋은 문제를 고르는 안목이 생기고 출제 패턴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고 조언했다.

“교육행정직은 교육학이 어렵게 출제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행정직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를 살펴보거나 내가 출제자라면 어떻게 문제를 낼 것인지 생각해 보기도 하면서 준비한 것이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그는 기출문제 풀이 외에 모의고사에서는 참신한 문제, 새로운 출제 유형 등을 골라 정리하는 방법을 썼다. 이처럼 시험 특성에 맞게 전략적으로 준비한 것이 하나의 비법이라고.

“문제 풀이를 마치고 마무리로 기본서를 읽었습니다. 처음엔 아무리 꼼꼼하게 기본서를 읽었더라도 문제 풀이를 한 뒤에는 기본서를 보는 시야가 달라지더군요. 어느 부분에서 출제될지 출제자의 의도가 보이니까 암기도 더 잘되고, 미처 몰랐던 부분도 다시 익힐 수 있었어요.”

★‘많이’
아는 것보다
‘확실하게’
아는 것이 중요

그는 공부할 때 주의해야 할 점으로 ‘모르는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해 넘어가는 것’을 꼽았다.

“학원 강의를 듣거나 기본서를 볼 때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도 막상 남에게 설명하려고 하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 문제는 문제를 헛갈리도록 출제하기 때문에 하나를 알더라도 확실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설프게 아는 것은 오히려 모르는 것보다 못합니다. 면접에서도 이론에 대한 질문이 나오므로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도 꼼꼼히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면접시험에 출제된 문제는 교육학 이론 질문과 시사 상식에 대한 질문이 대부분이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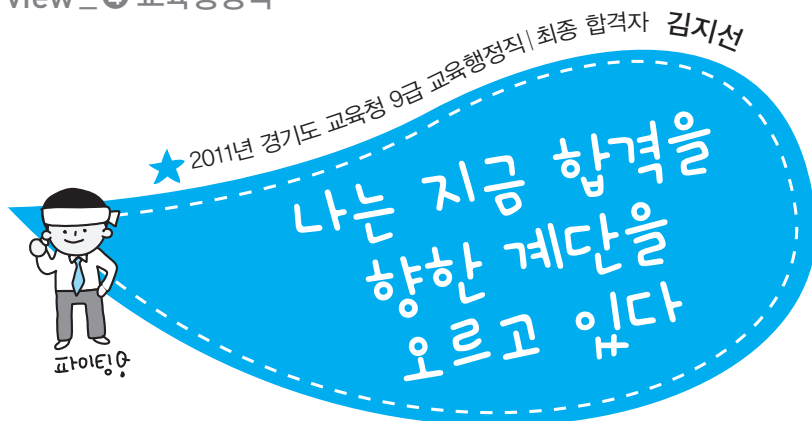
“면접은 형식적이라고 느낄 정도로 전형적인 질문이었어요. 일행직과의 변별력을 위해 교육학 지식 위주로 물어보는 것이 교행직의 특징이다 보니, 교육학 이론 관련 질문이 많았습니다. 단 자기가 아는 것은 확실하게 대답하고 모르는 것은 솔직하게 대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밖에 정택 씨는 수험생들에게 확고한 목표 의식을 가질 것을 조언했다.

“수험기간은 길게 잡지 말고 되도록 짧게 잡아서 자신을 극한으로 몰아넣는 것도 좋습니다. 너무 길면 자기 자신에게 관대해지기 쉽거든요. 저는 수험 기간 동안 하루가 부족하다고 느낀 경우가 많았어요. 수험 기간이 워낙 짧아서인지 슬럼프도 오지 않았고요. 불안감이야 당연히 있었지만, 자신감을 갖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했지요. 목표 의식을 확실히 하고 노력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저를 믿어 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앞으로 글로벌 시대니까 영어 회화 공부도 하고 음악이나 운동 등 관심 있는 분야의 자기 개발을 하면서 알찬 인생을 만들고 싶습니다.”





힘들고 괴로운 지금 이 순간들도 시험 합격 후 돌이켜 보면 모두 좋은 추억으로 남습니다. ‘나 말고 누가 합격할 수 있겠어?’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내년 바로 이 순간, 최고의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 **교원임용
시험에서
9급 교육청
시험으로 전환**

올해 경기도 교육청 시험에 최종 합격한 지선 씨는 임용고시를 준비하던 수험생이었다. 그러던 중 지난 2008년 교원임용 시험의 평가 방식이 바뀌었고 지선 씨는 계획을 수정해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기로 결정했다.

“주변 친구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많이 했어요. 합격한 친구들도 많았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주변에도 알리지 않은 채 혼자 시험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국어와 교육학을 전공했지만 두 시험의 출제 경향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강의를 들으며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나갔다고. 우선 국어 과목은 강의와 기본서를 바탕으로 공부했다. 문법을 특히 좋아해 자신에게 맞는 강사의 교재와 강의를 찾아 효율성을 높였다.

다른 수험생들처럼 지선 씨에게도 영어 과목은 매우 어렵게 느껴졌다. 지난 2009년 서울시 교육청 시험에서 55점의 점수를 받고 좌절했던 지선 씨는 지난해 공부를 다시 시작하며 공부 방법에도 변화를 줬다고. 우선 스터디를 조직하고, 어휘집을 교재로 매일 단어 시험을 치렀다.



“처음 구입했던 어휘집은 단어 배열이 a, b, c 순으로 돼 있었습니다. 저에게 약간 맞지 않는 방식이라고 판단해 배열 방식이 다른 책을 구해 공부했지요. 이렇게 한 과목의 교재라 해도 자신의 공부 방법과 알맞은 교재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법은 강의를 들으며 정리했지만 이론만 알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 문제집을 여러 권 풀며 이론을 적용하는 연습을 했다. 독해는 단기간에 실력을 키우기 어려우므로 매일 5문제를 풀었다고. 문제를 풀다 이상한 문제가 나오면 독해 노트를 따로 만들어 문장 연습을 했는데 지선 씨는 이러한 방법이 ‘문장을 제대로 볼 수 있는’ 효과를 불러 왔다고 회상했다.

지선 씨에게 가장 어렵게 느껴졌던 또 하나의 과목은 바로 행정법이었다. 법 과목에 흥미가 없었고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무슨 내용인지 이해조차 되지 않았던 것. 그러나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강의와 문제 풀이를 병행하며 차츰차츰 실력을 키울 수 있었다.

★수험 생활의
가장 큰 적은
‘외로움’과
‘우울함’

지선 씨의 수험 계획은 크게 2010년, 2011년으로 나뉜다. 우선 2010년 수험 공부 기간에는 하루에 국어, 영어, 한국사를 매일 공부했고 교육학과 행정법 과목을 격일로 봤다고. 그러나 그해 시험에서 행정법의 점수가 너무 좋지 않자 방법을 바꿔 올해부터는 국어, 영어, 행정법 과목을 매일 공부했다. 그 후 교육학과 한국사는 격일로 책을 봤다고 밝혔다.

“하루 계획을 구성하며 공부했습니다. 목표한 만큼 공부를 마무리 하지 못하면 집에서라도 꼭 책을 다 보며 계획을 채워 갔지요. 일주일이나 한 달 단위로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는데 매일 계획을 세우며 새롭게 공부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공부를 해 오던 지선 씨에게도 슬럼프는 피할 수 없는 관문이 있었다. 그는 수험 기간에 만나는 가장 큰 적은 ‘외로움’과 ‘우울함’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이를 이겨내기 위해 일부러 스터디를 구성해 여러 사람들과 교류를 했고 공부 후 함께 밥을 먹으며 스트레스를 풀었고 슬럼프도 이겨낼 수 있었다고.



“시간이 지나면서 함께 공부하는 언니들과 좋아하는 커피 한 잔을 하며 긴장을 풀고 스트레스를 해소했습니다. 가장 걱정했던 외로움과 불안감을 이겨낼 수 있어서인지 오히려 능률이 올라 공부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슬럼프를 극복한 지선 씨는 수험 기간 내내 ‘자신감’을 잃지 않는 것 또한 중요했다고 말했다. ‘나는 반드시 합격할 수 있다.’라는 다짐을 내내 이어 갔고 특히 올해 안에 꼭 합격해야 한다는 각오로 공부에 임했다고. 그리고 시험 전날 충분한 수면과 필기시험 직전 작은 초콜릿 한 조각이 긴장을 푸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회상했다.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치러지는 면접시험은 지선 씨에게는 누구에게보다 큰 의미였다. 지난 2010년 경기도 교육청 면접시험에서 탈락한 것 때문에 올해 면접시험 대비에 더욱 정성과 노력을 기울였다고.

★최종 합격자
명단에서
제 이름을
발견한 순간

“지난해 경기도행 최종 점수를 확인해 보니 정확히 컷라인이었습니다.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지요. 만약 높은 점수를 받고도 면접시험에서 탈락했다면 참을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울고 우울감도 느꼈지만 며칠 후 바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올해 면접시험은 바로 스터디를 구해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면접 강의와 책을 구해 기출문제를 살펴보았지요. 면접시험 전날에는 아버지와 함께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며 최종 연습을 했는데 다행히 시험에 예상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많이 떨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는데 좋은 결과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최종 합격자 명단에서 제 이름을 발견한 순간 너무 기뻐 환호성을 질렀던 기억이 나네요.(^_^)”



★지금
이 순간을
좋은 추억으로
만들기 위해

면접시험 합격 후 열심히 연수를 받고 있는 지선 씨는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자신을 믿어 준 가족에게 고마운 마음뿐이라고, 매일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 주신 어머니, 도서관까지 바래다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 왔다. 그리고 힘든 공부 탓에 짜증을 부려도 묵묵히 옆에서 자신을 지켜 주고 걱정해 준 비타민 같은 남자 친구에게도 고맙다는 마음을 표현했다.

“수험 생활에서 가장 힘든 사람은 수험생 본인입니다. 힘든 순간에 부딪힐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합격을 향한 계단에 오르고 있다.’라고요. 너무 괴롭고 힘들어도 시험에 합격하면 모두 좋은 추억으로 남습니다. 반드시 합격해서 제가 느끼는 이 행복함을 여러분들도 느끼시길 바랍니다.”





Interview_ ⑤ 소방직

2011년 경북 소방공무원 제한경쟁 구급분야 | 최종 합격자 김재광



용감한도전



★국민의
생명재산을
지키며 봉사
할수 있는 직업
'소방공무원'

★슈퍼맨이었던
지난날

소방공무원의 꿈을 꾸게 된 것은,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평생 봉사하며 일하고자 한다면 소방공무원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다짐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소방공무원이 되는 길이 다른 수험생들보다 더욱 멀고 험난했지만 끝까지 참고 기다렸습니다. 저의 노력을 하늘도 알아 줄 것이라 생각했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한다면 결국 저도 합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합격 수기를 읽고 계신 수험생 여러분들 중 직장과 수험 생활을 병행하는 분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를 병행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길이고 자칫 수험 생활이 길어지다 보면 몸과 마음 모두 지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슈퍼맨이 되지 않고서는 결코 생활을 유지하기가 힘이 드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퇴근 후 병원 앞 독서실에서 평균 5시간 공부, 주말에는 집 앞 독서실에서 10시간씩 공부를 꾸준히 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폭 쉬며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꼬박 2년을 견뎌냈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연접 그리고
체력 시험
준비 tip

그 시절을 회상해 보면, 저는 제 자신이 슈퍼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앞을 향해 달리며 지난날을 추억하기 위해 내일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꾸준한 학습만이 합격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소방 시험에 필수적인 체력 시험을 대충 준비한다는 생각은 버리고 전략적으로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체력이 약한 분이라면 체력을 코칭하는 학원을 통해 조언을 받고 대비를 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최종에서 불합격한 뒤 6개월간 꾸준히 대비했습니다. 노력과 전략적인 대비가 있다면 능률은 더 빠르게 상승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면접시험은 스테디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스테디에서는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공부할 수 있으며 서로의 장·단점을 수정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원하는 지역의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인구, 면적, 도정, 캐릭터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점검해야 하고 특히 가장 많이 질문하는 공무원의 6대 의무 등은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소방공무원
공★은
이루어진다

저는 올해 나이 33세로 구급분야에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남들은 구급분야에 쉽게 들어간다고 말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의 최종 합격까지의 과정을 이야기하자면, 20살 때 전자과에 98학번으로 입학했습니다.

2003년 25세로 대학을 졸업했을 때 인생의 새로운 목표를 정했고 2004년 공채를 준비하기 위해 가산점 5점을 확보하면서부터 수험 생활은 시작됐습니다.

Interview_⑤ 소방직

저는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 수험생들처럼 소방 공채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씩 공부하는 주위의 수험생들을 보며, 공부를 잠시 접고 일단 취업을 해 '구급분야 특별 채용을 노리자.'고 목표를 수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응급구조사 2급을 취득했고 병원 근무와 이송 업체에서 근무를 하면서 틈틈이 다시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후 특별 채용을 위해 2007년에는 27세의 나이로 응급구조학과에 입학하게 됐고 재학 중 병원 3년 경력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해 결국 응급구조사 1급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동안은 학교 공부와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 취득을 위해 시험 준비를 잠시 내려놓았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 후 다시 공부에 집중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때는 벌써 2010년이었습니다. 그해에 응급구조학과를 졸업하였고, 저는 32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일한 불합격생, 위기의 순간

그 후 저에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시험은 그리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필기시험은 통과했지만 수술로 인한 체력 시험 준비 부족으로 결국 18명 모집에 19명이 합격한 상황에서 유일한 한 명으로 불합격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위기의 순간이었고 한동안 좌절감으로 병원 일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해가 흘러 2011년 33세, 이제는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병원 생활을 접고 학습과 체력 시험 준비를 병행하여 결국 최종 합격했습니다.



★ 포기는
절대로
안 되는 것

이렇게 저는 오랜 시간 꿈을 위해서 싸워왔고 노력했습니다. 위의 내용을 나열한 것은 소방공무원에 목표를 두신 분이라면 나이와 시기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가능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목표로 가는 과정이 쉽고 빨라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합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포기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앞만 보고 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소방공무원 분들 또한 합격하기까지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험생 여러분도 소신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면 결국 합격이라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재 진압, 운전, 통신, 전산, 구조, 구급 모두 다 119 소방가족입니다.

아직도 부족해서 앞으로도 배우고 공부할 게 많은 저를 믿고 격려해 주신 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부모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험생 여러분! 최종 합격하여 현장에서 땀은 그날까지 힘내시기 바랍니다.

Interview_ ⑤ 소방직

2011년 경기도 소방공무원 | 최종 합격자 강현식



★ 실기 시험, 그 높은 장벽

지난 2011년 하반기에 치러진 경기도 2차 소방공무원 채용 시험에 최종 합격한 강현식 씨. 수험 생활 4년차인 그는 '수험생들이 저처럼 오랜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 최종 합격 소감을 전해 왔다.

저는 젊은 나이에 직장 생활을 시작해 6년 동안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직장을 그만둔 뒤에 다른 일을 알아보려다 친구의 추천으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지요. 소방 직렬을 선택한 이유는 군대에 있을 때 행정병을 했기 때문에 앉아있는 일보다는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일을 해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학원에 등록해 종합반 수업을 들었습니다. 남들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실력테스트나 모의고사 성적은 잘 나오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한 것이 바로 제가 건강이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허리 상태가 좋지 못했는데, 오랜 시간 앉아서 공부하며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지요. 때문에 번번이 실기 시험에서 낙방을 하게 되었고요.

소방직은 필기시험만큼이나 실기 시험이 중요한데 당시에는 체력 시험은 어떻게든 될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했거든요. 지나고 생각해 보니 제가 얼마나 체력 관리에 소홀했었는지 알겠더군요. 이후에는 병원에 다니고 운동도 하면서 실기 시험을 준비했고, 지난 하반기 시험에 최종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 공부를 즐거라!

수험 생활 초반에는 늘 하루에 11~12시간가량 공부했는데, 그중 7~8시간은 영어를 공부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국어, 그리고 이외의 과목을 공부했습니다.

영어 과목은 학원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합격생들의 수기를 통해 과목의 중요성을 익히 들어왔어요. 그래서 처음 수험 공부를 시작한 1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영어를 공부했지요. 그리고 고득점을 목표로 하기 보다는 70점을 목표 점수로 두고 그에 해당하는 14문제는 절대 틀리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국어는 기본서를 토대로 수업을 듣고 매일 복습했어요. 단 독해 지문의 경우에는 주말에 시간을 들여 읽는 연습을 했지요. 이외의 과목은 수업과 복습을 병행하면서 암기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단 행정법은 제가 합격한 경기도 2차 채용 시험에서 처음으로 도입돼 치러졌어요. 때문에 공부 시간이 다른 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처음 시행되는 만큼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데 기대를 걸었지요.

시험 전 3개월 동안 행정법 기본서 한 권과 최근 3년간의 행정법 기출문제 150문제를 모아 계속 풀고 외우는 데 주력했습니다. 비슷한 문제가 나오거나 유형을 조금 달리한 문제가 나오리라는 예상을 했는데 맞아떨어져서 다행이었지요.

또한 저는 무엇보다 공부를 할 때 즐기면서 하고자 노력했어요. 영어나 국어 지문에서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으면 꾸준히 스크랩도 하면서 공부에 재미를 붙여 나가니 공부 효율도 더 높아졌습니다.

면접은 단체 면접과 개별 면접으로 나누어 치러졌는데, 단체 면접에서는 간단한 소방 지식이나 공무원과 관련된 지식 등을 물었습니다. 또 개별 면접에서는 봉사 활동, 교우 관계, 앞으로의 본인의 비전 등을 물어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습니다.

Interview_⑤ 소방직

★ 계획표는 현실성 있게

수험 생활 초반 2년 동안 요일별 공부 계획표를 매달 만들었어요. 기본적으로 지키고자 노력은 했지만 생각만큼 잘 지켜지지는 않았지요. 그래서 이후에는 한 달 치 계획표를 만들되, 이 달의 목표를 세워 그걸 성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었지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 달을 4주로 나누어 ‘내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공부해야 이 달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거기에 맞는 계획표를 짰습니다. 대신 자신이 충분히 이룰 수 있는 내용을 목표로 삼고 현실성 없는 무리한 계획은 세우지 않았어요.

저는 이렇게 공부 스타일을 파악하기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다른 수험생분들은 자신의 공부 스타일을 되도록 빨리 파악해서 수험 기간을 단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밖에 끊임없이 목적의식을 찾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자습실에서 가장 오래 앉아있는 사람이나 공부를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을 마음속에 목표로 삼고 ‘저 사람보다는 오래,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라고 다짐했어요. 이렇게 끊임없는 동기 유발이 공부에 집중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 슬럼프, 원인과 해결책은 ‘사랑’

첫 시험에 떨어졌을 때까지만 해도 슬럼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시험에 대비해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같이 공부한 수험생 동기들이 합격 인사차 학원에 찾아온 것을 보고 마음이 심란해졌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했는데 제가 합격하지 못한 게 속상했고요. 그래서인지 공부는 계속 했지만 평소보다 집중도 잘 안되고 해이해지는 느낌이 들었지요.

저는 수험 생활 초반에는 아무 데도 기대지 않고 혼자 공부했기 때문에 심적으로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때 같은 직렬을 공부하던 동생과 가까워지면서 사귀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마음을 다잡아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1년도 상반기 시험에 여자 친구는 합격했는데 저는 떨어지면서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어요. 이 시간에도 참 힘들었는데 가족들이 옆에 있어 준 덕분에 다시 힘을 내 공부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 감사,
그리고 격려

시험에 합격했을 때 부모님이 정말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집이 넉넉하지 않은 편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기쁨으로 다가왔지요. 언제나 묵묵히 힘이 되어준 가족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 같은 장수생을 위해 전하고 싶은 말은, 수험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욱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수험생도 사람인지라 인간적으로 기대고 싶고 격려 받고 싶은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니 혼자서 모든 걸 짊어지지 마시고 힘들면 교수님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격려도 받고 조언도 들으며 자신의 부족한 점을 채우세요. 저도 주변에서 도와주신 분들 덕분에 합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수험생으로서 라이벌이 아닌, 함께 공부하는 동반자라는 생각으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Interview_ ⑤ 소방직

2011년 전남 소방공무원 일반소방 | 최종 합격자 남훈현



용감한도전



★ 1년의 시간을 얻다

올해 전남 소방직 시험에 최종 합격한 남훈현 씨. 그의 곁에서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준 아내와 아기는 시험 준비를 하는 그에게 큰 힘이 됐다.

제가 남들보다 늦은 시기에 공무원 시험에 도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저희 아내 덕분이었습니다. 어깨 인대가 끊어져 직장을 그만두고 수술을
받았는데 재취업을 알아보던 중 아내의 임신 소식을 들었어요.

임신 소식에 기쁘면서도 기존 직장은 퇴근 시간이 불규칙하고 임금이 높
지 않아서 아이와 가정을 위해 소방공무원 시험에 도전하기로 마음을 먹
었습니다. 다행히 직장에 다니던 아내의 도움으로 1년의 시간을 잡고 학
원에 등록했습니다.

★ 무작정 암기 No. 이해가 우선

학원에 등록을 하고 나니 대부분이 어린 학생들이었어요. 순간 제 나이
가 부끄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더욱더 저를 채찍질해 주는 조건이었
습니다.

저는 공부를 하며 제 수험 스타일에 대해 분석을 해 봤습니다. 선천적으
로 암기력이 부족했던 터라 ‘이해’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각 과목
별 공부 방법입니다.

우선 국어는 기본서를 천천히 읽으며 문법의 법칙을 이해했고, 표준어는
기출문제 위주로 정리했어요. 한자는 고사성어로 공부했습니다.



한국사는 기본서를 1회독 하는 데 3~4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암기 대신 그 시대 상황을 상상하며 제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를 써 가며 이해했습니다.

영어는 문법에 애를 먹어 점수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으며 공부했고, 기출문제도 많이 풀었어요. 하루에 20분씩 시간을 투자해 문제를 풀며 점수를 체크했습니다. 독해와 어휘도 빼놓을 수 없어서 매일 단어를 외우고 문제를 풀어 보았습니다.

이과 출신이었던 저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며 행정법이라는 과목을 처음 접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히려 재미가 느껴지더군요. 분량이 많아 천천히 읽으며 이해했고 1회독에 5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진도가 다소 늦어도 반드시 이해를 하고 넘어갔어요. 2회독 후 모의고사 성적도 좋게 나와서 전략 과목으로 삼았습니다.

소방학은 기본서를 2회독 한 후 문제를 풀었습니다. 특히 암기할 내용이 많았던 법규는 시험 직전까지 계속 읽어봤어요.

★ 힘들 때
큰 힘이 되어
준 우리 아기

지치고 힘들 때 자신감을 가져보세요. 저는 항상 ‘내년엔 소방관이 되어 있을거야’라고 생각했고, 핸드폰도 미리 119 숫자가 들어가는 번호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임신 중이었던 터라 아기의 초음파 사진을 보고,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아이 사진을 매일 보며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공부 중에 아이가 태어나서 저는 저녁 늦게까지 책을 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어서 지나가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할 제 모습을 보고 싶었으니까요.

★체력 시험은
자세 교정+
부상 주의

체력 시험 항목 중 가장 불합격 비율이 높은 부분이 멀리뛰기와 악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중점적으로 연습했습니다.

우선 악력기를 구입해 양쪽 50개씩 1세트로 매일 5세트를 했습니다. 강도는 1세트를 끝냈을 때 팔이 떨리는 정도로 맞췄고요. 악력기가 끝난 뒤에는 쉬지 않고 수건 짜기를 했습니다.

필기시험 합격 후 입시 체육 학원에서 현재 제 상태와 종목별 점수를 체크했습니다. 그 뒤 제자리멀리뛰기 자세 교정에 주력했습니다. 부상 위험이 큰 종목이라 자세 교정에만 집중했어요.

윗몸일으키기는 집에서 틈틈이 50개씩 연습을 했습니다. 근력이 없던 터라 배근력은 요령을 좀 키웠습니다.

우선 무릎을 편 후 길이를 짧게 잡으면 기록이 잘 나오지 않으므로 엉덩이를 쪽 뻗 상태에서 손은 안으로 모아 주세요. 발 앞쪽에 힘을 준 후 엉덩이만 힘껏 앞으로 밀어내 주면 됩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종목은 왕복 오래달리기였습니다. 거리로 따지면 1천 120미터 거리임에도 방향을 바꿔 달린다는 것이 심적으로는 3천미터를 뛰는 부담이 들더군요. 이 종목은 과락만 넘기자는 생각으로 무작정 뛰었습니다.

체력 시험 후 치렀던 면접시험에서 전문 지식은 소방학개론에서 거의 출제가 됐습니다. 이 밖에 일반 상식, 시사 문제도 있었고요.

필기시험 합격 후 집에서 마냥 시간을 보낼 수 없어 아르바이트를 했던 터라 면접 준비는 일이 끝난 저녁에 시간을 들여 준비했습니다. 신문은 제목을 중점적으로 읽어 보고 소방학개론 책만 다시 꼼꼼히 훑어보았습니다.



★“믿고 응원해
준 아내, 너무나
고마워요.”

필기시험과 체력, 면접시험을 거쳐 저는 현재 현직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면 너무나 고마운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저를 믿고 수험 공부를 허락해 준 아내에게 가장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수험 기간 동안 잔소리 한번 하지 않고 평소와 다를 없이 저를 대해줘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친가 및 처가 가족들도 정말 감사합니다. 공부하면서 신경을 많이 못 써드렸는데 앞으로 천천히 갚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좌절 금지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수험생 여러분, 분명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봐도 봐도 끝이 보이지 않는 책과 오르지 않는 점수, 늘 부족하게만 느껴지는 실력…….

하지만 최선을 다해 하루를 보냈다면 분명 그 시간은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단, 노력 없는 자신감은 ‘자만’일 뿐이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그리고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좌절하지 마세요. 내년 이 시간에 멋진 공무원이 되어 있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힘내시길 바랍니다.

“한 번의 노력, 스스로를
달라지게 합니다.”

2011년 경기도 지방공무원 농업직 7급 | 최종 합격자 조서환

“항상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지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자신의 능력에 맞춰 계획을 세우고, 이에 맞춰 공부하세요. 남과 비교하며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 부족한
점을 하나씩
극복해 나가야

올해 경기도 농업직 7급 시험에 최종 합격한 서환 씨는 수험생들에게 ‘난 머리가 나빠서’, ‘시간이 없어서’ 등의 이유를 대며 자기를 합리화 하는 태도를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술 직렬 특성상 학교에서 전공 공부는 해 둔 상태였으나 시험을 준비하며 부족한 실력에 대해 느꼈다는 서환 씨.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는 자신이 불안해하는 이유를 찾아 하나씩 극복해 가는 방법을 택했다.

우선 취약 과목이었던 국어와 영어는 수업을 많이 듣고 스테디를 꾸준히 했다. 우선 국어 과목은 빈출 유형을 파악해 해당 문제를 모두 맞힌다는 각오로 공부했고, 수업 후 문제 풀이를 병행했다. 시험 직전 동형 모의고사로 실력을 파악하며 감을 유지하는 데 집중했다.

“한자 성어는 스테디를 통해 중요한 부분만 암기했어요. 하루에 20~30개 정도를 외웠는데 처음부터 완벽하게 암기하는 것보다 2~3회 반복을 하여 정확히 외웠습니다.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하루 분량을 외우는 데 필요한 시간도 점점 줄었고요. 한자는 부담을 가지지 않고 하루에 1~2시간씩 공부하며 회독 수를 늘렸습니다.”

시험을 1~2일 앞두고 서환 씨는 최종 정리에 돌입했다. 로마자, 띄어쓰기, 맞춤법, 외래어, 문장 부호, 한자 성어 등 시험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을 복습한 것.

이때는 새로운 것보다 기존에 공부해 둔 내용을 확실히 암기했다. 서환 씨는 이에 대해 “시험장에서 아예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마음 편히 넘어갈 수 있지만 애매하게 아는 문제가 나오면 다음 문제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라고 답했다.

영어 과목은 문법책을 3회독 하고, 단어와 숙어는 스테디를 통해 공부했다. 매일 50~70개 단어를 외우며 점차 단어 개수를 늘렸다.

생활 영어는 하루에 10~20 문제를 정해진 시간 안에 풀었고, 단어와 표현, 숙어 문제는 따로 쪽지 시험을 치렀다.

한국사는 지난해 수업을 듣고 치른 시험에서 과락의 점수를 받아 서환 씨에게 큰 충격을 안겨 주기도 했다. 이후 그는 한국사 선생님과 상담을 한 후 조언에 따라 이론 수업과 문제 풀이를 병행했다.

“매일 수업을 듣고 독서실에 가서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문제를 풀었어요. 때론 귀찮아서 복습은 거르기도 했지만 수업 진도에 맞춰 문제 풀이를 했습니다. 처음엔 오답이 많아서 공부를 충분히 한 후 문제를 풀어야 하나 하는 고민도 했으나 마음을 편히 먹고 모르는 문제는 다음에 풀어본다는 생각으로 공부했어요. 한국사는 범위도 넓고 지엽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공부를 하다 어려운 부분이 나오면 과감히 넘어가고 복습할 때 확인한다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전공과목 학습 방법

농업 직렬 시험에 응시한 서환 씨가 조언한 전공과목 학습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재배학과 식용작물학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이론 스테디를 통해 쪽지 시험을 보며 공부했다.

이후 이론과 기출문제를 2회독 한 후, 국가직 9급 시험 전 이론, 기출문제, 중요 암기사항을 4일 동안 복습한 후 시험에 임했다. 토양학은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들은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서환 씨가 비교적 수월하게 생각했던 생물학 과목이 국가직 7급 시험에서 과락 점수를 받게 되었다. 이후 지방직 7급 시험을 준비하면서 동영상 강의를 들었고, 진도에 맞춰 문제를 풀었다.

★주어진
시험 시간
계획표 짜보기

시험 당일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자 서환 씨는 택시를 타고 가거나,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마음을 다스렸다. 시험 전에는 눈을 감고 생각을 정리한 후 문제 풀이 계획을 세웠다고.

“예를 들면 50분 동안 국어와 영어 문제를 풀고, 국사 문제 중 모르는 내용은 넘어가며 15분 내에 문제를 푼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공 문제를 풀다가 시험 종료 20분 전에 마킹을 한 후 나머지 전공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워 시험에 최대한 집중했어요.”

★자기 암시를
통해 두려움을
없애다

서환 씨는 수험 공부를 하며 일주일 계획표를 만들어 하루 공부량, 한 주 공부량을 모두 기록했다. 국가직 9급 시험을 기준으로 삼아 D-100일부터 상세하게 하루 일과를 기록했다고. 쉬는 시간, 식사 시간, 공부 시간 등을 적으며 스스로를 관리했다.

“하루 공부하는 시간은 평균 7~8시간 정도였어요. 집중이 잘 되지 않는 날은 5시간도 하지 못할 때도 있었고요. 이런 걸 흔히 슬럼프라고 하는데 이 기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직접 눈으로 일주일 공부량을 확인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처럼 슬럼프를 이겨내기 위해 서환 씨는 학원 선생님을 찾아 상담을 하며 조언을 구하고 자기 암시를 하는 방법을 활용했다. 머릿속으로 ‘난 반드시 합격한다.’, ‘힘들지 않다.’, ‘이번 시험에는 내가 공부한 내용만 출제된다.’라는 암시를 하며 두려움을 없애고 용기를 북돋울 수 있었다고.

★ 힘이 되어
준 친구, 정말
고마워

서환 씨는 “함께 시험을 준비하며 힘들 때 서로 격려를 해주고 의지할 수 있었던 친구 음이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친구를 보며 항상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수험가에서건 어디에서건 서로 힘이 되는 친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라는 말을 전해 왔다.

국가직 9급 시험을 약 석 달여 남겨 둔 수험생들에게 서환 씨는 다음과 같은 조언을 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좌절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좌절이 반복되면 무감각해지고요. 이러한 무감각을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 아무도 대신 해 줄 수 없으므로 반드시 혼자 이겨내세요. 공부할 때 잡생각이 든다면 이를 지울 정도로 노력하고, 집중하세요. 해 보지 않고 포기하는 것보다 한 번 노력해 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도전한 관세직

2011년 국가공무원 관세직 9급 | 최종 합격자 김연옥

나이가 들수록 도전하는 자세는 뒷걸음질 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드라마에서처럼 꼭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도전하는 일이 평생에 한 번쯤은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 일이 저에겐 관세직이라는 공무원이었고 서툴렀지만 찬찬히 준비해 나갔습니다.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전하는 자세로 임하신다면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과 현직에서 만나 뵈실 수 있을 것입니다.

★ 관세직이라는 낯선 길을 걷다

처음 관세 직렬을 알게 된 것은 우연한 기회에 대학 선배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부터입니다. ‘다른 직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업무 만족도가 높고 일이 재미있다.’는 선배의 말에 관세 직렬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결혼으로 인해 지방에 내려오게 됐고 살게 될 집 근처에 마침 세관이 있어 좀 더 깊이 있게 관세직 공무원에 대해 생각하게 됐습니다. 정말 우연한 기회였고 관세 직렬에 대한 관심이 저의 평생 직업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관세 직렬을 준비하면서 저의 꿈은 더욱 확실해졌고 이렇게 합격 수기를 쓰게 되어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체계를 잡는
6개월, 성적
향상을 위한
7개월

첫 시험의 성적은 지금 봐도 답답합니다. 국어 45점, 영어 75점, 한국사 50점, 관세법 15점, 회계원리 75점, 평균 52점(합격선 77.50점)이었습니다. 관세법 15점이라는 것은 한 번호로만 찍어도 이보다 낮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반면 영어는 취업을 목표로 공부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적이 잘 나온 편이었고, 한국사와 회계원리는 부단한 노력으로 성적을 올린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합격선에는 아주 많이 부족한 성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체계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으로 6개월 동안 꾸준히 공부했습니다. 5과목을 몇 회독을 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을 앞둔 마지막 7개월 동안은 스터디를 점차 늘려나갔습니다. 혼자서 공부를 하는 것은 저에게 맞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공부하는 것이 제 스타일에 맞았기 때문입니다.

전 과목을 스터디할 때는 스터디가 끝난 후 집에 돌아와서 다음날 스터디 준비를 하고 나면 하루가 끝날 만큼 스터디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물론 스터디를 활용하는 학습 방법은 개개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 체계를 잡은 후 성적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고, 저만의 학습 방법이 자리를 잡으면서 최종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실 수험생 여러분, 자신만의 공부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후 체계적인 학습으로 공부를 하신다면 훨씬 더 효율적인 학습이 될 것입니다.

★면접, 이야기
보따리를 풀다

- 윤리나 법에 어긋나는 상황에 처한 경험과 해결 사례
- 시간이 촉박했을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한 경험
- 도움을 청하지 않았을 때에도 먼저 남에게 도움을 준 경험
- 그 외에 가장 힘들었던 경험
- 본인이 가장 만족스러웠던 발표 경험
- 주변에서 평가하는 본인의 모습

면접 때 위의 질문들을 받았고 첫 번째 문항에 대한 답변 내용을 전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전에 호주에 사는 언니네 집에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언니의 부탁을 받고 면세점에서 담배 두 보루를 샀는데 비행기 안에서 그것이 통관 범위를 넘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옆자리에 앉은 외국인에게 담배 한 보루를 선물했습니다. 법에 어긋나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었고 그 외국인에게는 기분 좋은 선물을 줌으로써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다음으로 면접 장소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대체적으로 분위기가 차가운 편이었고, 무엇보다 인성에 대해 좀 더 심층적으로 면접을 봤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대부분 스터디를 통해 면접 준비를 할 때 접한 내용들이어서 상대적으로 쉽게 답변할 수 있었습니다.

면접을 끝낸 후 생각해 보니 제가 봤던 면접에서는 솔직함과 겸손함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관세직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이라면 이점 참고하시고 면접에 대비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 실수도 실력이다

제가 했던 고민을 수험생 여러분들도 하고 계실 것 같아 이러한 글로 마무리해봅니다. 저는 항상 모의고사를 끝내고 채점을 해 보면 성적표상의 점수가 평균 1~2점 정도가 차이가 나서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쯤 되니 ‘실수도 실력이다.’라는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서 그런 고민을 접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느낀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실력이다.’가 아니라, 1등을 한 사람도 실수로 틀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수를 하고서도 합격할 점수를 받을 만큼 실력을 갖추는 것이 진정한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1~2점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꾸준히 열심히 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격하신 분들 모두 마찬가지로겠지만 저 역시 2010년 1년은 인생이 좌우되는 해라고 생각하며 공부에 집중을 했습니다. 누가 저에게 “1년 더 공부를 할래?”라고 묻는다면 죽어도 다시는 못하겠다고 답할 정도로 모든 것을 공부에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도 인생을 걸고 최선을 다해 공부를 하신다면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직업 전환의 쉽지 않은 길

2011년 국가공무원 검찰사무직 9급 | 최종 합격자 차종우

이렇게 합격 수기를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제가 직업 전환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기도 했고, 현재 재직 중이면서 수험 생활을 하시는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방향 설정용 디딤돌이 되고자 이렇게 용기를 냈습니다.

공부를 1~2년 정도 하신 분들께는 자신의 공부 방법을 비교할 수 있는 참고용으로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고 처음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께는 검찰사무직에 대한 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검찰사무직 으로 가는 디딤돌

제가 현직 경찰로 재직 중이었을 때 뇌성마비 장애가 있는 친구가 사업주에게 월급을 횡령 당하는 일이 발생했고, 그 일을 겪은 후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검찰공무원이 되겠다.’라고 마음먹었던 일이 지금의 저를 있게 했습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정보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혼자서 공부를 해야 했기 때문에 수험 정보를 알 수 있는 합격 수기를 읽었습니다. 이렇게 합격 수기를 쓰게 된 계기도 제가 받은 만큼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균적으로 집, 공공도서관, 지하철 출퇴근길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며 공부를 했고 목표 점수에 도달하기 위해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전략 과목을 만들어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됐습니다. 검찰사무직렬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대부분이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전략 과목으로 삼습니다. 이처럼 법 과목은 자신이 학습한 만큼에 따라 성적이 나오는 정직한 과목이기 때문에 만점을 목표로 공부하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단, 형법과 형소법은 첫술에 배부르지 않는 과목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반복적인 학습만이 성적 향상을 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이점 꼭 기억하시고 실천에 옮기시길 바랍니다.

★ 직장인
수험생활의
1등 공신은
문제집

직업 전환 공부를 하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업무를 끝내고 공부를 해야 했기 때문에 나름 계획을 세워서 일정을 짰다가도 며칠 후면 흐지부지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불규칙한 생활로 인해 더욱더 규칙적인 공부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때문에 최대한 제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의 영역을 정해놓았습니다. 출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영어 단어를 보거나 최소한 30분의 학습을 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다양한 문제집을 접해보는 것입니다. 문제집을 중심으로 가능한 많은 문제를 접하고 틀린 부분들을 정리해 시험 전 A5용지 10장 내외로 압축했고, 시험 전 제가 자주 틀렸던 부분만 집중적으로 학습했습니다.

이처럼 문제를 통해 집중적으로 학습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어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반복해서 보면서 많은 내용들을 눈에 익히고 암기를 했습니다. 또한 한자와 한자 성어도 빠짐없이 학습했습니다.

영어 어휘를 학습할 때는 모르는 단어를 작은 수첩에 적으면서 1년에 걸쳐 압축해 나갔고 독해는 최신 기출문제집을 통해 모의고사를 풀었습니다. 독해는 추론 같은 경우 해석 이외의 언어 능력이 요구되는 만큼 2~3개는 틀린다고 가정하고 학습을 했습니다.

한국사 기출문제집을 우선적으로 보고 다양한 문제를 접하면서 학습을 했고 EBS 교재, 수능 교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출문제집 등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형법·형소법 형법은 학설을 마지막에 정리했고 총론의 중요 학설은 6~10개로 압축을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형법과 형소법은 다양한 문제집을 보면서 문제를 풀고 오답과 판례를 정리해 오답노트를 만들며 압축해 나갔습니다.

★ 면접 핵심
전달하기

면접시험을 준비할 때 혼자서 면접을 준비하다 보니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남들보다 몇 배는 더 노력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되는 질문들을 정리해 100여 장을 만들어 외우는 것은 물론 반복적인 학습으로 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전공 질문에도 신경을 써서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 조사서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양한 질문들과 낯선 질문들을 받았을 때도 사전 조사서를 응용하면 되기 때문에 면접을 준비하실 때는 사전 조사서를 중심으로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면접 때 받았던 질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봉사 활동 경험 ▲창의성을 발휘한 경험 ▲사무 경험 ▲공무원 생활을 해 보니 어떠한가? ▲업무상 모르는 전문 지식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가? ▲지원 동기와 포부는 무엇인가?

★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필요할 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처럼 준비한 사람에게는 늘 행운이 따릅니다. 이제는 공무원 시험이 응시 연령 제한도 없어지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도전하는 시험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공부에만 집중하지 못한다고 해서 불안해하고 힘들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그러했고, 꾸준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신다면 꼭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